

梁 光 錫 教授指導

博士學位 請求論文

栗谷 李珥의 詩文學 研究

2007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漢文學科

朴 京 信

# 栗谷 李珥의 詩文學 研究

梁光錫 教授指導

이 論文을 博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6年 11月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漢文學科

朴京信

# 認 准 書

朴京信의 博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	金 呂 珠	
審査委員	申 用 浩	
審査委員	朴 性 奎	
審査委員	柳 浚 景	
審査委員	梁 光 錫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 論文概要

本 論文은 성리학적 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는 율곡의 문학관을 밝히고, 율곡이 『精言妙選』에서 제시한 風格을 통해 율곡의 심미의식과 율곡 시의 미적 특질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栗谷 李珥(1536~1584)는 丙申年(中宗 31년) 12월 26일 關東 江陵 北坪村에서 태어났다. 本貫은 德水이고, 字는 叔獻, 號는 栗谷이다. 율곡은 온화한 성품과 재능을 바탕으로 가정에서는 효성스런 아들이자 손자였다. 출사하여서는 임금을 성군의 길로 이끄는 강직한 신하이자 백성들의 고통을 어루만지는 관리로서 본분을 충실하게 완수하였다. 더불어 학문적·문학적으로도 자신의 세계를 깊이 있게 일구어 국내외적으로 인정을 받았던 인물이다. 吏曹判書로 재임하던 중 갑작스런 病으로 宣祖 17년(1584) 정월 16일에 세상을 떠났다.

율곡은 어려서 어머니 신사임당에게 가정교육을 받은 것 외에는 뚜렷한 師承關係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각종 書信을 통해서 交友關係의 일면을 살필 수 있다. 율곡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성리학자인 만큼 그가 교유했던 주요 인물은 대개 당대 성리학의 대가로 李滉·成渾·宋翼弼·鄭澈 등이다.

율곡은 도학자로서 道本文末의 문학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文以形道라 하여 文이란 道를 형상화시킨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소리를 氣의 작용이라고 전제하고, 清濁粹駁을 내포하고 있는 모든 소리 중에 가장 純善한 頂點을 善鳴이라고 하였다. 그는 문학 창작에 있어서 不文之文이라 하여 수식하지 않은 아름다움을 강조하였다. 율곡이 至文이라고 한 것은 天地之文과 聖賢之文으로 이는 인위적인 조작이 없으며 자연스러운 최고의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는 문장이다. 그리고 비평에 있어서는 天然의 문장을 중시하였다. 율곡은 문학이 性情醇化·民風教化·內治外華에 도움이 된다고 하여 전형적인 도학자로서 儒家的 효용론을 가지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율곡의 문학관은 당시 사림과의 문학론을 대표하는 것으로 사림과 문학론을 체계화시켰다는 의미를 지닌다.

본고에서는 율곡의 詩世界를 詠懷詠史詩·說理理趣詩·山水遊覽詩·交遊贈答詩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詠懷詠史詩는 그리움이나 쓸쓸함 등의 정서를 표출한 詠懷詩와 古事나 歷史的인 사실과 관련된 인물을 읊은 詠史詩를 포함한다. 說理理趣詩는 율곡의 도학적 학문 경향이 드러난 시이다. 학문적인 내용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거나 자연물에 비유하여 지은 시이다. 山水遊覽詩는 산수 자연을 유람을 하며 산수의 정경을 읊은 시이다. 交遊贈答詩는 율곡이 임금·친구·사신·스님·선후배 등 많은 사람들과의 교류하고 증답한 시이다.

율곡은 당시 문단 상황에 대한 문제점 극복과 문학의 본질을 확립해야 한다는 시대소명을 가지고 『精言妙選』이라는 詩選集을 편찬하였다. 그는 『精言妙選』을 통해 풍격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詩的 典範의 提示와 作詩의 現實 收容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詩的 典範의 提示는 율곡이 추구한 文學적 理想이자 문학에 대한 이상적 전범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作詩의 現實 收容은 훈구과의 文學적 견해를 수용함으로써 기존 문단의 경향을 절충 융합하였다는 의미와 作詩의 방법 연마를 통한 시의 학습이라는 현실을 감안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詩的 典範의 提示에 해당하는 풍격은 沖澹蕭散·閒美清適·清新灑落이다. 沖澹蕭散의 기준은 不事繪飾과 妙趣이다. 沖澹蕭散은 시인의 가슴에 가득한 기운이 절로 流出된 것으로써 아무런 꾸밈이 없는 풍격이라고 할 수 있다. 閒美清適은 천지자연의 관조를 통해 天人合一의 경지에 이르러 자연과 하나가 되어 절로 일어나는 흥에서 나오는 풍격이다. 清新灑落은 맑고 새로우며 속되지 않은 것이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몸을 깨끗하게 보존함으로써 속세 인간의 俗氣가 없는 탈속적 경지를 의미하는 풍격이다. 作詩의 現實 收容에 해당하는 풍격은 用意精深·情深意遠·格詞清健·精工妙麗이다. 用意精深한 풍격의 가장 큰 특징은 造妙之論이다. 句語鍛鍊이 되어 시어가 정교하고 다의적이며, 格度嚴整하여 섬세

한 詩情을 담아낸 풍격이다. 情深意遠은 외적인 자극에 반응한 내적 정서의 표출로 지어지되 ‘怨而不悖 哀而不傷’한 詩情을 담아 깊고 고요한 마음에서 나오는 풍격을 의미한다. 格詞清健은 勁健하고 급박함 없는 천성이 문장의 내면에 바탕을 이룸으로써 표출되는 풍격이다. 精工妙麗는 시인의 정신에서 천연스럽게 우러나 正氣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적인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는 풍격을 의미한다.

율곡이 『精言妙選』에서 제시한 심미의식은 그의 시에서도 발견된다. 율곡이 『精言妙選』을 통해 밝힌 풍격에 대한 견해가 選詩의 기준이자 창작의 기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율곡이 이상적인 풍격이라고 여겼던 沖澹蕭散·閒美清適·清新灑落은 율곡의 시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다. 율곡의 시에서 형상화된 세 풍격의 미적 특질은 淡泊美·閒適美·脫俗美로 요약된다. 이는 율곡시의 미적 특질이자 사림과 문학의 미적 특질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율곡의 시문학이 한문학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첫째, 江西詩派의 이론을 토대로 한 훈구파의 문학 이론을 일부 수용함으로써 15세기와 16세기 초에 걸친 문학 이론을 종합 정리하였다는 의의를 부여할 수 있겠다. 둘째, 율곡은 사림파의 핵심인물로서 朱子の 문예 이론을 추송하여 사림파의 미의식을 체계화시키고 종합함으로써 사림파의 문학 이론을 정립시켰다는 의의를 부여할 수 있겠다. 셋째, 16세기 중반이후 詞壇에 일게 되는 學唐의 단초를 제공함으로써 17세기 이후 문학론에 先聲의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의의를 부여할 수 있겠다. 넷째, 율곡의 『精言妙選』은 17세기 이후 주자의 시론을 계승하고자 하는 각종 시선집의 선편이 되었다는 의의를 부여할 수 있겠다.

主題語: 李珣·栗谷·沖澹蕭散·閒美清適·清新灑落·用意精深·情深意遠·  
格詞清健·精工妙麗



# 目 次

## 論文概要

I. 序論 .....	1
1. 研究目的 .....	1
2. 研究史 檢討 .....	3
3. 研究 範圍 및 方法 .....	7
II. 詩文學的 背景 .....	10
1. 生 涯 .....	10
2. 時代狀況 .....	14
3. 交友關係 .....	17
III. 栗谷의 文學論 .....	26
1. 文以形道와 善鳴 .....	26
2. 不文之文과 天然 .....	30
3. 儒家的 效用論 .....	34
IV. 栗谷의 詩世界 .....	38
1. 詠懷詠史詩 .....	40
2. 說理理趣詩 .....	46
3. 山水遊覽詩 .....	55

4. 交遊贈答詩 .....	63
<b>V. 栗谷의 風格과 美的 特質 .....</b>	<b>75</b>
1. 『精言妙選』의 風格 .....	76
1) 詩的 典範의 提示 .....	78
2) 作詩의 現實 收容 .....	85
2. 栗谷 詩의 美的 特質 .....	92
1) 修飾이 排除된 淡泊美 .....	92
2) 情景이 融和된 閑適美 .....	104
3) 俗氣가 除去된 脫俗美 .....	113
<b>VI. 文學史的 意義 .....</b>	<b>124</b>
<b>VII. 結論 .....</b>	<b>130</b>
參考文獻 .....	134
ABSTRACT .....	141

# I. 序 論

## 1. 研究目的

고려 말 이제현·이곡·이색 등은 도학을 유학의 일부로 보고 유학의 大體를 회통하여 문과 도를 모두 중시하였다. 이후 16세기에 이르러 도학은 사회 전반에 관여한 가치체계로써 정치·문화·교육·도덕 등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로 인해 도학이 작품의 창작과 비평의 기준이 되어 문학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栗谷 李珣(1536~1584)는 中宗에서 宣祖 사이에 살았던 대유학자이다. 율곡은 程朱의 학설이라도 그 장단점을 지적하고 諸家の 학설을 절충 보완하였다. 그는 도학은 格物致知하여 선을 밝히고 誠意正心하여 그 몸을 닦아 몸에 蘊蓄하면 天德이 되고 이를 정사에 베풀면 王道가 된다고 하였다. 문학에 있어서도 이러한 인식하에 創意精神과 明哲한 論理로 제가의 문학론을 융합 조 절하여 도학가의 재도적 문학관을 계승하였다. 율곡은 道에 대한 믿음이 敦篤하지 않고 志氣의 和順함이 충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重外輕內·玩物喪志 할까 두려워 글짓기를 단념한다<sup>1)</sup>고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학문적 바탕 위에서 道學과 일치하는 詩文을 요구한 것은 문학과 도학의 융합을 의미한다. 특히 그는 문학 작품 중 가장 뛰어난 것은 시라고 인식하였다. 시는 성정에 근본을 둔 것으로써 꾸며서 되는 것이 아니며<sup>2)</sup> 화순한 지기가 쌓여 英華가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古詩 중 가장 정밀하고 법이

- 
- 1) 李珣, 『栗谷全書』, 「拾遺」卷三, 「書下」, <與宋頤菴>. ‘但以信道未篤而先事於文 和順未積而先發英華 則其不幾於中外而輕內乎 其不幾於玩物而喪志乎 以此絕意於爲文而有所會吝’ 이후 『栗谷全書』는 『全書』라 함.
  - 2) 李珣, 『全書』卷十三, 「序」, <精言妙選總序>. ‘人聲之精者爲言 詩之於言 又其精者也 詩本性情 非矯僞而成’

될 만한 것을 묶어 『精言妙選』이라고 하였다. 冲淡한 시로 原流의 本源을 알게 하고 美麗한데 이르면 시의 본질을 상실하게 됨<sup>3)</sup>을 학자들에게 보여 詩道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율곡은 이와 같이 문학에 대한 확고한 인식하에 정제되고 참신한 이론체계를 갖추어 문학과 학문의 진정한 조화 통일을 이룩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철학·사상·정치, 그리고 교육에 이르기까지 확고하게 자리를 굳히며 지금까지 그 업적을 크게 평가받고 있으니, 조선 500년 史에 있어 그 끼친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 그렇기 때문에 율곡에 대한 연구는 다방면에 걸쳐 다각도로 이루어져 있어 이미 축적된 연구 성과만도 이루어야 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러나 율곡이 문장가이기보다는 사상가나 정치가로서 더 높이 평가받음으로 인하여 그에 대한 연구 역시 사상이나 교육 또는 경세적인 측면에 집중되어있다. 문학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있기는 하나 이 역시 그의 문학 작품을 직접 다루기보다는 그의 문학 사상에 대해 접근한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상당한 詩文이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작품 전반에 걸친 심도 있는 연구는 미약한 형편<sup>4)</sup>이다.

16세기 이후 사림파의 문학에 대한 인식은 단순히 문학적인 측면에서 뿐 아니라,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사림파의 문학이론은 훈구파와의 정치적·사상적인 갈등 속에서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근거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사상적으로 체계적인 이론을 세우고 있었던 사림파는 문학에 있어서도 사상적인 기반을 토대로 체계적인 이론을 구축함으로써 그들의 문학인식은 그 시대의 보편적인 문학론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래서 사림파의 문학에 대한 이론과 미의식에 대한 이해는 16세기 문학에 대

3) 李珣, 『全書』 卷十三, 「序」, <精言妙選總序>. ‘敢採其最精而可法者集 爲八篇加以圈點 名曰精言妙選 以冲淡者爲首 使知原流之所自 以次漸降至於美麗 則詩之絡脈殆近於失真矣’

4) 鄭亢教, 『율곡선생의 시문학』, (이화문화출판사, 1992).  
 이민홍, 『조선조 시가의 이념과 미의식』,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0).  
 홍학회, 「율곡 이이의 시문학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1).  
 鄭亢教, 「栗谷 李珣의 詩文學 研究」, (경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2).  
 崔文馨, 「栗谷의 主氣論的 文學觀과 詩世界」,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4).

한 이해를 의미하기도 한다. 율곡은 성리학을 집대성한 대유학자이면서 문학적으로도 상당한 분량의 작품을 남기고 있으며, 자신만의 미의식을 기준으로 詩選集을 편찬한 사림파의 대표적 인물이다. 때문에 율곡의 시문학 전반에 대한 고찰은 사림파 문학의 실체를 파악하는 전제다 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성리학적 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는 율곡의 문학관을 밝히고, 『精言妙選』에서 제시한 풍격을 통해 율곡의 심미의식과 그의 시에서 발견되는 미적 특질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는 16세기 사림파 문학에 대한 이해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2. 研究史 檢討

지금까지의 율곡 문학관련 연구는 대부분 그의 문학관에 대한 연구, 내지는 『精言妙選』이나 <高山九曲歌> 등 그의 문학과 관련해서 주목을 끌었던 일부분에 대한 연구<sup>5)</sup>가 주를 이루고 있는 형편이다.

그 중에서 율곡의 시문학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조동일은 『한국문학사상사시론』에서 율곡이 文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견해는 貫道之器가 아닌 載道之器라고 규정하였다. 율곡의 견해가 載道之器라는 송대 성리학의 입장이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그 이유를 입증하는 것을 문학론의 과제로 삼았

5) 金炳國, 「高山九曲歌研究」, (成均館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0).

崔承洵, 「栗谷의 文學觀」, 『율곡사상연구 제1집』, (율곡학회, 1994).

김상일, 「율곡 이이의 선체험과 그 시세계」, 『韓國文學研究 24집』, (韓國文學研究所, 2001).

김태환, 「율곡의 미적 인식에 대한 고찰」, 『배달말 28』, (배달말학회, 2001).

정재철, 「정언묘선의 사유체계 및 심미의식」, 『韓國漢文學研究 34집』, (韓國漢文學會, 2004).

윤채근, 「栗谷 文學論과 散文 精神에 대한 考察」, 『어문논집 43』, (민족어문학회, 2001).

다고 전제하고, 율곡이 조선 전기 사대부의 성리학적 문학사상을 분명하게 체계화하였음을 밝혔다. 율곡은 조선 왕조의 중세적 질서의 위기를 예견하고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 문학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그래서 문학을 사대부의 교양이나 취미로 보는 사장과 의 입장파와 과거제도의 폐단을 비판하면서 도덕적 질서와 지배층의 정신 자세를 확립하고자 문이제도를 주장하였다고 하였다.<sup>6)</sup>

李敏弘은 『朝鮮朝 詩歌의 理念과 美意識』에서 사림파의 한시에는 ‘성정미학’과 ‘사회미학’이라는 두 갈래의 미의식이 존재한다고 보고 특히 사림파의 산수시를 이해하는 데 성정미학의 잣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한시 속에 담긴 철학 사상을 살피려는 것이 아니라 성리학적 성정이 시에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살피려는 것으로 구체적 작품을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율곡의 문학관을 性情美學이라 보고 ‘道文一體’와 ‘不文而爲文’으로 나누어 밝혔으며, <高山九曲歌>를 『精言妙選』에서 제시한 풍격과 관련하여 분석하였다. 『精言妙選』에서 율곡이 으뜸으로 삼은 ‘冲淡’이란 ‘優柔忠厚’요 ‘激昂된 情緒’를 배제한 은근한 시의 세계를 의미하며, <高山九曲歌> 역시 충담과 우유충후를 기저로 한 ‘以滌胸中之滓穢 則存省之一助’를 동기로 삼은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朱子の <武夷權歌>가 <高山九曲歌>라는 단가작품으로 변용되어 강호가도의 한 전범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고 <武夷權歌>가 우리나라 한시와 단가에 수용된 양상에 대해 고찰하였다.<sup>7)</sup>

李鍾默은 『한국 한시의 전통과 문예미』에서 성리학적 사유가 한시로 형상화되는 방식을 고찰하였다. 그는 사물에 대한 인식의 방식인 관물론과 여기서 나아간 실천방식으로서의 수양론이 어떻게 작시의 논리로 활용되고 있는가를 살피면 성리학적 시세계의 전형과 미적 특질을 알 수 있으리라 보았다. 그리하여 서경덕·이언적·이황·성혼·이이를 중심으로 성리학적 사유

6) 조동일, 『한국문학사상사시론』, (지식산업사, 2003).

7) 이민홍, 『조선조 시가의 이념과 미의식』,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0).

의 형상화와 그 미적 특질을 살펴보았다. 이에 서경덕의 깨달음의 시학과 이언적의 觀物察己의 시학, 이황의 觀物察理의 시학을 율곡의 시학과 비교하였다. 서경덕은 자신의 깨달음을 불가의 화두처럼 제시하는 것을 詩作의 방편으로 삼아 구체적인 사물을 매개로 그 이면의 이치를 자득의 감격으로 표현하는 데서 그침으로써 문학적 형상화에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나 자신만의 독특한 깨달음의 시학을 창출하였다. 이언적은 사물을 수양의 도구로 삼아 居敬의 자세를 담담하게 노래하였고, 이황은 거경과 함께 궁리를 중시하여 사물의 관찰을 통하여 그 속에 내재한 이치를 밝히려는 자세를 시에 담아내었다. 이언적과 이황의 시학이 자신의 철학적 자세를 시에 담아내는 재도론이라면 이이와 성혼은 심성의 수양을 통하여 확보된 고도의 정신미를 시에 담아내는 관도론에 가깝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이이와 성혼의 시학은 철학과 시학이 혼용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담박한 서경시적인 성격이 강한 堦乘의 전형을 열어주게 되었다고 그 의의를 밝히고 있다.<sup>8)</sup>

金昞國은 『고전시가의 미학탐구』와 「고산구곡가 연구」를 통하여 율곡의 시문학에 대해 비교적 폭넓게 고찰하고 있다. 먼저 「고산구곡가 연구」를 통하여 <고산구곡가>의 미를 沖澹蕭散으로 보아 그 특징을 平淡·天然·調和로 나누어 <고산구곡가>의 구조와 표현에서 구현된 아름다움을 살폈다. 이는 『정언묘선』에서 언급한 미학을 율곡의 작품을 통해 고찰하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고산구곡가>라는 제한된 작품에서의 풍격을 고찰하였다는 한계가 있다.<sup>9)</sup> 『고전시가의 미학탐구』에서는 도와 문의 관계에 있어서 문의 성격을 문예적 기능을 위주로 한 문의 개념이 아니라 학자적인 입장에서 이치를 위주로 서술한 문이라 보았다. 그래서 도와 관련하여 율곡이 제시한 문의 규범적인 성격을 수사적인 측면에서는 至文으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善鳴으로 요약하였다. 또한 『精言妙選』과 관련하여 비교적 다각적

8) 李鍾默, 『한국 한시의 전통과 문예미』, (태학사, 2002).

9) 金炳國, 『고전시가의미학탐구』, (월인, 2000).

인 검토를 하였다.<sup>10)</sup>

洪學姬는 「栗谷 李珣의 詩文學 研究」에서 율곡 문학과 『精言妙選』, 그리고 시세계의 내용을 상호 유기적으로 살펴보려는 의도 하에 그의 문학 세계를 主氣의 思想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고찰하였다. 이는 율곡 시문학과 관련하여 본격적인 시 작품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sup>11)</sup>

鄭亢教는 「栗谷 李珣의 詩文學 研究」에서 율곡이 성리학자라는 점에 주목하여 문학에 있어서도 성리시인으로서의 면모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하였다. 문학론에서는 程·朱 이래 性理文學의 正統觀念으로 정립되어 온 文以明道·文以貫道·文以載道에 대해 明道·貫道·載道보다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文以形道라는 개념으로 문학을 정의하고, 그의 詩論에 있어 道文一致的 形道文學의 표준을 '善鳴'이라고 새롭게 규정하였음을 밝혔다. 또한 율곡이 『精言妙選』을 통하여 韓·中詩史에 있어 獨步의인 詩品論을 전개함으로써 도학자의 문학 비평이론을 확립한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는 율곡 詩文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이며, 『精言妙選』에 대한 검토를 아우르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sup>12)</sup>

崔文馨은 「栗谷의 主氣論的 文學觀과 詩世界」에서 율곡 문학의 근거를 氣에 두고 율곡의 氣哲學을 바탕으로 그의 문학론에 접근하였다. 그리고 『精言妙選』에 담긴 풍격론과 『精言妙選』에서 제시된 풍격 중에서 沖澹蕭散·閒美清適·情深意遠·格詞清健의 풍격을 기준으로 율곡의 작품을 분석하였다. 율곡의 문학론을 『정언묘선』과의 관련성을 가지고 조망하고 실제 작품을 가지고 풍격을 살펴보았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sup>13)</sup>

이상의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율곡의 시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형편이다. 더욱이 『精言妙選』의 심미의식과 율곡의 시에 대한 풍격 관련 연

10) 金炳國, 「高山九曲歌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11) 홍학희, 「율곡 이이의 시문학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1).

12) 鄭亢教, 『율곡선생의 시문학』, (이화문화출판사, 1992).

13) 崔文馨, 「栗谷의 主氣論的 文學觀과 詩世界」,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4).

구는 미흡한 수준이다. 때문에 본고에서는 이상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하여 율곡의 시 작품을 중심으로 율곡의 풍격에 대한 미의식과 그의 시에서 구현된 풍격 특질을 보다 심도 있게 고찰해보고자 한다.

### 3. 研究範圍 및 方法

栗谷의 文集은 그의 遺稿를 바탕으로 死後 27년 만인 1611년 海州 紹賢書院에서 朴汝龍 등에 의해 『栗谷先生文集』 11권이 木版으로 간행되었다. 이후 活字本으로 원집 11권이 重刊되었으나 그 시기와 간행의 주체는 불분명하다. 重刊本은 木版本으로 간행된 初刊本의 마모가 심하여 판목으로써의 효용이 감소하였고, 본집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내용에 대한 개편이나 증보 없이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朴世采는 原集의 내용이 소략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 海州, 江陵, 坡州의 집에 소장되어 있던 저작을 모아 1681년에 續集과 外集을 편찬하였다. 그리고 제자들이 작성한 語錄 및 여러 문헌에서 율곡 관련 기록을 수집하여 別集을 편찬하였다. 그 후 『全書』는 李緯에 의해 대략 1744년 쯤에 편찬된 것으로 보인다. 宋時烈의 遺命에 따라 詩集, 文集, 續集, 外集과 별도로 간행된 聖學輯要, 擊蒙要訣, 年譜, 語錄 등 모든 저작을 하나로 묶어 38권으로 구성하였다. 全書初刊本은 활자로 간행되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판각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841년 海州에서 전서활자본을 그대로 목판에 飜刻하여 全書重刊本을 간행하였다. 全書重刊本은 각종 舊本을 가지고 對校하여 그 校記를 頭註로 표기함으로써 그 가치를 높였다. 全書重刊本은 현재 규장각, 성균관대학교 도서관, 연세대학교 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민족문화추진회에서 간행한 『栗谷全書』는 1841년 간행된 全書重刊本으로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장본이다. 현재 간행된 栗谷文集은 민족문화추진회에서 간행한 『栗谷全書』(문집총간 44

권·45권), 대동문화연구원에서 간행한 『栗谷全書』, 亞細亞文化社에서 간행한 『栗谷全書』, 栗谷思想研究院에서 간행한 『栗谷全書』, 景仁文化社에서 간행한 『栗谷先生文集』, 大洋書籍에서 간행한 『栗谷集』, 良友堂에서 간행한 『栗谷集』, 大提閣에서 간행한 『栗谷詩文集』 등이 있다. 번역본으로는 정신문화연구원에서 간행한 『國譯栗谷全書』, 민족문화추진회에서 간행한 『國譯栗谷集』, 東西文化社에서 간행한 『栗谷全書』, 栗谷先生記念事業會에서 간행한 『國譯栗谷全書精選』 등이 있다.

이에 본고는 율곡의 저서가 총망라되어 있으며 각종 舊本과의 對校를 통해 그 가치가 높다고 사료되어 민족문화추진회에서 간행한 『栗谷全書』와 대동문화연구원에서 간행한 『栗谷全書』를 기본 텍스트로 한다.

연구 범위는 『栗谷全書』 卷二, 「詩」에 실려 있는 316수·「拾遺」에 실려 있는 192수·<瑣言>에 실려 있는 6수·<書>에 실려 있는 1수를 포함하여 모두 515수의 시와 『栗谷全書』에 있는 문학관련 작품으로 한다.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I 章은 序論으로 본고의 研究目的과 研究史, 그리고 研究方法을 밝히고자 한다. 研究目的에서는 율곡의 시와 관련하여 아직 연구가 미흡한 부분을 살펴 본고의 연구 목적을 밝히고자 한다. 研究史 檢討에서는 율곡의 시문학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 현황을 검토하여 누적된 연구 성과를 살펴보고, 기존의 연구에서 미흡한 면모를 살펴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주안점을 밝히고자 한다. 研究方法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본고에서 중점을 두어 고찰하고자 하는 연구 범위와 방법을 밝히고자 한다.

II 章은 詩文學的 背景으로 栗谷의 生涯와 交友關係, 그리고 時代狀況에 대해 조명하고자 한다. 이는 율곡의 문학론과 시세계의 배경이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生涯는 어려서부터 뛰어났던 문학적 재능을 중심으로 그의 시문학과 관련된 생애를 살펴보고자 한다. 交友關係는 율곡이 친구들과 주고받았던 편지를 중심으로 율곡의 삶과 문학에 영향을 미쳤던 인물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時代狀況은 율곡이 살았던 기간 동안의 시대상황을 정치적·사회적·경제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Ⅲ章은 栗谷의 文學論으로 文以形道와 善鳴·不文之文과 天然·儒家的 效用論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文以形道와 善鳴에서는 율곡의 사상과 연계하여 율곡이 인식한 문학의 본질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不文之文에서는 실제 詩作에서 율곡이 강조하였던 作詩 태도 및 주안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天然에서는 詩文에 대해 비평한 율곡의 글을 통해 그가 인식하였던 시문학의 비평기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儒家的 效用論에서는 개인적·사회적·국가적인 측면에서 문학이 갖는 효용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Ⅳ章은 栗谷의 詩世界로써 시의 내용을 기준으로 詠懷詠史詩·說理趣詩·山水遊覽詩·交遊贈答詩로 분류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율곡의 생애와 학문, 성품과 인간관계 등 총체적인 면모가 담겨있는 시세계를 고찰함으로써 문인으로써의 율곡의 면모를 규명하고자 하고자 한다.

Ⅴ章은 栗谷의 風格과 美的 特質로써, 『精言妙選』에서 제시하였던 풍격의 특성을 통해 율곡의 심미의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율곡이 이상적으로 생각하였던 풍격이 그의 시에서 발견되는 양상을 고찰함으로써 율곡 시의 미적 특질을 규명하고자 한다.

Ⅵ章은 문학사적 의의로써 율곡의 시문학이 當代의 문단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後代에 끼친 영향, 그리고 前代의 문학을 아우름으로써 앞뒤 세대의 문학을 잇는 연결고리로써 한문학사에서 갖는 의의를 규명하고자 한다.

Ⅶ章에서는 본고의 내용을 정리하고, 이후의 연구에 대한 제언으로 결론을 삼고자 한다.

## II. 詩文學的 背景

### 1. 生涯

栗谷 李珥(1536~1584)는 丙申年(中宗 31년) 12월 26일 關東 江陵 北坪村에서 태어났다. 本貫은 德水이고, 字는 叔獻, 號는 栗谷이다. 父의 이름은 元秀인데, 벼슬은 좌찬성으로 증직되었고, 어머니 申氏(師任堂)는 宜人으로서 정경부인으로 증직되었다. 신사임당이 임신하였을 때 검은 용이 큰 바다에서 침실 쪽으로 날아와 마루 사이에 서려 있다가 조금 후에 선생이 태어나서 小字를 見龍이라고 하였다. 3세(1538)에 외할머니가 석류를 보여주며 ‘이것이 무엇과 같으나’라고 묻자, 율곡이 古詩를 들어 石榴皮裏碎紅珠<sup>14)</sup>라고 답하였다고 하니 어려서부터 文才가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8세(1543)에 花石亭에 올라가 지었다는 <花石亭> 시는 지금까지도 그 격조를 인정받고 있는 작품이다. 13세(1548)에 進士初試에 합격하였다.

16세(1551) 5월에 어머니 상을 당하였는데, 신사임당의 죽음은 율곡의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3년 상을 치르고 난 뒤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고 불교에 귀의하고자 19세(1554) 3월에 금강산에 입산하게 된다. 입산을 통한 불교와의 만남은 종교적인 영향보다는 학문과 문학을 하는 자세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율곡이 학문적으로 제가의 설을 절충하거나 문학적으로도 다양한 견해를 수용할 수 있는 폭넓은 자세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입산을 통한 불교적 경험이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율곡은 義菴이라고 자호를 짓고 입산 생활을 하면서 석가가 생각을 더하지도 덜하지도 말라고 경계한 것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 깊게 생각하였다. 그리

14) 李珥, 『全書』卷三十三, 「附錄一」, <年譜上>. ‘外祖母李氏 以石榴試先生曰 此物甚似對曰所謂石榴皮裏碎紅珠者也’

하여 석가의 말은 이리저리 달려가는 마음을 단절시키고 정신을 한데 모아 고요하고 虛明한 경지에 이르도록 하는 것 뿐 별다른 것이 없다는 것<sup>15)</sup>을 깨닫고 하산 한 후에는 성리학에 더욱 전념하게 된다. 문학적으로 볼 때 이 당시에 지어진 작품은 스님과의 만남을 통한 교유시나 금강산 유람을 하면서 지은 산수유람시 등이 대부분이다. 이를 통해 율곡이 입산 당시의 삶을 문학에 담아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세(1555)되던 해에 하산하여 봄에 강릉으로 내려가 그 해 自警文을 짓고 학문에 전념하였다. 21세(1556) 봄에 서울 집으로 돌아와 策文 시험을 보았는데 漢城試에 장원급제하였고, 22세(1557) 9월에 부인 노씨를 맞아들이니, 星州牧使 노경린의 딸이다. 23세(1558) 봄에 禮安 陶山으로 李滉(1501~1570) 선생을 찾아가 主一無敵·應接事物의 요령을 묻고, 이후 편지로 居敬·窮理와 中庸·大學의 집주와 聖學十圖 등의 학설을 변론하였다. 26세(1561)에 아버지 상을 당하였다.

栗谷은 29세(1564) 7월 生員 進士시험에 합격하고, 8월에는 명경과에 급제하여 戶曹佐郎을 시작으로 出仕하였다. 이후 三代의 理想政治 실현을 목표로 임금이 도학정치를 펼 수 있도록 끊임없이 권면하였다. 같은 해 監試兩場과 文科發解에 응시하여 모두 장원급제하였고, 生員 및 文科의 覆試·殿試에 다 장원급제하여 모두 아홉 번이나 장원급제하였다. 이후 禮曹佐郎·司諫院正言·吏曹佐郎·司憲府持平·千秋使書狀官·弘文館副校理·校理·淸州牧使·弘文館直提學·右副承旨·黃海道觀察使·同知中樞府事·大司諫·戶曹判書·吏曹判書 등의 관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율곡은 벼슬을 제수 받을 때마다 대부분 사양하거나, 부득이 제수 받은 후에는 얼마 되지 않아 稱病이나 奉養을 이유로 사직을 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기를 반복하였다. 이는 稱病이나 奉養이 실제적인 이유인 경우도 있었지만, 당시의 정치 현실이 그가 이상을 펼치기에는 뜻이 맞지 않았던 것도 중요한 이유로 보여 진다. 그러나 유독 사양하

15) 李珥, 『全書』卷三十三, 「附錄一」, <年譜上>. ‘佛氏戒其徒 勿作增減想者何意也 因究其所以戒之之意 蓋其學無他奇妙 只欲截斷此心走作之路 凝聚精神 以造靜極虛明之域’

지 않고 벼슬을 받은 경우가 있었으니 淸州牧使와 黃海道觀察使였다. 그는 外職은 近侍의 반열과 다르고 방백은 한 지방 백성의 고통을 구할 수 있다고 여겨 사양하지 않고 부임하였다. 이를 통해 율곡이 벼슬 생활을 했던 이유가 백성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도를 세우는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36세(1571) 6월에 淸州牧使에 임명되어서는 민생교화에 힘쓰며 鄉約을 기초하여 백성들에게 실시케 하였고, 39세(1574) 10월 황해도 관찰사가 되어서는 소를 올려 한 道의 폐단을 개혁하도록 청하였다. 疏에서 서쪽 변방에서 수자리는 고통과 進上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것을 말하였다. 그리고 학교를 일으키고 교화를 숭상하고 백성의 고통을 구하고 軍政을 닦고 勸善懲惡하는 내용을 주로 하니 백성들이 기쁘게 여겼다고 한다.

37세(1572)에 우계선생과 理氣·四端七情·人心道心에 대하여 논변하였다. 이로부터 우계와 주고받은 아홉 번에 걸친 牛栗論辯은 그의 성리학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39세(1574) 1월에는 右副承旨에 올라 <萬言封事>를 지어 올려 그때의 나쁜 폐단을 지극히 설명하고 또 재앙을 막아내는 계책과 進德하는 공을 말하니 임금의 이를 받아들였다. 여기에서 민생의 안정을 위한다섯 가지 方策을 제시하였으니, 貢案을 개혁할 것과 절약검소를 숭상할 것·그리고 選上의 제도를 개혁할 것·軍政을 개혁할 것 등이다.

出仕 후 중요한 사건으로는 40세(1575)에 일기 시작한 동서 분당을 들 수 있다. 당시 율곡은 봉당을 조정하려고 노력을 하였으나 오히려 임금과 사류 모두에게 비난을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되어 더 이상 관직에 나아갈 뜻을 잃게 된다. 그리하여 41세(1576) 2월에 율곡으로 돌아와 은퇴를 결심하였다. 이후 제수 받은 여러 관직에 모두 칭병으로 사양하고 저술과 宗族의 화합에 힘을 기울였다. 42세(1577) 1월 석담으로 돌아와서 宗族을 모아 놓고 同居戒辭를 짓고 사당을 세우고 큰형수 곽씨를 청하여 神主를 모시고 와서 제사를 받게 하였다. 12월에 <擊蒙要訣>을 완성하였으니, 초학자들이 향방을 알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여 모두 10장으로 지었는데 仁祖 때에 각 도의 향교에 반포

하였다. 43세(1578)에 은병정사를 지어놓고 <高山九曲歌>를 지으니 遠近의 학자들이 많이 찾아왔다. <高山九曲歌>는 율곡의 문학 작품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는 작품으로써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44세(1579)엔 庶子 경정이 태어났고, 『小學集註』를 완성하였다. 45세(1580) 5월에 <箕子實記>를 편찬하였다. 46세(1581) 4월엔 황해도와 평안 남북도 지방에 흉년이 들자 백성을 구제하기 위한 방책을 강구하였다. 이 해에 <經筵日記>를 완성하였다. 47세(1582) 7월 왕명에 의하여 <人心道心說>을 製進하였고, 역시 왕명에 의거 <金時習傳>을 제진하였다. 王命에 의거 <學校模範> 및 <事目>을 지었다. 10월 遠接使의 명을 받고 극력 사양하였으나 윤택하지 않자 겨울에 皇子 탄생으로 翰林院編修 黃洪憲과 工科給事中 王敬民이 조서를 받들고 왔을 때 遠接使가 되었다. 사신을 맞이하여 두 사신과 시로 화답하였는데 두 사신이 탄복하여 반드시 선생이라 칭호하고 율곡을 예로써 공경하였다고 한다.<sup>16)</sup> 49세(1584) 1월 16일 병환으로 京城 大寺洞 寓舍에서 작고하였다.

이렇듯 栗谷은 효성스런 아들이자 손자로서, 임금을 성군의 길로 이끄는 신하로서, 백성들의 고통을 어루만지는 관리로서의 본분을 충실하게 지켜나갔다. 또한 學問的·文學的으로도 자신의 세계를 깊이 있게 일구어 국내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율곡이 타계한 뒤에 사대부들은 조정에서 조상하고 處士들은 집에서 조상하고 깊은 촌구석 늙은이들까지도 모두 눈물을 흘리며 ‘生民들이 복이 없어서 이 어른이 돌아가셨다’라 하였다고 한다. 太學生과 三醫司와各司胥吏들까지도 모두 와서 울고, 발인 할 때에는 禁軍과 장사꾼까지도 길 좌우에서 횃불을 들고 통곡하였다하니, 그 덕망을 짐작할 수 있다. 별세한 지 40년(1624) 만에 文成이라는 諡號를 받았고, 98년(1682) 만에 文廟에 從祀되었다.

16) 李珥, 『全書』卷三十五, 「行狀」.

## 2. 時代狀況

栗谷이 살았던 16세기는 政治的으로는 사림 세력이 성장하던 시기였다. 明宗代까지 척신 세력과 투쟁을 해오던 사림세력은 宣祖代에 이르러서 정국을 주도하는 위치를 확보한다. 그러나 宣祖代에 東人과 西人으로 분당하고, 그 후 학연을 중심으로 南人·西人·大北·小北 등으로 자체 분열을 하게 된다.

明宗 初에는 외척 세력이 크게 강화되었는데 尹任을 중심으로 한 大尹과 尹元老·尹元衡을 중심으로 한 小尹은 대립적 구도 속에서 서로를 견제해 나가다가 문정왕후를 배후로 한 소윤이 훈구계와 결탁하여 을사사화를 주도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心情的으로 대운을 지지하던 사림과는 크게 피해를 입는다. 그 후 명종 10년을 전후한 시기에 명종은 왕권 강화를 위하여 중전의 외숙인 李櫟을 앞세워 윤원형 세력을 견제하게 된다. 명종 20년(1565) 4월 문정왕후의 죽음을 계기로 훈구세력은 퇴보하고 사림세력이 등장한다. 당시 훈척 세력의 부정부패로 명종 연간에는 많은 민란이 일어났는데, 그 중 가장 규모가 컸던 임격정의 난은 훈구 정권의 몰락과 사림 정권의 등장 배경이 되었다. 그리하여 소윤세력의 몰락 이후 정국은 국왕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가운데 정계는 명종비인 仁順王后의 친족인 沈通源을 중심으로 한 심씨 세력과 사림과의 양 체제로 개편되었다. 당시 사림은 중앙 정계 뿐 아니라 향촌 사회에서 그 기반을 다져 나가면서 학문적 역량을 축적하여 소윤 척신 세력의 몰락 이후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다. 이렇듯 오랜 세월 훈척 세력과의 투쟁을 통해 성장한 사림세력은 선조 초반에 이르러 정국을 주도하는 위치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사림세력 내부에서도 벼슬한 시기와 학문적 성향의 차이로 인해 구세력과 신진 세력으로 나뉘게 되니, 前者의 대표적 인물로는 李浚慶·洪暹·權轍·金鎧·洪曇·李鐸 등이며, 後者の 대표적 인물은 徐敬德·李滉·曹植 등 이다. 이들은 다시 두 갈래로 계

통을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명종 초반에 벼슬길에 나왔다가 다시 후반에 기용된 朴淳·許曄·奇大升·金繼輝 등이고, 또 하나는 구체제의 청산과 혁신 정치의 실현을 열망한 신진사류로서 명종 후반기에 등과하여 선조 초에 막진출한 李珥·鄭澈·李山海·柳成龍 등이다. 이처럼 宣祖 초에는 다양한 정치 세력이 서로를 견제하는 형국을 취하고 있었다. 이들 新舊 세력은 서로 상이한 정치적 입장으로 老黨과 少黨으로 나뉘었다. 그 후 을사 삭훈 논의를 거치면서 권신 체제와 연결되었던 구신계의 정치적 입장은 약화되고 정국 주도권은 신진사류로 넘어오게 되었다. 사림들은 선조가 사림적 정치관을 갖게 하기 위하여 이이·김우옹·유성룡 등 당대 일류 학자들이 경연에 참석하여 정성을 다하고 구폐의 제거를 위한 혁신도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개혁의 방법과 정국 운영 방향에서 사류들 사이에 의견차가 심화되면서 다시 東人과 西人으로 나뉘게 된다. 栗谷은 東·西人을 결속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貢法의 개정·군적의 개편·지방 군현의 합병 등 현실에 중요한 사안들에 힘을 쏟<sup>17)</sup>으로써 민생과 국정의 안정을 꾀하였다.

經濟的인 側面을 살펴보면 영농기술면에 있어서는 移秧法의 보급 등으로 기술의 발전을 이루었고, 場市를 중심으로 한 상품 교역으로 유통 경제의 진전이 있었다. 조선 전기 관영수공업 체제가 16세기 이래 민간 수공업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수공업 생산 측면에서도 일대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는 15세기 이래로 지속되어 온 자연 재해의 피해가 장기화되고 있었고, 기근과 전염병 등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었다. 더욱이 이 시기에 사회적으로 크게 물의를 일으켰던 것은 貢納制의 폐해였다. 공납의 부과와 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갖 부정과 부패는 백성들이 流亡·離散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그로 인해 과생된 隣徵·族徵의 관행은 양반세가들의 토지 겸병의 증대·放軍收布와 같은 군역의 문란 등과 함께 農民의 沒落·逃散을 더욱 촉진시켜

17) 李珥, 『全書』卷七, 「疏筭五」, <陳時弊疏>.

갔다. 당시 율곡은 貢納制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하여 私大同<sup>18)</sup>을 실시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sup>19)</sup>

社會的 側面으로 볼 때 16세기는 사족지배체제가 전형적으로 나타난 시기로서 사림파에 의한 향촌지배가 전개되어 사족지배체제가 정착되는 때였다. 이들은 선초 중앙 정부가 지방통제정책으로 수령권을 강화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써 사림을 주축으로 하는 향촌 자치 조직을 형성하였다. 留鄉所·鄉約·鄉規·洞約·洞契 등의 자치조직을 통해 향촌사회를 기반으로 그들의 권력을 강화해 나갔다. 이는 사족 세력의 부단한 자기 노력과 그에 따른 중앙정부의 在地土族과의 타협, 그리고 성리학 이념의 정착과 사족 경제의 상승 등을 기반으로 체제적 정착을 보게 된다. 그리하여 사족들은 향촌기구들을 통하여 중앙 정부에 의해 추진되는 수령 중심의 행정조직체제와 일정하게 대립·갈등하면서 그들을 견제하는 기능과 각 지방의 教授·訓導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율곡도 청주와 해주, 그리고 파주<sup>20)</sup>에서 향약을 만들었다.

思想的으로는 禮學과 性理學이 크게 발달하였다. 16세기에 성리학적 소양을 갖춘 사림이 등장하면서 明宗 代에 이르러서는 <朱子家禮>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본격화된다. 이 시기 사림들은 제례서의 저술을 통해 <주자가례>를 학문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16세기 중반 제례서로는 宋麒壽의 <行祀儀節>, 李賢輔의 <祭禮>, 李彦迪의 <奉先雜儀> 등이 있다. 徐敬德·金麟厚·李滉·曹植 등은 <주자가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이며, 율곡의 <祭儀鈔>도 이러한 배경에서 저작된 禮書이다. <주자가례>에 대한 학문적 관심의 확대에 인하여 16세기 후반에는 <주자가례>에 대한

---

18) 李珥, 『全書』 卷十五, 「雜著二」, <東湖問答>. 군현에 부과된 京納物(중앙정부와 왕실에 바치는 공물과 진상물들)을 군현 내의 모든 田土에서 균등하게 징수한 쌀을 가지고 시장에서 구입하여 납부함으로써 대동법의 선구를 이루는 관행임.

19) 이는 반대 세력들의 강한 저지로 끝내 실시하지 못하게 된다.

20) 청주는 율곡 자신이 수령으로 있던 곳이고, 해주는 외가가 있는 곳이며, 파주는 선산이 있는 곳이었다.

주석 작업이 이루어졌다. 율곡 역시 四書三經과 小學 등 성리학의 기본경서에 대한 口訣과 언해작업에 참여한다. 이렇듯 禮學에 대한 연구는 性理學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그 배경으로 한다. 明宗·宣祖 代에는 유학자들이 각기 자신의 터전을 기반으로 일가를 이루어 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성리학적 질서와 가치관이 보편화되기에 이른다. 이 시기 이름난 유학자로는 晦齋 李彦迪·花潭 徐敬德·退溪 李滉·南冥 曹植·高峰 奇大升·龜峰 宋翼弼·栗谷 李珣·牛溪 成渾 등을 들 수 있다. 이언적과 서경덕에 이르러서 성리학이 이론적으로 정리되기 시작한다. 이들은 각기 主理·主氣로 일컬어지는 성리학 양대 조류의 선구자이다. 그리고 이언적과 서경덕의 성리학적 성과를 바탕으로 이황과 율곡은 조선 성리학의 독자적 체계를 세우게 된다.

이상에서 栗谷은 당시 政治·經濟·社會·思想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시 혼란에 빠진 백성을 구제하려는 시대적 사명과 그에 대한 실천임을 알 수 있었다.

### 3. 交友關係

栗谷은 어려서 어머니 신사임당에게 가정교육을 받은 것 외에는 뚜렷한 師承關係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책을 통해서 交友關係의 일면을 고찰할 수 있다. 그가 교유했던 주요 인물로는 退溪 李滉·牛溪 成渾·龜峯 宋翼弼·松江 鄭澈·思菴 朴淳·淸江 李濟臣·高峰 奇大升 등을 들 수 있다.

李滉(1501~1570)은 字는 景浩, 號는 退溪·陶翁·淸涼山人으로 조선조 중기를 대표하는 성리학자이자 文人이다. 퇴계는 율곡의 벗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학문적인 면에서 율곡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다. 그런 의미에서 퇴계와의 교류에 대해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23세(1558) 때 율곡은 퇴계 이황을 禮安에서 謁見한다. 그는 퇴계에게 主一無敵·應接事物의 요령을 묻

고, 이후 편지로 居敬·窮理와 中庸·大學의 집주와 聖學十圖 등의 학설을 변론한다. 그 중 율곡이 『성학십도』에서 「仁說道」가 「心學道」앞에 있어야 한다는 의문을 제기하자 퇴계는 율곡의 변론을 받아들인다. 율곡은 퇴계와 학문적 견해를 달리하고는 있었으나, 젊은 시절 서신을 통한 질의문답으로 성리학에 대한 이해를 넓혔고, 퇴계 또한 35세라는 나이 차이를 뛰어넘어 율곡을 인정하고 그의 변론을 수용·권면하였다. 학문적인 측면 뿐 아니라 인품에 대해서도 율곡은 퇴계를 깊이 존경하였다. 율곡은 자꾸 물러나기만 하는 퇴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경세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으니, 이는 서화에 계시기만해도 젊은 사람에게 큰 힘이 될 것<sup>21)</sup>이라는 부탁에서 알 수 있다. 그밖에 퇴계 선생의 부음을 듣고 멀리서 곡하였다거나, 임금이 행장이 없다는 이유로 퇴계 선생의 諡號를 허락하지 않았을 때 퇴계의 시호 내려줄 것을 간곡히 청하고, 퇴계를 文廟에 從祀할 것을 건의하는 등<sup>22)</sup>의 일화에서 퇴계에 대한 율곡의 존경심<sup>23)</sup>을 엿볼 수 있다.

다음은 그가 禮安으로 李滉을 찾아뵈었던 자리에서 지은 시이다.

溪分洙泗派	학문의 갈래는 공자로부터,
峰秀武夷山	빼어난 무이산의 주자까지요.
活計經千卷	생활의 계획은 경서 천 권 뿐,
行藏屋數間	들고 나는 데는 두어 간의 집.
襟懷開霽月	가슴에 품은 뜻 밝은 달 같고,
談笑止狂瀾	담소는 큰 파도 그치게 할 듯.
小子求聞道	소자 도 듣기를 청하고자 하니,

21) 李珥, 『全書』卷九, 「書」, <上退溪先生 丁卯>. ‘假使明公 閉戶養疾 不窺闕門 若在京師 則士氣自倍 望治有期’

22) 李珥, 『全書』卷三十五, 「行狀」.

23) 李珥, 『全書』卷三十四, 「附錄二」, <年譜下>. 율곡은 經世의인 측면에서는 靜菴을 존경하였고 학문적 측면으로는 退溪의 道學을 존경하여 정암의 경세와 퇴계의 도학을 절충 집대성 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시는 퇴계가 병으로 인해 禮安縣의 산골에 집을 짓고 살 때 율곡이 星山으로부터 臨瀛으로 가는 길에 예안에 들러 퇴계를 뵈고 지은 것이다. 泗水는 孔子가 수학하던 곳이고, 武夷山은 朱子가 수학하던 곳이다. 때문에 首聯은 사수와 무이산에 빗대어 퇴계의 학문적 맥이 공자와 주자에 있음을 말하였다. 頷聯에서는 퇴계의 학자다운 검소함과 청렴결백한 생활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였다. 頸聯에서는 퇴계와의 만남이 율곡으로 하여금 가슴 시원한 학문적 충격을 주었음을 시사하였다. 尾聯에서는 율곡이 퇴계를 찾아온 궁극적인 목적이 도를 듣고자 하는 것이라는 걸 언급하였다. 퇴계 역시 자신보다 35세나 연하인 율곡을 보고 그가 대학자로서의 그릇임을 한눈에 알아보고 학문에 깊이 정진할 것을 권하고 答詩를 지어주며 친하게 지낼 것을 당부한다. 이 시를 받고 퇴계는 다음과 같이 화답한다.

病我牢關不見春  
公來披豁醒心神  
始知名下無虛士  
堪愧年前闕敬身  
嘉穀莫容稊熟美  
游塵不許鏡磨新  
過情詩語須刪去  
努力功夫各日新<sup>25)</sup>

병으로 답답하게 봄도 구경 못했는데,  
그대 와서 내 정신 확 깨어나게 하네.  
명성만 높은 虛士 없음 이제야 알겠으니,  
지난 날 敬 공부 부족함이 부끄러울 뿐.  
좋은 곡식은 무성한 돌피 용납하지 않고,  
먼지는 거울 닦이는 것 허락치 않는다네.  
情 지나친 시어는 모름지기 깎아 버리고,  
학문에 힘써서 나날이 새로워지게나.

首聯에서 퇴계는 율곡의 방문이 퇴계의 몸과 마음을 모두 새롭게 각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을 말하였다. 頷聯에서는 율곡이 명성만큼이나 실질적

24) 李珥, 『全書』卷十四, 「雜著」, <溪分峰秀>.

25) 李珥, 『全書』卷十四, 「雜著」.

인 재능을 갖추고 있는 선비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있다. 젊은 율곡을 보며 지난날 자신의 敬을 닦는 공부가 부족했음을 반성하고 있다. 敎學相長하는 자세 속에서 너그러우면서도 겸손한 퇴계의 면모가 잘 드러난다. 頸聯에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수양할 것을 당부하였다. 尾聯에서는 詞章보다 道學에 꾸준히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율곡이 젊은 시절 학문보다는 문장으로 더 명성이 난 것에 대한 학자적인 염려이다. 젊은 선비의 방문을 자신에 대한 반성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넉넉한 인품과 재능 있는 후학을 알아보고 학문과 인격의 정진을 당부하는 선배로서의 따뜻한 면모가 잘 드러나 있는 시이다.

成渾(1535~1598)은 자는 浩源, 호는 牛溪, 自號는 默庵이고, 詩號는 文簡公이며 本貫은 昌寧이다. 중종 10년(1535) 6월 25일 서울에서 태어나서 선조 31년(1598) 6월 6일 경기도 파주에서 64세로 卒하였다. 聽松 成守琛의 아들이다. 성혼은 西人의 巨儒로서 율곡과는 오랜 기간 동안 가장 절친했던 벗이다. 율곡이 일생을 淸要職을 두루 거치며 經世家로서 學者로서 명망이 높았던 반면 성혼은 일찍이 科業을 포기<sup>26)</sup>하고 전형적인 선비로서의 삶을 살았다. 삶의 모습은 서로 달랐지만 율곡은 19세에 1년 위인 성혼과 道義의 사귀를 맺어 개인적·정치적·사상적으로 일평생 그 우정이 변하지 아니하였다. 둘의 친분은 율곡의 편지 중에 성혼과 주고받은 횃수가 가장 많다는 것 외에도 서로에 대한 허물없는 충고와 논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37세에 성혼과 주고 받은 ‘四端七情·人心道心·理氣’<sup>27)</sup>에 대한 논변은 그의 성리학에 있어서 가

26) 성혼의 父親인 성수침은 조광조의 문인으로 기묘사화 때 스승인 조광조가 처형당하자 벼슬길을 단념하고 경기도 파주에 은거하여 살았다. 이와 같은 집안의 전통과 개인적인 病으로 인하여 성혼 역시 17세 때 生員·進士 初試에 모두 합격하였으나 覆試에는 나아가지 아니하고 과거를 단념하고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나중에 율곡의 추천으로 閑職에 제수되었으나 자주 사직하였다.

27) 성혼은 퇴계의 理氣互發說을 따른다. 율곡은 이 서신을 통해 朱子나 退溪의 理氣二元論과는 다른 理氣一元論의二元論을 주장한다. 그는 理를 形而上·無形無爲로 보고, 氣를 形而下·有形有爲라 하여 이와 기를 一體兩面的인 것으로 보았다. 理는 一般的인 것, 內在인 것으로 이것을 외부의 현실적인 것으로 나타나게 하는 데에는 氣의 作用을 필요로 한다.

장 條理있고 體系的인 내용으로 손꼽힌다. 退溪와 高峰의 논변이 끝난 6년 후 성혼은 退高論辯을 기초로 자신의 생각을 담아 율곡에게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율곡의 답장을 시작으로 일 년 동안 아홉 번에 걸친 牛栗論辯이 이루어진다. 장문의 편지로 율곡은 자신의 ‘人心道心·四端七情’에 대한 이론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였고, 처음엔 퇴계의 互發說을 따르던 성혼도 마침내 점차 율곡의 견해에 동의하게 된다. 둘 사이의 교류는 학문적인 측면에서 그치지 않는다. 성혼은 율곡에 대해 문장이 ‘한나라를 감동시켰다’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율곡의 출처에 대해서는 과거를 중시한다거나 나아갈 때가 아니라<sup>28)</sup>는 등 출처에 대한 충고도 잊지 않았다. 율곡 역시 성혼을 憲官<sup>29)</sup>에 적극 추천하였다. 이렇듯 둘은 학문적으로 서로의 견해를 논변하기도 하고 출처나 처세에 대해 충고를 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서로를 신뢰하면서 우정을 쌓아 나갔다.

宋翼弼(1534~1599)의 자는 雲長, 호는 龜峯, 諡號는 文敬이며, 본관은 礪山, 宋祀連의 아들이다. 그는 庶孽이라는 신분적 제약 속에서도 학문과 문학에 일가를 이루어 士林의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다. 間世人豪요 絶對儒匠으로 학문적으로는 高明博洽하며 經明學邃하여 栗谷·牛溪 등 畿湖學派의 宗匠의 하나로서 그 畏友<sup>30)</sup>가 되었다. 일찍이 율곡이 科試場에서 <天道策>을 지었는데, 科擧를 보러 온 사람이 와서 문자, ‘龜峰이 高明하고 博洽하니 마땅히 가서 그에게 묻는 것이 좋을 것이다’<sup>31)</sup>라고 하였을 정도로 그 학문적 깊이를 인정받고 있었다. 율곡은 송익필은 물론이거니와 그 동생인 송한필과도 서로의 안부를 물을 정도로 친분을 가지고 있었다. 율곡의 생질인 聃을 비롯한 조카들도 송익필 밑에서 수학하였다. 그리하여 제사를 지내는데 庶母의 위치

28) 成渾, 『牛溪集』, 「간독」, <與李叔獻>.

29) 風憲에 관계되는 일을 맡은 벼슬아치, 곧 金吾臺·御史臺·司憲府 등의 관원을 이른다.

30) 이종찬 외, 『조선시대의 한시작가론』, (이회, 1996). p.369.

31) 宋翼弼, 『龜峰集』 卷十, 宋時烈, <墓碣文>. ‘李先生嘗入場屋 對天道策 謂學子來問者曰 宋雲長高明博洽 宜就而問之’

에 대한 예학 논쟁이나 율곡이 지은 『擊蒙要訣』에 대한 논쟁 등 학문적인 교류를 하였고, 그 중 『小學』에 관한 변론은 율곡이 송익필의 말을 따르기도 한다. 또한 송익필에게는 건강에 대한 염려라거나 庶母에 대한 안부 등 소소한 일까지도 전하는 다정함도 보인다. 율곡은 주변에 친구가 없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도 구봉이 몇 안 되는 벗임을 누누이 강조할 정도로 둘 사이는 진솔한 우정을 나누는 관계였다.

다음 시는 이미 별세한 율곡을 그리워하며 구봉이 지은 시이다.

吾友謂吾曰	친구가 나에게 말하기를,
古人吾可期	“옛 사람을 나도 기약할 수 있네.
有爲卽其人	하는 일이 있으면 바로 그 사람이니,
古今無異時	예나 지금이나 다른 때가 없다네.
出言戒無信	말할 때는 믿음이 없을까 경계하고,
行身惟不欺	행동할 때는 속이지 않도록 하여.
成己又成物	자기를 이루고 또 남도 완성시키면,
吾道其在茲	우리 도가 그 속에 있다네”라 했는데.
吾友忽先逝	내 친구 갑자기 먼저 떠났으니,
大志中道虧	큰 뜻이 도중에 무너졌도다.
好學今也無	학문 좋아하는 이가 이젠 없으니,
傷心非爲私	이 슬픔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네.
相觀更無質	마주 보고 다시는 물어볼 데 없으니,
隻影吾亦衰 <sup>32)</sup>	외로운 그림자뿐인 나도 이젠 늙었네.

첫째 구부터 여덟째 구까지는 율곡이 했던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학문의 목표를 옛 성인에 두고 성인을 본받을 수 있다는 율곡의 포부를 볼 수 있다. 아홉째 구부터 마지막 구까지는 율곡에 대한 애도이다. 율곡의

32) 조남권 이상미 공역, 『송구봉시선집』, (박이정, 2003), <有懷二首> 中 二首.

죽음으로 성인의 도를 이룰 큰 뜻이 무너졌다거나 학문을 좋아하는 이가 이제 없다거나 물어볼 데가 없다거나 하여 율곡의 빈자리를 슬퍼하였다. 율곡과 구봉의 道伴으로서의 면모를 알 수 있는 시이다.

鄭澈(1536~1593)은 자는 季涵, 호는 松江이다. 高峯 奇大升·河西 金麟厚의 문인으로, 漢詩·時調·歌辭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며 한국문학사상 詩歌文學의 一人者로 손꼽힌다. 선조 13년 강원도 관찰사에 이어 전라도·함경도의 관찰사를 지냈고, 선조 22년 우의정을 지냈으며 3년 후 임진왜란 때에는 왕을 의주까지 호종하였다. 栗谷과 鄭澈은 같은 해에 태어난 동갑내기로서, 21세에 서로 만나 교우관계를 맺어<sup>33)</sup> 평생의 지기가 된다. 鄭澈과는 당시 사람들의 큰 관심사였던 예학과 관련된 논의가 많은데, 이는 당시 鄭澈이 父親 喪을 당하여 상주가 되었기 때문인 듯하다.<sup>34)</sup> 栗谷과 鄭澈은 분당의 와중에 서로의 입장이 다르기는 하였지만 입장 차이에 관계없이 20년 다룬 친구의 의를 저버리지 않는다.

다음은 伯牙絕絃의 우정을 엿볼 수 있는 송강의 시이다.

先我而來去亦先	나보다 먼저 왔다 또 먼저 가니,
死生何不少周旋	죽고 사는 것 어찌 중재 적었겠나.
欲從眞歇臺邊月	진혈대 주변에 뜬 달 따르려 하니,
會作毗盧頂上仙	비로봉 정상에서 신선되어 만나세.
千劫縱灰難得子	천겁 재 되어도 그대 얻긴 어려우니,
九原如作更逢賢	구원산 일으키면 그대 다시 만나리.
無人解聽峨洋趣	아양곡 듣고서도 알아줄 이 없으니,
却是鐘期一斷絃 <sup>35)</sup>	도리어 백아는 거문고 줄 끊었었지.

33) 鄭澈, 『松江集』, 「年譜」. ‘與栗谷李先生 相遇定交焉’

34) 鄭澈과의 편지 속에서 율곡은 節祠나 禪祭 등에 대해 논란하기도 하고, 喪祭를 지키다가 병이 생긴 鄭澈을 위로하기도 한다. 또한 권도를 따르라는 충고도 잊지 않으며, 상복을 입고 병이 생겼으면서도 권도를 따르지 않는 鄭澈에 대해 근심을 하는 대목도 나온다.

首聯에서 송강은 율곡이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삶과 죽음에 대해 돌이켜본다. 율곡의 죽음은 송강에게는 절친한 벗이자 정치적 동지를 잃은 이중적 슬픔이었으며, 동시에 동갑내기라는 점에서 이제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며 세상을 떠나는 때가 되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때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송강은 그로부터 채 10년이 되지 않아 자신 역시 下世한다. 頷聯에서 송강은 죽어서 비로봉의 신선이 되어 다시 만나자며 율곡의 명복을 빈다. 頸聯에서는 율곡이 자신에게 있어 얼마나 소중한 벗이었나 하는 것을 천겁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동안 재가 되도록 타버려도 다시는 얻기 어렵다는 애타는 표현으로 나타내었다. 그리고 尾聯에서는 종자기가 죽자 거문고 줄을 끊는 백아의 심정을 빌어 벗을 잃은 절망을 표현하였다. 시종일관 율곡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절실한가가 구구절절 나타나 있는 시이다.

朴淳(1523~1589)은 자는 和叔, 호는 思菴, 서경덕의 문인이며, 1553년 친시문과에 장원급제하여 1572년에 右議政, 1579년에 領議政이 되어 전후 14년간 이나 政丞의 자리에 있었다. 박순은 율곡과는 나이 차이가 나지만 당시 淸名과 重望이 있었던 인물로, 동서 분당의 와중에 서로를 인정하고 힘이 되어주었던 관계였다. 박순과는 澹一虛明·太極陰陽 등에 대해 논변하였으며, 이는 서로 주고받은 편지에 실려 있다.

李濟臣의 자는 夢應, 호는 淸江이다. 1564년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正言·持平등을 거쳐 함경북도 병마절도사를 지냈던 인물이다. 1583년 율곡이 병조판서로 있을 때 오랑캐들이 쳐들어왔는데 당시 이제신은 오랑캐 토벌에 나섰다. 율곡은 중앙에서 청강을 믿어주며 중앙의 상황을 청강에게 전달해주는 등 이제신의 오랑캐 토벌에 힘을 보태준다. 청강과는 학문적인 교류나 개인적인 교류보다는 당시 병조판서와 장수라는 업무적인 교류에 더 비중이 크

35) 鄭澈, 『松江集』, <挽栗谷三首> 中 三首.

다. 그러나 서로 주고받은 시를 통해서 단순히 업무와 관련된 만남 이상으로 염려해주는 관계였음을 알 수 있다.

奇大升(1527~1572)의 호는 高峰이다. 기대승과는 십 여 년의 나이 차이가 있지만 학문적인 교류를 하는 관계였다. 고봉과 주고받은 편지를 보면 대학의 止於至善·能得·顔子の 正心 등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尹根壽와 李景魯는 율곡이 道友<sup>36)</sup>로 인정했던 인물이다. 그 중 윤근수와는 서로 만나는 기회는 드물지만 만나면 속마음을 털어 놓고 세속적이지 않은 말로 서로 권면하여 만나고난 뒤에는 반드시 소독이 있다고 허여하는 관계였다. 또한 이경로 역시 죽마의 교분이 있는 것도 아니며 조석으로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 아버지를 배알하거나 통가의 우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심지와 도로 의합하였다고 하여 도우로서의 관계임을 밝히고 있다.

그 밖에 孫谷 李達, 土亭 李之函, 簡易 崔崧, 時中 崔雲遇 등은 각종 서신과 시를 통하여 그 교분을 확인할 수 있는 인물들이다.

이상에서 율곡의 교우관계를 살펴보았다. 율곡은 뚜렷한 師承關係도 없고 外的인 交遊보다는 홀로 있는 것을 좋아하는 성품이었다. 그러나 道友의 관계를 맺어 학문적인 교류를 주로 하였으며, 경세가로서 나라와 백성을 근심하는 동지로서의 교우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

36) 李珥, 『全書』, 「拾遺」卷三, <送尹子固根壽朝天序>. ‘士之所謂友者有三 相歡于翰墨之場者 是文友也 相引于章綬之間者 是宦友也 相講于性理之學者 是道友也’

### Ⅲ. 栗谷의 文學論

16세기는 사상적으로 성리학이 지배하던 시대였다. 그리고 한문학의 주체 역시 성리학을 사상적 기반으로 하는 士林들로서, 사림파의 문학의식은 그들의 이념인 성리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성리학을 기본 철학으로 하는 사림들의 성리학적 문학 의식은 당시를 대표하는 문학론으로 직결된다. 당시 정치적·사상적으로 士林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던 율곡의 문학론은 16세기 사림파의 문학의식을 대변<sup>37)</sup>하며 16세기 詞壇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sup>38)</sup> 더욱이 율곡은 當時 士林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다는 것 외에 문학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체계화된 문학론을 전개함으로써 그 영향력을 배가시키고 있다.<sup>39)</sup> 그래서 율곡의 문학론에 대한 고찰은 성리 철학을 기본으로 하는 사림파 문학관에 대한 규명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Ⅲ장에서는 栗谷의 文學論을 文以形道와 善鳴·不文之文과 天然·儒家的 效用論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1. 文以形道와 善鳴

栗谷은 전형적인 성리학자로서 道와 文의 관계를 道本文末로 보았다. 그는 韓愈와 周敦頤, 그리고 朱熹에 이르는 諸家の 견해를 수용하는 입장에서 文

37) 林熒澤, 『韓國文學史의 視角』, (創作과批評社, 1995). p.32.

38) 이민홍은 『조선조 시가의 이념과 미의식』에서 율곡의 『정언묘선』이 후학들에게 필사되어 널리 유포되었고, 당시 詞壇에 品格論을 전개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율곡의 영향력이 막강했음을 분석하고 있다.

39) 임형택은 「16세기 사림파의 문학의식」에서 걸출한 성리학자인 율곡의 문학론은 사림파의 문학의식을 대변한다고 보아 당시 사림파의 문학에 대한 이론 및 미의식을 이이기념의 문학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이민홍은 「조선중기 詩歌와 性情미학」에서 율곡의 『정언묘선』이 16세기 사단에 막강한 영향을 끼친 시선집이라 하여 사림파의 풍격론을 퇴계와 율곡의 문학론에서 고찰하고 있다.

以貫道와 文以載道를 구별 없이 사용하였다.

道가 드러난 것을 文이라고 하니, 文이란 것은 道를 꿰뚫는 도구이다.<sup>40)</sup>

당태종이 홍문관을 세워 선비들을 모으니 문풍이 정관 시대보다 더 성한 적이 없었다. (중략) 비록 그러하지만 교화가 밝지 못하여 도를 실은 글이 없었다.<sup>41)</sup>

道가 드러난 것이 文이니 道는 文의 근본이요 文은 道의 말단이다.<sup>42)</sup>

이상의 예문에서 율곡은 관도와 재도를 크게 구분하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道와 文의 관계를 道本文末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文從道中出’이라고 한 朱熹의 견해와 같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율곡은 한유와 고문가의 이론인 文以貫道·송대 이학가 주돈이의 주장인 文以載道, 그리고 송 도학가 朱熹의 道本文末의 견해를 모두 종합하여 자신만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다음 예문은 문도 관계에 대한 율곡의 견해가 잘 드러나 있는 문장이다.

道는 오묘해서 형체가 없으니, 文으로써 道를 형상화시킨다.<sup>43)</sup>

文以形道는 文이란 道의 내적인 온축으로 인한 자연적인 외적 流出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는 문과 도는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요, 문은 도라고 하는 긴 강물에서부터 유출된 지맥으로써 원류와 지류·근본과 가

40) 李珥, 『全書』, 「拾遺」卷四, <文武策>. ‘道之顯者 謂之文 文者 貫道之器也’

41) 李珥, 『全書』, 「拾遺」卷四, <文武策>. ‘太宗建館聚士 而文風莫盛於貞觀 (中略) 雖然教化不明 而無載道之文’

42) 李珥, 『全書』, 「拾遺」卷六, <文策>. ‘道之顯者謂之文 道者文之本也 文者道之末也’

43) 李珥, 『全書』卷十九, 「聖學輯要」, <序>. ‘道妙無形 文以形道’

지라는 구별이 있을 뿐이라고 여겼던 朱熹의 견해와 일치한다. 즉, 율곡이 도학자로서 朱熹의 문학관을 추승하는 입장에서 道本文末의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文에 담아내야 할 道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文이란 道가 드러난 것이다. 文이라고 하면서 道에서 벗어난 것은 文이 아니다. 그러므로 성현의 文은 한결같이 道에서 나왔으니, 六經에 실려 있는 글에서 환히 볼 수 있다.<sup>44)</sup>

사서와 육경에 이미 분명하면서도 또 갖추어져 있으니 글로써 도를 구하면 이치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다.<sup>45)</sup>

율곡이 말하는 도란 구체적으로 四書와 六經에 실려 있는 성현의 가르침이다. 여기에서 율곡이 추구하는 철학적 이상과 문학적 이상은 성현의 가르침으로 귀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율곡의 主氣論의 哲學이 문학적 관점에 적용된 중요한 예이다.

사람이 소리를 내는 것은 氣의 작용이다. 소리가 나오는 것도 한 가지만이 아니다. 쓸모없는 소리가 있고 쓸모 있는 소리가 있다. 재채기하고 코골고 침 뱉는 소리 따위는 사람이 내는 소리 중에 쓸모없는 소리요, 꾸짖고 말하고 웃는 소리 따위는 사람이 내는 소리 중에 쓸모 있는 소리이다. 쓸모 있는 소리 중에는 또 美聲과 惡聲이 있다.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좋아하면 美聲이 되고 싫어하면 惡聲이 된다. 美聲 중에는 또 實聲과 虛聲이 있다. 입에서는 나왔으나 글로 표현되지 않은 것은 虛聲이 되고, 입에서 나와 글로 표현된 것은 實聲이 된다. 實聲 중에는 또 바른 소리와 사악한 소리가 있고, 혹은 바른 듯하

44) 李珥, 『全書』, 「拾遺」卷六, <文策>, ‘文者道之著 文而外道 非文也 故聖賢之文 一出於道 其載在六經者 粲然可見’

45) 李珥, 『全書』卷十九, 「聖學輯要」, <序>. ‘四書六經 旣明且備 因文求道 理無不現’

면서도 사악한 소리와 혹은 사악한 듯하면서도 바른 소리가 있다. 사람이 소리를 내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좋아하여서 文章으로 드러나고 文章으로 드러났는데 바른 것에 합치되는 것을 善鳴이라고 한다. 善鳴의 경지에 이르기란 실로 어려운 일이다.<sup>46)</sup>

사람에게서 나오는 소리를 氣의 작용이라고 전제하고, 그 과정을 有用 - 美聲 - 實聲 - 正한 것 - 善鳴의 단계를 거쳐 淸濁粹駁을 내포하고 있는 모든 소리 중에 善鳴<sup>47)</sup>이라는 가장 純善한 최고의 한 頂點을 導出하였다. 즉, 선명은 인간이 내는 모든 소리 중에서 가장 正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善鳴은 성현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文이어야 가능하다. 문에서 최고의 精髓인 善鳴은 氣의 작용으로 발현된 소리 중 최고의 경지이다. 역으로 본다면 氣의 작용으로 인해 발현된 소리 중엔 善鳴이 아닌 邪한 것 - 實聲이 아닌 虛聲 - 美聲이 아닌 惡聲 - 有用한 소리가 아닌 無用한 소리도 있다. 이것들은 소리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濁하고 不善한 소리이다. 율곡이 氣包理의 논리로 宇宙와 人性의 구조까지 밝히고 있는 까닭은 그로 인해 善惡의 근원을 찾아내고, 선악이 공존하는 氣局의 세계를 극복 초월하여 오직 善만이 존재하는 理通의 차원, 즉 본연의 이성으로 돌아가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철학적으로 규명<sup>48)</sup>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율곡 철학의 理想은 곧 文學적 理想과도 맥이 통한다.

이상에서 文以形道와 善鳴이라는 율곡의 문학 인식은 그의 철학과의 연결

46) 李珥, 『全書』, 「拾遺」卷三, <贈崔崑之序>. ‘聲於人者氣也 聲之出亦非一也 有無用之聲 有有用之聲 噴嚏鼻唾之類 人聲之無用者也 咄嗟言笑之類 人聲之有用者也 有用之中亦有美聲惡聲 人聞其聲 而好之則爲美聲 惡之則爲惡聲 美聲之中亦有實聲虛聲 出於口而不著於文 則爲虛聲 出於口而著於文 則爲實聲 實聲之中 亦有正者邪者 或似正而邪者 或似邪而正者 人之發其聲而好於人 好於人而著於文 著於文而合於正者 爲之善鳴 善鳴之功 厥惟艱哉’

47) 善鳴이라는 표현은 韓愈의 <送孟東野序>에서 나온다. 그는 사람의 말 중에 잘 우는 것을 선명이라 하고 요순부터 주나라에 이르기까지 잘 우는 인물에 대해 열거하였다.

48) 李珥, 『全書』卷一, <解題>.

고리에 의한 산물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문에 담아야 할 최고의 가치는 六經에 실려 있는 성현의 가르침이다. 이를 통해 율곡이 추구하는 철학적 이상과 문학적 이상이 성현의 가르침으로 집약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학적 본질론은 朱熹의 문학적 견해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不文之文과 天然

율곡은 문장을 짓는데 절제된 수식을 벗어나 지나치게 기교를 부리어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경계하였다. 율곡이 제시한 창작의 주안점은 不文之文<sup>49)</sup>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다음은 율곡이 문장을 창작하는데 不文之文을 최고로 여기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는 예문이다.

대저 옛사람들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사람들과 다르니, 옛사람들의 글은 글을 짓는 데에 뜻을 둔 것이 아니다. 저 구름이 흘러가고 비가 내리고 해가 비추고 달이 비치며 산이 높고 내가 흐르며 풀과 나무가 아름다운 것은 하늘과 땅의 문장이니, 하늘과 땅은 스스로 그 문체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온화하고 순함이 마음속에 쌓여서 아름다움이 밖으로 드러나며 동작에는 위엄이 있고 말은 경서가 되는 것은 성현의 문장이니, 성현은 스스로 그 문장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옛날 사람은 도를 문장으로 삼았으니, 도를 문장으로 삼았으므로 문장을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문장이 되었다. 아! 누가 문장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는데 절로 이루어진 문장이 바로 천하의 지극한 문장임을 알겠는가. 그러한 문장이 논어·맹자가 되고 육경이 되고 시경 삼백편

49) 不文之文의 不文은 『淮南子』의 至文不文으로 이는 文以載道의 입장이다. 그리고 不文之文의 개념은 서거정이 이미 언급하였다. 서거정, 『東文選』, 「東文選 序」, ‘文者貫道之器 六經之文非有意於文 而自然配乎道 後世之文 先有意於文 而或未純乎道 今之學者誠能心於道 不文於文 本乎經 不規規於諸子 崇雅黜浮 高明正大 則其所以羽翼聖經者 必有其道矣’

이 되었다. 혹은 기이하고 혹은 간결하며 혹은 권면하고 혹은 경계하며 생각의 정수와 성물의 화합이 모두 자연에서 나왔을 뿐이다. 어찌 후세 사람들이 억지로 뜻을 지어내고 썩은 나무와 얼음을 아로새기고 꾸며서 만든 것과 같겠는가?<sup>50)</sup>

天地之文과 聖賢之文은 최고의 문장이며 이는 꾸미려고 하지 않았으나 절로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다고 하였다. 율곡이 최고로 삼는 문장은 天地之文과 聖賢之文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天地之文과 聖賢之文의 공통점은 인위적인 조작이 없다는 것과 자연스러운 최고의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내적 수양이 빛을 발하여 겉으로 드러난 문장은 천지의 조화로 빛어진 自然의 문채와 그 격이 같다는 의미가 된다. 여기에서 율곡이 창작의 典範으로 삼는 것이 天地自然의 文彩임을 알 수 있다. 이는 道의 발현 없이 문장의 章句만을 꾸며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천지자연의 문채를 본받은 성현의 문장은 『論語』·『孟子』·『詩經』을 포함한 六經에 실려 있는 내용으로, 이것이 바로 不文之文이며 不文之文이 곧 至文이다.

그렇다면 성현의 문장과 반대되어 배척해야 할 문장은 어떤 문장인가.

글은 간략하되 이치는 타당하고 말은 알아듣기 쉬우나 뜻은 심원하여 마침내 도덕과 인의를 운택하게 하여 빛이 나는 것, 이것이 곧 성현의 문장이다. 후세의 학자들은 실리를 구하지 않고 헛되이 기교만을 숭상하여 마음에는 터득한 것도 없이 겉으로 꾸미는 말만하여 남에게 호감을 사고 세상에 자기 재주를 과시한다. 이 때문에 글을 지을 때 찬술하는 데는 교묘하나 도의에는 벗

50) 李珥, 『全書』, 「拾遺」卷三, <與宋頤菴>. ‘大抵古人之所謂文者 與今人異 古人之文 無意於爲文者也 夫雲行雨施 日照月臨 山川之流峙 草木之賁飾者 天地之文也 天地不自知其爲文 和順積中英華發外 動作有威儀 言語爲經籍者 聖賢之文也 聖賢不自知其爲文 是故古之人以道爲文 以道爲文 故不文而爲文 噫孰知夫不文之文 是乃天下之至文耶 以之爲語孟 以之爲六經 以之爲三百篇 或奇或簡或勸或戒 旨趣之精 聲律之協 咸出於自然耳 何嘗若後人之牽強作意 雕朽鏤冰者之所爲哉’

어나고 말은 많지만 이치에는 거리껴서, 말은 원만한데 뜻은 막히는 것, 이것은 곧 속유의 문장이다. 진실로 그 본말을 궁구하고 먼저하고 뒤에 할 것을 알 수 있어야 함께 성현지문을 이야기할 만하다.<sup>51)</sup>

위 예문에서 율곡은 聖賢之文과 俗儒之文을 비교하여 성현지문의 의미를 더욱 확실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성현지문과 속유지문이 나뉘는 기준은 내용면에서는 道の 有無이며,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인위적인 조작의 有無이다. 성현의 문장은 수식하지 않은 문장으로 자연스러운 아름다움 속에 깊은 뜻을 담고 있으며, 속유의 문장은 짓는 데는 교묘하여 말은 번잡하고 매끄러우나 결과적으로는 도의에 벗어나고 이치는 막혀 모순을 면하지 못한다. 때문에 율곡은 문장에서 억지로 꾸미고 부화한 것을 반대한다.

다음 예문은 성현이 문장을 짓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진실로 지금 세상에 학행을 갖추고 사문을 터득한 사람에게 權衡의 책임을 맡겨 인재를 뽑을 적에는 덕행을 우선으로 하고 문예를 뒤로하며, 학문을 강론할 적에는 자신의 내적 수양에 힘쓰는 학문을 높이고 남의 이목만을 위한 학문을 물리치며, 文을 살필 적에는 뜻을 취하고 부화한 것을 버리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반드시 사람들로 하여금 뜻에 힘쓰고 날로 正學으로 나아가서 부화하고 거짓된 것을 물리치고 도덕을 돈독히 숭상하여 성현의 문으로 문을 짓게 할 수 있을 것이다.<sup>52)</sup>

위 예문에서 율곡은 斯文에만 능한 인재가 아닌 學行과 斯文을 겸비한 사

51) 李珥, 『全書』, 「拾遺」卷六, <文策>. ‘辭約而理當 言近而指遠 卒澤於道德仁義 炳如也 此則聖賢之文也 後之學者 不求實理 而徒尙浮藻 心無所得 而外爲巧言 取悅於人 而銜玉於世 是故 其爲文也 工於撰述 而外於道義 辭繁而理礙 語圓而意滯 此則俗儒之文也 苟能窮其本末 知所先後 則可以與議於斯文矣’

52) 李珥, 『全書』, 「拾遺」卷六, <文策>. ‘誠使今之學行俱備 得與於斯文者 俾居權衡之任 其取人也 先德行 而後文藝 其講學也 尊爲己 而黜爲人 其考文也 取義理 而捨浮華 則必使人人勵志 日趣正學 屏去浮僞 敦尙道德 莫不以聖賢之文爲文也’

람이 權衡을 잡아야 聖賢之文을 지을 수 있다고 하였다. 聖賢之文을 짓는 방법으로는 인재를 뽑을 때에 덕행을 우선으로 삼을 것 · 爲己之學을 숭상할 것 · 文을 살필 적에 뜻을 취하고 부화한 것을 버리게 할 것을 들고 있다. 인재를 뽑을 적에 덕행을 우선으로 삼은 것과 위기지학을 숭상하는 것에서 율곡이 문장의 기본을 인성에 두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율곡이 문학을 氣의 작용으로 보고 문학의 내용을 사서와 육경에서 찾았던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리고 부화하다는 것은 깊이 있는 내용이 不在된 형식적인 화려함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율곡이 내적 성찰 없이 외적인 수식과 기교만을 추구한 문장을 반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창작에 있어서 꾸미지 않은 아름다움을 추구하였던 것은 비평에 있어서 天然의 시를 중요시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율곡이 비평에서 주안점으로 삼은 것은 天然이다.

다음은 尹紀理의 詩를 評한 것이다.

申漬이 부평현 여금산에 집을 짓고 살면서 여러 명사들에게 시를 구했는데 시인 윤기리의 시에 이르기를,

荊門日暖桃花淨	사립문에 날씨 따뜻하니 복사꽃도 맑고,
無數晴蜂上下飛	무수히 맑은 벌들이 이리저리 날아드네.
午睡初醒童子語	낮잠에서 막 깨어나자 동자가 하는 말,
折來山蕨滿筐肥	광주리 하나 가득 고사리 꺾어 왔어요.

라고 하니, 모든 사람이 더 쓰지 못하였다. 율곡이 이 시를 보고 감탄하여 말하기를 ‘이것이 어찌 터득한 것을 묘사한 것이겠는가. 이른바 천연에서 나온 것이다.’<sup>53)</sup>라고 했다.

53) 李珥, 『全書』卷三十二, 「語錄下」. ‘申漬築室居于富平縣餘金山 求詩諸名士 詩人尹紀理之詩曰 荊門日暖桃花淨 無數晴蜂上下飛 午睡初醒童子語 折來山蕨滿筐肥 諸人閣筆 栗谷見之歎曰 此豈摹寫所得者 所謂出於天然者歟’

윤기리의 시가 최고인 이유로 그의 시가 천연에서 나왔다는 것을 들었다. 즉, 율곡이 비평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天然에서 나온 詩情임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율곡은 인위적인 조작이 없으면서도 자연스러운 최고의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는 天地之文과 聖賢之文을 최고의 文으로 보고, 창작에 있어서 지나친 조탁이나 수식을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수식과 기교에 대한 반대는 강서시파를 이론적 근거로 하여 기교주의를 표방하였던 훈구파의 문학론에 대한 비판이자, 문학의 본원을 세워 사림파의 문학 이론을 체계화하고자 하였던 율곡의 의지가 잘 드러나 있는 견해라고 하겠다. 그리고 비평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天然이다. 율곡이 창작론과 비평론에서 일관되게 보이고 있는 견해는 꾸밈이 없이 자연에서 나온 문장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뒤에서 다룰 風格論과도 일관성을 지니는 견해이다.

### 3. 儒家的 效用論

栗谷은 「毛詩序」와 孔子의 詩論을 수용함으로써 儒家的 效用論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율곡이 말한 시의 효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性情醇化와 性情陶冶의 수단이 된다고 하였다.

시는 비록 학자의 능사는 아니지만 또한 성정을 읊조림으로써 맑고 부드러운 마음을 펴내고 가슴 속의 더러움을 씻어내어 본성을 보존하고 살피는 것에 일조한다. 어찌 기교를 부리어 아름답게 꾸며서 정을 읊기고 마음을 방탕하게 하여 쓸 수 있겠는가.<sup>54)</sup>

시로 인하여 본성을 보존 성찰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시의 性情純化 기능을

54) 李珣, 『全書』, 「拾遺」卷四, <精言妙選總序>. ‘詩雖非學者能事 亦所以吟詠性情 宣暢清和 以滌胸中之滓穢 則亦存省之一助 豈爲雕繪繡藻 移情蕩心而設哉’

말하는 것이다. 孔子는 興觀群怨<sup>55)</sup>이라 하여 시의 功能을 말하였다. 그 중 살필 수 있다는 것은 시를 통해 정치의 득실을 살펴 알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방 風俗의 성쇠를 살펴 정치의 득실을 알 수 있게 된다<sup>56)</sup>는 의미도 포함된다. 또한 溫柔敦厚<sup>57)</sup>를 詩敎의 결과로 삼았는데 이는 시를 當世의 정치·교육과 불가분의 관계로 본 것이다.<sup>58)</sup> 이는 시가 가지고 있는 民風敎化의 기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詩敎는 예부터 시의 중요한 功能이었다.

이른바 文이라는 것은 외워 읽는 것을 익히고 詩歌와 문장이나 배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敎화를 밝혀 풍속을 진작시키는데 있는 것이다.<sup>59)</sup>

文의 기능으로 敎화를 밝히고 풍속을 진작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이는 율곡이 文의 내용으로 六經을 들었던 것이나 과거제의 폐단에 대한 대책으로 六德과 六行과 六禮를 들었던 것<sup>60)</sup>과도 맥을 같이 한다.

「毛詩序」에서는 ‘세상이 잘 다스려질 때의 음악은 편안하니 그 정치가 화합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까닭이고, 세상이 어지러울 때의 음악은 원망스러우니 그 정치가 사리에 어긋나는 것을 노여워해서이고, 나라가 망해갈 때의 음악은 슬프니 그 백성들이 곤궁한 것을 애처로워하기 때문이다.’<sup>61)</sup>라 하였다. 이는 한 나라의 治亂과 詩와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말이다.

55) 『論語』, 「陽貨」. ‘子曰小子 何莫學夫詩 詩可以興 可以觀 可以群 可以怨 邇之事父 遠之事君 多識於鳥獸草木之名’

56) 車柱環, 『中國詩論』,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p.2.

57) 『禮記』, 「經解」. ‘入其國 其教可知也 其爲人也 溫柔敦厚 詩敎也’

58) 이병한 외, 『中國古典文學理論批評史』, (韓國放送通信大學, 1989).

59) 李珣, 『全書』, 「拾遺」卷四, <文武策>. ‘其所爲文不在於記誦之習 詞章之學 而在於明敎化 而作興之’

60) 李珣, 『全書』, 「拾遺」卷六, <文策>. ‘今茲欲得志乎道德者 而反以志乎富貴者 待士則甚非 國家所以求賢之意也 斯文之弊 既有所自 則豈無救之之策乎 思昔周室之盛也 以鄉三物 敎萬民 而賓興之 一曰六德 二曰六行 三曰六禮 不聞以文藻取人也’

61) 『毛詩序』. ‘治世之音安 以樂其政和 亂世之音怨 以怒其政乖 亡國之音哀 以思其民困’

다음 예문은 율곡이 시의 공능에 대해 언급한 말이다.

그러므로 성인이 경서를 찬술하실 때 시를 그 첫째로 두어 세도의 성쇠와 국운의 치란을 보게 하였다. 그 때문에 정아·변아·정풍·변풍이 지어지게 되었으니 시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sup>62)</sup>

시로써 세도의 성쇠와 국운의 치란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시의 정치적 효용성을 말하는 것이다. 정치에 있어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풍자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교화<sup>63)</sup>하는데 시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詩를 나라의 治亂을 살피는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 정치란 한 나라의 內治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외국과의 외교 역시 한 나라의 정치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고 외교에 있어서도 시의 위력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율곡은 뜻을 두고 있는 바에 따라 선비를 4등급<sup>64)</sup>으로 나누고, 그들 각각의 문장을 규정하였다. 도덕에 뜻을 둔 최상의 선비에게서 나오는 문장은 聖賢之文, 정치에 뜻을 둔 선비에게서 나오는 문장은 외교 무대에서 나라의 위상을 빛낼 華國之文, 그리고 오로지 문장을 공교롭게 하는데 뜻을 둔 선비에게서 나오는 문장은 俗儒之文, 마지막으로 부귀에 뜻을 둔 선비에게서 나오는 문장은 科擧之文이라 하였다. 물론 여기에서 율곡이 가장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은 도덕에 뜻을 둔 가장 최고의 선비이다. 그러나 華國의 문장을 그 다음에 둬으로써 문장에 있어서 화국이 차선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시로써 인정의 기미를 파악하고 의사를 완곡하게 표명하여 응대하는 것이 사신의 능력이자 임무이던 당시의 외교 형태로 미루어 볼 때 그 중요성과 필요성은 현실 속에서

62) 李珥, 『全書』, 「拾遺」卷三, <仁物世藁序>. ‘故聖人之述經也 詩居其一 而于以見世道之盛衰 國運之治亂 而正雅變雅 正風變風之所以作也 則詩之可以感乎人者 可知也’

63) 『毛詩序』. ‘風風也 教也 風以動之 教以化之’

64) 李珥, 『全書』, 「拾遺」卷六, <文策>. ‘士之上者 有志於道德 其次志乎事業 其次志乎文章 最下者 志乎富貴而已 科擧之徒 則志乎富貴者也’

인식된 문제라 하겠다. 율곡이 중국 사신의 시에 차운하거나 영접하면서 지은 시는 화국의 문장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율곡이 시의 功能으로 인정한 것은 성정 순화와 민풍 교화, 그리고 내치와 화국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율곡이 시경서와 공자의 시론을 수용한 것으로 효용론에 있어서 儒家의 일반적인 효용론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문학적 효용론에 있어서 율곡이 儒家的 效用論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 유가적 효용론이 사림과 문학론에 있어서 일반적인 效用論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율곡 문학론의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도덕적 수양을 전제로 한 학문과 문학과 삶의 통일성이다. 율곡은 文以形道라 하여 문으로써 도를 형상화시킨다고 하여 문장은 도를 담아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도란 육경 등의 성리학적 가치이고, 이는 그 자체로써 실천성을 전제하고 있다. 이는 학문과 문학이 하나라는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학문적 수양이 전제된 시인의 삶까지도 일치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둘째, 자연성과 순수성에 대한 지향이다. 시인의 삶과 문학과 학문이 하나로 귀결된다는 것은 가식과 세속성이 배제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율곡은 천지지문과 성현지문을 동격으로 보았다. 道 자체가 삶이 되고 문장이 되기 때문에 그 속에 가식과 세속성이 자리 잡을 틈이 없다. 그로 인해 일상성을 뛰어넘는 詩情을 일으킬 수 있고, 作詩에 있어서는 꾸미지 않은 아름다움을 추구하여 지나친 조탁과 부화한 문사를 배격하였으며, 사실적인 묘사를 중시한 것이다.

셋째, 일상의 삶과 유리될 수 없는 현실성이다. 문학의 효용성으로 든 性情醇化·民風教化·內治外華는 문학이 현실과 유리된 것이 아니라 현실적 삶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인간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차원 높게 격상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점에서 세속성과는 구별된다.

#### IV. 栗谷의 詩世界

栗谷의 시는 『栗谷全書』 卷2 「詩」에 실려 있는 316수 · 「拾遺」에 실려 있는 192수 · <瑣言>에 실려 있는 6수 · <書>에 실려 있는 1수를 포함하여 모두 515수의 詩가 남아있다.

515수의 시를 시형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區分	古詩	近體詩			計
		絕句	律詩	倍律	
五言	53	60	111	6	230
七言	12	152	116	3	283
雜言	2	·	·	·	2
計	67	212	227	9	515
		448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율곡은 근체와 고체, 오언과 칠언, 그리고 율시와 절구 등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비교적 다양한 시형을 두루 섭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고시는 67수 · 근체시는 448수로 근체시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고시보다 근체시가 월등히 많은 것은 율곡이 詩作을 즐기지 않았던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듯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율곡은 평소 詩作을 즐기지 않았고 사람들과의 酬唱 등 필요에 의해 시를 짓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에 중국 사신과의 수창에는 대부분 칠언율시가 쓰였던 것을 미루어 볼 때 율곡의 시에서 고시보다 근체시가 많은 것은 이렇듯 율곡의 作詩 경향이 실용적인 면에 주된 목적이 있었고, 그러한 목적에 부합되는 시형이 근체시였던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다. 앞서 5언 고시는 道에서 流出된 詩로써 마음에 和氣가 가득해서 절로 넘쳐 나온 것이라고 하

였다. 67수의 고시 중에서 5언 고시가 53수로써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에서 沖澹蕭散을 중요한 풍격으로 보았던 율곡의 견해가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5언 시 230수·7언 시 283수·기타 2수로 5언 시와 7언 시에 있어서는 그 비중이 비슷하다. 근체시를 보다 세분하면 절구 212수·율시 227수·배율 9수이다. 배율에 비해 절구와 율시가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절구와 율시에 있어서 어느 한쪽을 특별히 선호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배율을 선호하지 않았던 이유는 5언 배율이 과거의 시첩시 및 궁중의 응제 봉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형<sup>65)</sup>이라는 점에서 科文을 긍정하지 않았던 율곡의 문학적 견해와도 일치한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율곡이 고시보다는 근체시, 배율보다는 절구와 율시를 선호하였지만 다양한 詩體에 대해 특정한 편견 없이 비교적 두루 섭렵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율곡의 시세계를 내용을 기준으로 詠懷詠史詩·說理理趣詩·山水遊覽詩·交遊贈答詩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詠懷詠史詩는 그리움이나 쓸쓸함 등의 정서를 표출한 詠懷詩와 古事나 역사적인 사실과 관련된 인물을 읊은 詠史詩를 포함한다. 詠懷詩는 서정적인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인으로서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으며, 詠史詩는 율곡의 역사적인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說理理趣詩는 율곡의 학문적 경향이 나타난 시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山水遊覽詩는 산수유람을 통해 유람의 과정과 풍경을 읊은 시이다. 산수를 좋아하는 율곡의 성품과 입산 시절에 금강산을 유람하였던 경험에서 나온 시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交遊贈答詩는 율곡이 다양한 인간관계를 통해 주고 받은 시이다. 515수의 시를 내용상 분류해 보면 사람들과 교유한 시가 375수로 가장 많다. 율곡이 作詩를 함에 있어서 교유와 수창에 주된 목적을 두었음을 알 수 있으며, 율곡 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65) 申用浩, 『漢詩形式論』, (전통문화연구회, 2002). p.138.

## 1. 詠懷詠史詩

栗谷의 詩 중에 각종 輓詞와 贈答詩·送別詩 또는 次韻詩 등 다양한 교유를 통하여 지은 시와 감회나 흥취를 읊은 시 등은 대부분 詠懷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움·쓸쓸함·적막함·애도 등 다양한 감정이 서경 묘사와 함께 잘 어우러져 있다. 그런 의미에서 詠懷詩는 율곡의 시에서 분량면에서 보았을 때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 詠史詩는 그 수가 그리 많지는 않으니, 고사나 역사적 인물과 관련된 시로 7수<sup>66)</sup> 정도가 있다. 箕子나 四皓 같은 역사적 인물이나 고사에 나오는 인물을 읊음으로써 위대한 인물의 역사적 의미와 추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 시는 형제에 대한 그리움을 읊은 시이다.

客意忽惆悵	내 마음 갑자기 슬퍼지는데,
山陰催夕曛	산그늘은 석양을 재촉하네.
弟兄曾駐馬	형제들 말을 타고 놀 적에,
朋友亦隨羣	친구까지 떼 지어 놀곤 했지.
石澗鳴春水	돌 계곡엔 졸졸졸 봄 시냇물,
巖峯聳夏雲	바위 봉엔 두둥실 여름 구름.
至今成舊跡	이제는 옛 자취가 되어 버려,
蘿逕獨黃昏 <sup>67)</sup>	황혼녘 산길에 홀로 서 있네.

상산동을 지나다가 갑자기 어릴 적 형제들과 함께 놀았던 일이 생각나서 지은 시이다. 首聯은 해 저무는 석양에 산 속에서 느끼는 나그네의 쓸쓸함이

66) 율곡의 시 중에서 詠史詩로 분류할 수 있는 시는 고사와 관련된 시로는 사호를 읊은 <詠四皓> 3수, 기자와 관련된 시로는 <箕子殿> 1수, <箕子廟> 2수, <謁箕子墓> 1수, 등 모두 7수가 있다.

67) 李珣, 『全書』卷一, 「詩上」, <過上山洞忽憶舊事因感有作>.

다. 이는 어릴 때 놀던 그 곳에 함께 놀던 형제의 부재에서 느끼는 슬픔이다. 頷聯과 頸聯은 어린 시절 형제들과 어울려 놀았던 시절에 대한 추억이다. 어릴 적 말을 타고 함께 놀았던 형제와 죽마고우에 대한 회상을 읊었다. 봄물과 여름 구름에 의탁하여 옛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내고 있다. 尾聯은 외로운 나그네 신세를 읊었다. 이 시는 33세(1568)에 이조좌랑으로 있다가 외조모의 병이 심하다는 말을 듣고 강릉으로 내려가는 길에 지은 詩인 듯하다. 옛 추억이 남아있는 산길에서 어린 시절 형제들과 뛰어놀았던 때를 그리워하며 애뜻한 형제애와 쓸쓸함을 담아내고 있다.

다음은 정철의 집에 갔다가 밤늦게 돌아오는 정철과 술자리를 마련하고서 지은 시이다.

有約人何去	약속만 해놓고 주인은 어디를 갔나,
客來棲鳥稀	객들만 와 있으니 새마저 드물구나.
月緣寒樹沒	찬 나무 저 너머로는 달도 저물고,
鍾度華山微	화산을 넘어온 종소리도 잦아드네.
擊目凝淸思	눈 돌려 맑은 생각 모으고 있자니,
回燈照夜霏	밤안개에 등불을 비추며 돌아오네.
深杯叙離別	잔 깊은 술잔으로 이별의 정 풀려하니,
寂寞素心違 <sup>68)</sup>	적막하여 찾아온 본마음이 아니라네.

首聯에서는 약속을 하고 찾아왔으나 주인의 출타로 반기는 이 없는 쓸쓸함을 읊었다. ‘人何去’란 표현에서 원망보다는 아쉬움과 쓸쓸함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棲鳥稀’는 주인 없는 쓸쓸함을 더욱 고조시키는 이미지이다. 頷聯에서는 시간의 경과를 ‘月’과 ‘鍾’에 의탁하였다. 달빛과 종소리라는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를 동원하여 주인을 기다리는 지루한 시간 경과를

68) 李珣, 『全書』卷二, 「詩下」, <與諸友到季涵家季涵他適入夜而還小酌>.

묘사한 것에서 시인으로서의 감각이 돋보인다. 頸聯에서는 기다리던 벗이 희미한 등불과 함께 돌아오는 것을 묘사하였다. 頸聯에서는 주인을 만나 술자리를 마련하였음을 묘사하였다. 긴 기다림의 끝에 만난 벗이라 술잔은 深杯여야 한다. 여기에서 '深'자는 잔의 깊이를 묘사함과 동시에 기다림·그리움·아쉬움 등의 복합적인 심리적 기재의 깊이까지도 담아내고 있는 시어이다. 기쁜 만남을 기대하고 찾아왔으나 이별의 술자리가 된 것을 아쉬워하고 있는 시이다.

다음은 억울한 심정을 읊고 있는 시이다.

四遠雲俱黑	사방이 온통 먹구름뿐인데,
中天日正明	하늘엔 태양이 한창 밝구나.
孤臣一掬淚	외로운 신하 한 줌 눈물 흘러,
灑向漢陽城 <sup>69)</sup>	한양성을 향해 뿌리노라.

1583년에 북쪽 오랑캐가 쳐들어온다. 당시 율곡은 병조판서를 맡아 兵曹의 번잡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戰馬를 마련하기 위해 射手 중에 늙고 병약한 사람에게 말을 바치고 군역을 면제해 주는 방책을 쓰게 된다. 급박한 일이라 주상의 윤허를 추후에 받게 된다. 또한 변방의 急報로 인한 주상의 갑작스러운 부름에 어지럼병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 이 두 가지 일로 三司의 탄핵을 받아 6월에 栗谷으로 내려가게 된다.

起句와 承句에서는 임금의 혜안을 가리고 자신의 잇속만 차리는 간신배들이 조정에 가득한 상황과 그 속에서도 밝게 빛을 잃지 않는 임금을 상징적으로 묘사하였다. 轉句와 結句에서는 비록 탄핵으로 물러나게 되는 신세이긴 한 줌 눈물로 자신의 결백과 임금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을 표현하였다. 율곡은 매번 벼슬을 사퇴하고 내려가면서 시를 지어 임금에 대한 충심을 노래

69) 李珥, 『全書』卷二, 「詩下」, <去國舟下海州>.

하고는 있으나 이 시처럼 눈물로 호소한 시는 없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닌 탄핵으로 인해 물러나게 된 억울함과 외적이 쳐들어 온 상황에서도 집안싸움으로 여념이 없는 조정 신하들의 행태에 대한 한탄이라 하겠다. 탄핵으로 물러나게 된 억울한 심정과 혼란한 정국을 걱정하는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

秉彝均賦孰無親	천륜은 공평하여 그 누군들 어버이 없으랴만,
短碣摩挲倍愴神	작은 효녀비 쓰다듬자니 더욱더 슬퍼만 지네.
列鼎曾聞懷負米	삼공 반열 올라서도 쌀 이던 때 그리워했으니,
百年風樹痛吾身 <sup>70)</sup>	일생 부모 여윈 슬픔으로 이내 신세 애통해라.

위 시는 율곡이 효녀비를 보고 지은 시이다. 起句에서는 천륜이 공평함을 들어 그 누구도 부모가 없는 사람은 없음을 말하였다. 承句에서는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의 비석을 쓰다듬으며 부모님을 잃은 슬픔에 잠긴다. 轉句와 結句에서는 자로의 일화를 비유하여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효도하지 못한 한을 읊고 있다. 자로는 출세하여 높은 벼슬에 오르게 되었지만 젊었을 때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백리 밖에서 쌀을 지고 왔던 시절을 그리워했던 인물이었다. 부모를 잃은 자식의 슬픔은 부귀 여하를 떠나서 얼마나 큰 것인가를 잘 담아내고 있다. 율곡은 16세에 어머님을 여의었고, 26세에는 아버님마저 잃게 된다. 사임당은 어머니이자 스승으로 율곡의 학문과 성품에 큰 영향을 끼쳤으니, 어머니에 대한 그의 애정은 더욱 남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의 3년 상을 치르면서 衰絰을 벗지 않고, 제찬도 직접 마련하였다거나 그릇 씻는 일 까지도 손수 하였다는 등의 일화는 물론이거니와 3년 상을 치른 후에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入山하였던 것에서 어머님 신사임당에 대한 각별했던 효성을 알 수 있다. 부모를 여윈 애통함이 잘 나타나 있는 시이다.

다음 시는 <箕子廟>이다.

70) 李珣, 『全書』卷二, 「詩下」, <孝女碑>.

玉馬東來啓我先  
 歎深微禹卽仁賢  
 敢將韜晦爲身地  
 祇是艱貞不愧天  
 故墓淒涼寒樹裏  
 明宮翬映曉雲邊  
 遺風舊俗今猶在  
 惆悵無因作九泉<sup>71)</sup>

옥마로 동에 와서 우리 조상 계도하니,  
 우임금 치수한 듯 공적 높은 인현이라.  
 어찌 몸 숨겨 자신만 위하는 수준이라,  
 의리를 추구해 하늘 부끄럽지 않았네.  
 옛 무덤은 차가운 나무 곁에 처량한데,  
 사당은 새벽 별 비취는 구름 속에 솟았네.  
 남겨진 옛 풍속은 지금까지도 있건만,  
 슬프구나! 구천에서 돌아올 방법이 없네.

首聯에서는 기자의 높은 공적을 칭송하였다. 頷聯에서는 紉에게 諫하다가 紉가 怒하여 종이 되어 숨었던 기자의 행적을 들어 의리와 명분을 지키며 바르게 살았던 기자의 행적을 기렸다. 頸聯에서는 기자의 묘와 사당을 묘사하였다. 尾聯에서는 기자가 끼친 遺風과 기자가 다시 환생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였다. 성현을 높이고 옛 도를 추모하고 있다. 이 시는 왕경민 부사에게 지어준 시인데, 그는 어려서 홍범당에서 학문을 닦아 홍범구주를 탐구하였던 인물로 특히 기자에 대해 관심이 많아 「箕子廟賦」를 짓기도 하였다. 「謫箕子廟賦」를 보여주며 기자가 조선으로 들어간 이후의 사적에 대해 율곡에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율곡이 賦를 지어 화답하고 「箕子實記」를 주니 사신들이 감탄하였다고 한다. 기자에 대한 역사적 의의부터 현재의 기자묘에 대한 묘사까지 잘 표현하고 있는 시이다.

聘幣慙慙出漢廷  
 商山應愧首陽青  
 可憐四皓成何事  
 贏得生平羽翼名<sup>72)</sup>

예물 받고 은근히 한나라 조정에 나왔으니,  
 상산은 응당 수양산 푸르름에 부끄러우리.  
 가련하구나 사호여! 무엇을 이루었는가,  
 평생 얻은 건 태자 보좌했다는 이름뿐이네.

71) 李珣, 『全書』卷二, 「詩下」, <箕子廟>.

72) 李珣, 『全書』卷十四, 「雜著一」, <詠四皓三首> 中 三首.

이 시는 율곡이 『漢史』를 읽으면서 四皓의 출처가 바르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기다가 퇴계 선생에게 질정하고, 주자 역시 사호가 智謀를 쓰는 선비라고 한 것을 보고서 자신의 견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후<sup>73)</sup>에 사호에 대해 읊은 시라고 하였다. 起句에서는 商山에 숨어있던 사호가 예물을 받고서 한나라에 나온 사실을 말하였다. 承句에서는 사호가 다시 조정애 나온 것이 수양산에 숨었던 백이숙제의 출처와 비교하였을 때 부끄러운 일이었음을 말하였다. 儒者로서의 출처에 맞지 않는 사호의 출처에 대한 율곡의 의견이다. 轉句와 結句에서는 사호의 출처가 도리에 어긋난 것에 대한 풍자이다. 사호의 출처를 풍자함으로써 儒者로서의 출처에 대한 경계까지도 담고 있는 시이다.

다음 시 역시 사호에 대해 읊고 있는 시이다.

溲溺儒冠亦一秦	선비 갓에 오줌 누니 진시황과 매한가지,
如何更作漢家臣	어찌하여 다시 한나라의 신하가 되었는가.
那知四皓商山老	어찌 알리오 상산의 네 늙은이 들,
盡是東宮願死人 <sup>74)</sup>	모두 태자위해 죽음도 각오했던 사람인걸.

起句에서는 선비의 갓에 오줌을 눌 정도로 도가 떨어진 한나라는 진나라 때와 마찬가지로라는 것을 말하였다. 承句에서는 도가 떨어진 한나라에서 신하 노릇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고 있다. 사호의 출처가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반어적 표현이다. 轉句와 結句에서는 사호가 태자를 위해서라면 목숨 바치는 것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기개가 높은 사람들이긴 하였지만 도를 아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풍자하였다. 사호와 관련된 고사

73) 李珣, 『全書』卷十四, 「雜著一」, <瑣言>. ‘余讀漢史 怪四皓之出處不正 未敢顯言非之 及見退溪質之 正與鄙意相合 但未見先正之論 一日覽性理大全 朱子曰 四皓恐非儒者 只是智謀之士 余及信吾見之不謬也’

74) 李珣, 『全書』卷十四, 「雜著一」, <詠四皓三首> 中 二首.

를 詩化함으로써 출처에 대한 역사적인 품평을 하고 있는 시이다.

이상에서 詠懷詠史詩는 그리움이나 쓸쓸함 등의 감정을 읊은 시와 역사적 인물이나 고사와 관련된 내용을 시의 주제로 삼아 역사적인 의의를 되새기고 후세에 대한 경계를 담고 있는 시임을 알 수 있었다.

## 2. 說理理趣詩

說理理趣詩는 학문적 蘊蓄을 詩라는 형식으로 형상화시킨 것이다. 율곡은 도학적 본질을 詩로 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내용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자연 현상을 빌어 은유적으로 형상화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시적 주제는 동일하다. 說理詩는 이치를 설파하고 있는 시라는 의미에서 理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시이다. 理趣詩는 王甦의 『退溪詩學』에서 그 표현을 빌려왔다. 王甦는 詩教에 해당되는 시를 理語詩와 理趣詩로 나누었다. 그 중 理趣詩는 ‘일반적으로 이치에 대하여 이야기함은 없지만 사물의 모습을 그려냄으로써 이치가 밝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뜻에 터득됨이 있고 마음에 깨달음이 있도록 하여 감도는 맛이 무궁하다.’<sup>75)</sup>라고 정의하고 있다. 본고에서 검토한 시 중에 자연 속에서 道體를 깨닫고 있는 시는 理趣詩에 부합된다고 사료되어 理趣詩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理를 형상화시키는 표현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理氣論·心性論·修養論에 이르는 철학적 본질을 담고 있는 시이므로 본고에서는 說理理趣詩로 묶어서 다루고자 한다.

다음 시는 理氣에 대해 읊고 있는 시이다.

元氣何端始  
無形在有形

원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나,  
무형은 유형 가운데 있는 것이네.

75) 王甦·李章佑, 『退溪詩學』, (退溪學研究院刊, 1985).

窮源知本合	근원을 궁구하면 본래 합해 있으나,
沿派見羣精	갈래를 따르면 여러 정으로 나타나네.
水逐方圓器	물은 모나고 둥근 그릇 모양 따르며,
空隨小大瓶	공기는 크고 작은 병 크기 따라 변하네.
二歧君莫惑	그대는 理氣互發說에 미혹되지 말고,
默驗性爲情76)	성이 정되는 것을 묵묵히 징험하오.

율곡이 성혼에게 理氣를 설명하기 위해 보낸 편지 속에 실린 시이다. ‘낮에 한가롭게 앉아 理氣의 묘리는 본래 離合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 마침내 短律한 수를 지었다.’77)라 하여 理氣의 묘리에 대해 지은 시임을 밝히고 있다. 首聯은 形而上者로써 無形無爲한 理와 形而下者로써 有形有爲한 氣에 대한 직설적 표현이다. ‘無形在有形’은 發하는 氣 속에 發하는 所以然으로써의 理가 항상 존재한다는 氣包理에 대한 설명이다. 頷聯에서는 理와 氣는 相離함이 없기 때문에 一物과도 같으나 氣가 發하여 陰陽 五行으로 나누어진다는 理氣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頸聯에서는 理通氣局의 이치를 물과 허공에 비유하였다. 일정한 틀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자재로 통하는 물과 허공은 理에 대한 비유이고, 일정한 모양과 한계에 구속되어 있는 그릇과 병은 氣에 대한 비유이다. 尾聯에서는 퇴계의 理氣互發兩岐說에 미혹되지 말고 理氣의 원리를 깊이 궁구해 볼 것을 권하면서 心の 未發인 性과 心の 已發인 情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理氣論에서 心性論에 이르는 철학이 직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다음 시는 冬至라는 절기에서 人性的 회복이라는 철학을 유추해내고 있는 시이다.

子半一陽動	동짓날 밤 자정에 한 양이 움직이니,
天心妙難議	하늘 마음 묘하여 말하기 어렵네.

76) 李珣, 『全書』卷十, 「書二」, <理氣詠寄呈牛溪道兄>.

77) 李珣, 『全書』卷十, 「書二」. ‘午來閒坐 感理氣之妙 本無離合 遂作短律一首’

若識無中有  
雷聲殷大地  
中宵點新火  
耿耿坐不寐  
及此夜氣清  
默念玄機秘  
向來剝狀膚  
萬彙困凋瘵  
春回九泉底  
萌蘖含生意  
一氣互動靜  
闔闔誰汝使  
感彼天運復  
省心還惴惴  
<中略>

外貌不莊肅  
怠慢於斯萃  
散坐與空談  
畢竟非善戲  
衣冠必整飭  
言語慎勿費  
中心不專一  
邪思所窺覷  
擾擾起復滅  
火災兼馬駛  
載斷前後際  
卓立恒勿貳  
慎獨與不息

無 속엔 有가 있다는 걸 안다면,  
우레 소리가 대지에 가득할 때.  
깊은 밤에 새 불을 켜놓고서,  
앉아서 그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이 밤 기운이 맑을 때에 미쳐,  
묵묵히 현기의 신비를 생각하리.  
이제까진 만물 꺾테기 다 벗겨져,  
온갖 무리 곤궁하고 시들었다가.  
봄이 땅 밑에서부터 돌아오니,  
새싹이 살아날 뜻을 머금은구나.  
한 기운 서로 동하기도 정하기도 하니,  
닫히고 열리는 건 그 누가 부리는가.  
저 하늘 운행이 돌고 도는 걸 느끼니,  
마음을 살펴볼 때 도리어 두렵다네.

외모부터 삼가고 정숙하지 않으면,  
태만함이 여기에 모여들게 되니.  
산만하게 앉아서 헛된 말 하는 것은,  
마침내는 좋은 놀이가 아니라네.  
옷과 갓은 반드시 단정히 하고,  
말은 삼가 낭비하지 말 것이다.  
중심이 오로지 한결같지 않으면,  
사악한 생각이 틈을 엿보게 되어.  
어지럽게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  
불꽃같기도 말달리는 것 같기도 하니.  
앞이고 뒤고 딱 끊어 버린 사이에,  
우뚝 서서 항상 두마음 갖지 말라.  
홀로 있을 때 삼가고 쉬지 말 것이니,

聖謨斯爲至	성인의 교훈은 이것이 지극한 것이라네.
參前復倚衡	前賢을 참고하고 또 저울대에 의지해,
不可須臾離	잠시라도 떨어질 수 없다네.
處心廓如天	마음자리 하늘처럼 넓다면,
屋漏可無愧 <sup>78)</sup>	방 귀퉁이에서도 부끄러울 것 없으리.
<後略>	

동짓날 子正은 도학자<sup>79)</sup>들에게는 각별한 의미를 지니는 시간으로, 율곡이 동지날 밤에 느끼는 회포를 긴 시로 풀어내고 있다. 동짓날 子正에 一陽이 動하여 모든 만물이 다 소생하는 미묘함을 천둥소리에 비유한 주자의 시<sup>80)</sup>를 인용하여 표현하였다. 우레 소리가 온 천지에 가득한 子時에 율곡은 인간의 본심이 자라나는 맑은 기운을 느끼며 고대 司燿氏<sup>81)</sup>처럼 새 불을 켜놓고 잠 들지 않은 채 우주 운행의 오묘한 이치를 깨닫는다. 이전까지는 純陰이 用事하여 만물이 다 껍질이 벗겨져 모두 시들고 곤궁하였다가 一陽이 움직이면서 이제 막 봄기운이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되니 새싹들이 생기를 머금고 돌아날 기미를 얻게 되는 이 자연의 법칙에서 율곡은 天運이 순환하는 이치를 깨닫

78) 李珣, 『全書』卷一, 「詩上」, <至夜書懷>.

79) 서경덕은 氣一元論을 주장한 氣哲學者로서 자연의 변화 중에서 특히 계절상의 冬至日을 '하늘의 마음'이라고 하여 주목하였다. 그는 동지일을 계기로 천지는 새롭게 회복의 변화를 하며, 이는 천지의 마음을 보이는 날로써 동지일의 오묘한 이치는 모든 자연 형상에도 일관하여 해당되며, 나아가 인간이 이 자연을 통하여 至善 至眞한 본래적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자연의 덕으로써 동지일의 의미를 통찰함으로써 인간 자신의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는 진리의 근거를 확보했던 것이다. 또한 이 동지일의 이치를 통하여 철학적인 有와 無의 관념적 문제까지도 類推할 수 있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덧붙여 '후세의 학자들이 冬至日을 연구한다면 얻을 바가 대단히 많다'라 하여 후학들에게 冬至日에 대한 연구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하여 <冬至吟>이라는 시를 지어 같은 제목의 소옹의 시에 진술되어 있는 철학적 견해에 자신의 견해를 부연하기도 한다. 韓國哲學會, 『韓國哲學史』中卷, (東明社, 1997). pp.196~201 참조.

80) 朱熹, 『朱文公詩』卷之九, <答袁機中論啓蒙>. '忽然半夜一聲雷 萬戶千門次第開 若識無心含有象 許君親見伏羲來'

81) 『周禮』, 「夏官司燿」. 고대에 사환씨가 사철에 따라 國火를 변경시켜 時疾을 구제하였다.

고 자연의 이치에 두려움을 느낀다. 이러한 자연의 이치는 인간의 본심 회복이라는 인간 윤리에 적용될 수 있다. 율곡은 동짓날 밤 一陽의 움직임에서 天運이 순환하는 이치를 깨닫고, 그 이치를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여야 한다는 인간 윤리까지 미루어 그를 위한 구체적인 방편으로 敬을 제시하였다. 敬의 구체적인 실천 사례는 외모의 꾸밈을 삼가고 정숙하게 할 것, 옷과 갓은 단정히 하고 말을 낭비하지 말 것, 홀로 있을 때 삼가고 쉬지 말 것 등이다. 동지라는 자연 현상을 면밀히 관찰하고 그 속에서 人性的 회복이라는 철학을 유추하여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 조목까지 빠짐없이 설파하고 있다.

다음 시는 心性論에 대한 철학을 담고 있는 시이다.

求道難詢瞽	길은 장님에게 묻기 어려운 법,
如何繭足尋	무엇하러 발 싸매고 찾아왔는가.
吾聞四百病	내 들으니 사백 가지 병 고치는데,
一藥在治心 <sup>82)</sup>	최고 약은 마음 다스리는 것이네.

이 시는 율곡에게 도를 물으러 찾아온 김경시라는 사람에게 적어준 것이다. 起句와 承句는 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도를 잘 깨우치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야지 도를 알지 못하는 율곡에게 물으면 안된다라고 하는 겸양이다. 轉句와 結句는 모든 깨우침의 열쇠는 心에 있다는 가르침이다. 心의 본연은 善이다. 그러나 그것이 發할 때 形氣의 작용 여하에 따라 道心이 되기도 하고, 人心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人心이란 人欲의 여하에 따라 善할 수도 있고 不善할 수도 있으며 人心 중에 선한 것은 도심이다. 때문에 사람이 마음을 잘 다스려 인욕에 빠지지 않는다면 道心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도심을 유지하느냐 인욕에 빠진 불선한 인심을 갖느냐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마음 수양에 달린 것이므로, 治心하는 것이 만병의 약인 것이다. 心에서 道를 구함

82) 李珥, 『全書』, 「拾遺」卷一, 「詩」, <贈金生景時 江陵人>.

으로써 학문수양의 근거를 깨우쳐 주고 있는 시이다.

다음은 인심과 도심에 대한 설파로 도학적 견해를 피력함으로써 스님을 깨우쳐 주고 있는 시이다.

此道元一本	이 도는 본래 근본이 하나이나,
人心有去來	인심은 일정하지 않음이 있다네.
如何入他逕	어찌하여 다른 길로 접어들어서,
十年頭不回	10년이 되도록 깨닫지 못 하는가.
霜落千山瘦	서리가 내리면 온 산은 마르고,
風和百奔開	바람 따뜻하면 온갖 꽃 피는 법.
玄機宜默識	현묘한 이치 말없이 깨달아야지,
妙運孰相催 <sup>83)</sup>	미묘한 운행을 누가 재촉할까.

首聯에서 도의 근본이 하나라고 한 것은 인심과 도심은 그 發하는 바에는 차이가 있으나 그 知覺은 본래 하나로써 二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人心有去來’는 人心은 善할 수도 있고 不善할 수도 있음을 말한 것이니, 人心道心說에 대한 간단명료한 설파이다. 頤聯은 학문의 근본을 心에서 찾음으로써 마음을 잡지 못하고 다른 길에서 헤매고 있는 스님을 깨우치고 있다. 頸聯에서는 서리와 바람에 비유하여 자연스러운 우주 질서 속에 참된 진리가 있음을 설파하였다. 尾聯에서는 스님의 말없는 깨달음을 기다리며, 누군가 밖에서 부터 재촉하여 깨닫게 할 수 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다. 尾聯에서 말없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율곡이 자신의 입산 경험에 비추어 스님의 깨달음을 유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율곡이 자신의 도학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상대를 깨우치기 위한 도구로써 詩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이기론과 심성론에 이어 수양론에 대한 철학을 담고 있는 시이다.

83) 李珥, 『全書』卷一, 「詩上」, <次山人詩軸韻>.

文會步晨露  
詠歸穿夕嵐  
澄心無別法  
寂默俯清潭<sup>84)</sup>

새벽이슬 밟으며 글벗들 모였다가,  
저녁노을 헤치며 시를 읊고 돌아오네.  
마음 맑게 하는 데는 다른 방법 없으니,  
맑은 못을 고요히 굽어보는 것뿐이네.

율곡이 해주 석담에 있을 때 벗들과 함께 석담구곡을 구경하고 시를 즐기며 安丹城의 시에 次韻하여 쓴 시이다. 起句에서는 새벽 일찍 道友들이 모였음을 말하였다. 承句에서는 벗들과 만나 석담구곡에서 시를 읊고 돌아오는 정경이다. 轉句와 結句에서는 마음을 맑게 하는 데에는 다른 방법이 있지 않고 오직 고요하게 맑은 못을 굽어보는 것이라 하여 맑은 물을 바라보며 마음을 수양하는 방법으로 결론을 맺었다. 율곡이 觀物하는 자세는 사물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이치를 깨닫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 수양론을 이끌어내는 데에 이른다. 이 시에서도 이치에 대한 설파에서 더 나아가 마음을 수양하는 방법에 대한 논리를 이끌어내고 있다.

다음은 자연 현상에 빗대어 물아일체의 이치를 담아내고 있는 시이다.

石與水相激  
萬壑清雷鳴  
借問衣上人  
水聲還石聲  
爾若下一語  
便了物我情<sup>85)</sup>

돌과 물이 서로 부딪쳐서,  
온 골짜기 맑은 우레 울리네.  
그대 설의상인에게 묻노라,  
이는 물소리가 돌 소리인가.  
그대 한마디로 말 해준다면,  
물아의 정 깨달을 수 있으리.

설의상인이라는 승려에게 지어준 시이다. 첫째 구와 둘째 구에서는 골짜기에 흘러내리는 시냇물이 돌과 부딪쳐 나는 물소리를 묘사하였다. 셋째 구와

84) 李珣, 『全書』卷二, 「詩下」, <次安丹城石潭韻>.

85) 李珣, 『全書』卷一, 「詩上」, <贈山人雪衣>.

넷째 구에서는 돌과 물이 부딪쳐서 내는 맑은 시냇물 소리가 돌 소리인지 물 소리인지를 설의상인에게 묻는다. 설의상인이 한마디로 답변을 해준다면 율곡이 物我의 情을 터득할 수 있겠다는 답으로 시는 결론을 맺는다. 설의상인에게 물아일체의 도를 묻고 있다. 돌과 물이 부딪쳐서 내는 소리가기 때문에 물소리와 돌 소리는 결국 같은 소리이다. 같은 소리를 구별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차별일 뿐이다. 때문에 돌 소리와 물소리를 구별하고자 하는 차별적인 마음에서 벗어나면 돌 소리와 물소리에 내재하는 理는 동일함을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理라는 측면에서 보면 物과 我에 존재하는 理가 하나일 뿐이다. 때문에 물소리와 돌 소리의 구별을 한마디로 정의해 준다면 그 속에서 물아일체의 도를 깨우치겠노라고 설의상인에게 선문답과도 같은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계곡에서 돌과 물이 어우러져 내는 소리를 통하여 물아일체의 경지를 깨우치고 있는 시이다.

다음은 달을 보면서 인간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있는 시이다.

萬里無雲一碧天	만 리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에,
廣寒宮出翠微巔	달님은 취미궁 꼭대기에서 나오네.
世人只見盈還缺	세상사람 차고 이지러지는 것만 볼 뿐,
不識冰輪夜夜圓 <sup>86)</sup>	달 바퀴 언제나 둥근 걸 알지 못하네.

起句에서는 맑은 달의 배경이 되는 맑은 하늘을 묘사하였다. 承句에서는 당태종이 山間에 지은 궁전인 취미궁에서 달이 떠오르는 모습을 묘사하였다. 轉句와 結句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현상에 얽매어 언제나 둥글게 존재하는 본체로써의 달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달에 대한 묘사 속에 본체와 현상에 대한 철학을 담고 있다. 이는 萬殊의 현상으로 드러나는 氣 속에 내재해있는 불변의 理에 대한 발견이다. 자연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86) 李珣, 『全書』卷一, 『詩上』, <山中四詠> 中 '月'.

분석하며 그 속에서 변하지 않는 본체에 대한 진실을 깨달음으로써 자연 속에서 人性의 참됨을 찾아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시 역시 자연 속에서 道體를 깨닫고 있는 시이다.

坐遍奇巖出洞遲	기암에 앉았다 천천히 골짜기를 나오니,
玲瓏碧澗動相隨	영롱한 푸른 냇물이 나를 따라 흐르네.
遊人只把清漪弄	遊人은 다만 맑은 물결만을 희롱할 뿐,
絕頂眞源世不知 <sup>87)</sup>	절정의 참 근원을 세상 사람들 모른다네.

起句와 承句는 시인이 있는 공간에 대한 묘사이다. 시인은 기이한 바위가 둘러싸인 반석에 앉았다가 천천히 계곡을 나온다. 轉句에서는 자연을 대하는 사람들의 안목이 目見而已에 불과함을 말하였다. 結句에서는 道體를 인식하지 못하는 세상을 안타까워하였다. 물의 속성은 맑다는 것이다. 때문에 일렁임이 없는 맑은 물과 티끌이 끼지 않은 거울은 인간의 稟性을 말할 때 도학자들이 즐겨 쓰는 비유<sup>88)</sup>이다. 율곡 역시 맑은 물 속에서 至善至眞한 인간의 본성을 찾는다. 때문에 계곡 따라 흐르는 푸른 냇물은 知道體의 안목을 가진 율곡에게 있어 단순한 물이 아닌 인간의 본성을 의미한다. 흐르는 냇물을 보면서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것과 그러한 본성이 모든 인간에게 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인간에 대한 안타까움까지 모두 담아내고 있는 시이다.

이상에서 說理理趣詩를 살펴보았다. 說理詩와 理趣詩는 표현 방법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學問的 바탕 위에 詩的 美學을 겸비하여 道文一體 문학관을 詩作에 실천하고 있는 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87) 李珣, 『全書』卷一, 「詩上」, <沿流坐石研墨于巖上題詩記事>.

88) 서경덕도 인간의 稟性을 비유해서 ‘如水未波 如鏡未塵’ 이라고 하였다.

### 3. 山水遊覽詩

율곡은 산수 유람을 매우 즐겼던 것으로 보이니, '선생은 산수를 좋아하여 명승지에는 가보지 않은 데가 없었다'<sup>89)</sup>라는 行狀 기록과 '공자가 말하기를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하고 어진 자는 산을 좋아한다라 하였다. 山水를 좋아한다는 것은 저 물이 흐르고 산이 솟은 것만 취할 뿐이 아니고, 그 動靜의 본체를 취하는 것이다. 어질고 지혜로운 자가 氣를 기르는데 이 산수를 버리고 어디에서 구하겠는가.'<sup>90)</sup>라는 年譜에서 확인할 수 있다. 山水遊覽詩는 내용면에서 보면 산수 경물을 묘사한 것, 情景交融의 의경을 창조한 것 등이 있다. 형식상 寫實性<sup>91)</sup>을 중요한 특징으로 한다. 산수유람시에서는 자연 경관에 대한 天然의 詩情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시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율곡 산수유람시의 절정은 단연 금강산 시이다. 그 중 금강산 유람을 총정리하는 의미에서 3000字를 써서 지은 시는 단연 압권이라 하겠다. 詩題에서 '내가 풍악산을 유람하면서도 게을러 시를 짓지 않다가 유람을 마치고 나서 이제야 들은 것 또는 본 것을 주워 모아 3천 마디의 말을 구성하였다. 감히 시라 할 것은 못되고 다만 경력한 바를 기록했을 뿐이니 말이 더러 속되고 운도 중복되었으니 보는 이는 비웃지 말기를 바란다.'<sup>92)</sup>라고 하여 금강산을 유람하면서 보고 들은 것을 총정리하는 의미로 지은 시임을 알 수 있다. 오언 고시 형태로 3000字 600句나 되는 장편이라 시를 모두 다루기는 어려움이 있어 내용상으로 단락을 구분하여 표로 만들어 고찰하고자 한다.

89) 李珥, 『全書』卷三十五, 「附錄三」, <行狀>. '先生雅好山水 凡勝地無不往觀'

90) 李珥, 『全書』卷三十三, 「附錄一」, <年譜上>. '孔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樂山水者非取其流峙而已 取其動靜之體也 仁智者之所以養氣者 捨山水而奚求哉'

91) 孫五圭, 『朝鮮前期의 詩歌-表象論』, 「山水文學의 形成과 그 概念」, p.528 참조.

92) 李珥, 『全書』, 「拾遺」卷一, 「詩」. '余之遊楓岳也 懶不作詩 登覽既畢 乃摭所聞所見成三千言 非敢爲詩 只錄所經歷者耳 言或俚野 韻或再押 觀者勿嗤'

起		금강산의 생성 내력과 명성에 대해 칭송을 함으로써 금강산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하였다.
段落	句	內容
1	1~16	천지개벽으로 만물이 형성되는 중에 천지의 흰 뼈가 쌓인 곳이 산이 되고, 그 중에 특히 맑은 기운이 모여 개골산이 되었다라고 하여 금강산의 생성내력에 대해 설명하였다.
2	17~32	佳名이 사해에 떨어져 여느 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워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요 인간 세상의 물체가 아니라 하여 금강산의 명성을 설명하였다.
承		금강산 유람의 과정에 대해 읊었다. 산봉우리와 암자들을 유람한 내용을 일일이 묘사하였고, 금강산 유람을 하며 보고 들은 것들에 대해 상세하고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
段落	句	內容
3	33~38	울곡이 산수를 좋아하는 성품과 금강산에 도착하였다는 사실을 읊었다.
4	39~70	떠들이 스님을 따라 산행을 시작하는 감동, 그리고 단발령과 장안사를 들렀다는 내용이다. 단발령에 올라 바라본 아름다운 일만이천봉의 모습과 산행의 과정을 묘사하였다. 화재로 인해 장안사 범종루를 새로 세우고 있는 모습과 절 뜰의 모습을 묘사하였다.
5	71~100	장안사 동편에 있는 금장암과 은장암, 그리고 그 옆 봉우리 주변 경관 묘사와 유점사의 주변 경관 및 절 경내 풍경을 묘사하였다.
6	101~110	이어 명적암 홍성암 두운암 성불암 등을 유람하였음을 묘사하였다.

段落	句	內容
7	111~144	불정대에서 아침 해돋이를 바라보고 견성암과 축수 영대암 영은암, 그리고 구연동과 보현암 진견성 향로암 등을 유람한 것을 묘사하였다.
8	145~166	미륵봉을 거쳐 난초암에서 신선외 자태를 지닌 스님을 만나 나물로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눈 뒤 만경대에 올랐다가 속세와 격리된 양진이란 동굴에 들렀음을 읊었다. 이상은 빛산을 유람한 내용이다.
9	167~204	빛산을 구경하고 빛산보다 더 수려하다는 안산으로 접어들어 유람을 시작하였다. 맑은 물결 속에 비친 그림자를 희롱하고, 선암 문수암 불지암을 거쳐 계빈에 이르러 주변 경관의 아름다움을 감상하였음을 읊었다.
10	205~226	금강산 속에 있는 수많은 암자를 모두 품평할 수 없어 대략만을 읊는다고 하여 스물 네 개의 암자 이름을 나열하였다.
11	227~248	산 속의 절경과 어우러진 암자들의 모습을 간략하게 요약하였다.
12	249~306	표훈사를 시작으로 사랑스러운 암자와 누대, 그리고 골짜기 하나하나의 정경과 특성 및 아름다움을 읊었다. 정양사 수미대 망고대 시왕동 만폭동 보덕굴 등 열흘 동안 둘러 본 안산의 경관을 대략 요약하였다.
13	307~332	동쪽으로 상원에 도착하여 적멸암 개심암 백전 등을 거치며 청학동과 비견하였고, 발연사에 도착해 아찔한 절벽을 감상하고 구정봉을 올라 한밤중에 해 돋는 것을 구경하였음을 읊었다.
14	333~370	구룡연을 구경하려다 위험하다는 스님의 충고를 듣고 포기하고 금강산의 절정이라고 하는 비로봉을 오르기로 결정하였다. 하루가 꼬박 걸려서 비로봉 중턱에 이르러 바라보이는 산봉우리의 전체적인 아름다움에 대해 읊었다.

段落	句	內容
15	371~434	비로봉 중턱에서 바라보는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산봉우리의 모습을 온갖 동물과 인간, 그리고 다양한 사물의 형상에 비유하여 세밀하게 읊었다.
16	435~470	비로봉의 절정의 경관과 감동을 읊었다. 구름도 미치지 못하는 비로봉 정사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경을 하고 금강산 유람을 정리할 생각을 하였음을 말하였다.
	轉	금강산 유람을 정리하려고 하다가 스님이 금강산 사철 변화의 아름다움과 금강산의 전설적인 것들에 대해 소개하자 그로 인해 반년을 더 머물렀음을 읊었다.
段落	句	內容
17	471~504	울곡이 금강산을 떠날 뜻이 있음을 알고 스님이 금강산의 사철 변화에 대해 설명하면서 금강산을 더 구경할 것을 권한 내용을 읊었다.
18	505~538	스님이 산 속에 살고 있는 羽人과 異獸, 그리고 仙鶴에 대해 설명하면서 울곡이 그들을 볼 것을 권하였다. 스님의 권유에 반년을 머물며 스님의 말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음을 읊었다.
19	539~562	스님과 함께 금강산의 전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음을 말하였다.
	結	금강산을 떠나오면서 금강산 유람시를 짓게 된 동기에 대해 설명하였다.
段落	句	內容
20	563~600	금강산에서 내려와 골짜기를 나오려고 하자 산신령이 꿈에 나타나 시를 지어 금강산의 이름을 빛내줄 것을 요구하였다. 처음엔 시재가 부족하다고 거절하였으나 금강산 산신령의 부탁을 끝내 거절하기 어려워 부득이 금강산 유람시를 짓게 되었다라고 하여 600운에 이르는 시를 짓게 된 동기에 대해 설명하였다.

다음은 금강산의 百塔·九龍·萬洞과 더불어 108洞에서 최고로 꼽히는 萬瀑洞을 읊은 시이다.

石逕高低入洞門	높고 낮은 돌길은 만폭동으로 드니,
洞中飛瀑怒雷奔	만폭동 폭포 소리 성난 우레 달리듯.
巖橫萬古難消雪	긴 세월 우뚝 바위라 눈도 녹지 않았고,
山聳千秋不散雲	각 지른 산이라 구름도 흩어지질 않네.
獅子峰前披翠霧	사자봉 앞에선 푸른 안개를 걸쳤고,
火龍淵上坐黃昏	화룡연 가에선 황혼녘에 앉아있었네.
夜投普德禪庵宿	한밤엔 보덕암 들어 선방 잠자는데,
鶴唳猿啼攪夢魂 <sup>93)</sup>	학 울고 납 울어 꿈길을 어지럽히네.

首聯은 만폭동 폭포의 웅장함에 대한 묘사이다. 頷聯은 오랜 세월을 담아내고 있는 만폭동의 눈서린 바위와 구름이 모여 있는 산 정상에 대한 묘사이다. 수련과 함련에서는 험하고 웅장한 만폭동 정경을 청각과 시각적 비유를 통하여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 頸聯은 만폭동에 오르는 과정 묘사로써 만폭동의 장엄과 신비가 묘사되어 있다. ‘峯’과 ‘淵’의 경관 대비, ‘翠’와 ‘黃’의 색채 대비는 만폭동의 환상적인 정경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대구의 멋을 살려준다. 율곡의 산수유람시가 寫實的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自然에 대한 絳景美의 형상화에서 찾을 수 있다. 尾聯은 선방에서 느끼는 만폭동에 대한 여운이다. 수련부터 경련까지가 낮부터 저녁 시간까지의 시각적인 감상이었다면 미련은 밤 시간 산사에서 학과 납의 울음소리를 통한 청각적 감상이었다.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의 벅찬 감동을 학과 납의 울음소리에 의탁하였다. 이 시의 미학은 역동성에서 찾을 수 있다. 높고 낮은 돌길·우레 같은 물살·천추에 솟은 산·학과 납의 울음소리, 그리고 잠 못 들고 깨어있는 시인

93) 李珣, 『全書』卷一, 「詩上」, <萬瀑洞>.

까지 생동하는 詩語 속에 웅장한 만폭동의 모습과 그 속에 살아 숨 쉬는 정  
기까지 역동성 있게 담아내었다.

다음 시는 풍악산에서 본 것을 읊은 시이다.

吾生賦性愛山水  
策杖東遊雙蠟屐  
世事都歸掉頭中  
只訪名山向楓岳  
初沿石川得小逕  
漸見鳥道統山麓  
林間有寺知不遠  
青烟起處鍾聲落

<中略>

直上高峰始豁然  
萬境森羅收不得  
風聲水響浩難分  
幾道飛泉喧衆壑  
擡頭東望眼力盡  
茫茫大洋連天碧  
逍遙便作物外人  
洗盡胸中塵萬斛

<中略>

峯巒削立怪欲飛  
雪色嵯峨迥無極  
青天去地不盈尺  
頭上星辰手可摘<sup>94)</sup>

<後略>

내 부여받은 천성이 산수를 사랑하여,  
지팡이 짚고 나막신 신고 유람한다네.  
세상일은 모두 다 내 일이 아니니,  
다만 명산 찾아 풍악산을 향할 뿐.  
처음엔 시냇물 따라 작은 길을 찾고,  
점점 까마득한 고갯길로 산기슭에 통하였네.  
멀지 않은 숲 속에 절 있다는 걸 아는 것은,  
푸른 연기 이는 곳에서 종소리 울려서라네.

바로 높은 봉우리 오르자 그제야 탁 트여,  
온 경계 삼라만상 감당할 수 없어라.  
바람 소린지 물소린지 분간하기 어려운데,  
길 가까워지자 폭포 소리 온 계곡 시끄럽네.  
고개 들어 저 멀리 동쪽 끝 바라보니,  
아득한 큰 바다 푸른 하늘 맞닿았네.  
한가롭게 노닐다 문득 속세 밖 사람이 되어,  
가슴 속 모든 번뇌 깨끗이 씻어버렸네.

깎지른 봉우리는 날아갈 듯 괴상하고,  
눈서린 높은 산세 저 멀리 끝이 없네.  
푸른 하늘은 땅에서 한 척도 안 되는 듯,  
머리 위 별들은 손으로도 딸 듯 하네.

94) 李珣, 『全書』卷一, 「詩上」, <楓岳記所見>.

첫째 구에서 넷째 구까지는 산행에 대한 배경 설명이다. 산수를 좋아하는 성향과 풍악산을 가게 되었다는 기술이다. 다섯째 구에서 여덟째 구까지는 시냇물을 따라 작은 산길을 따라 걸어 올라가면서 발견하게 된 절에 대한 기억이다. ‘靑烟起處鍾聲落’은 다양한 이미지가 혼재하며 묘한 시적 묘미를 살리고 있는 구이다. 연기의 수직성과 종소리의 수평성, ‘起’자가 주는 상승 이미지와 ‘落’자가 주는 하강 이미지, ‘靑’이라는 시각적 시어와 ‘聲’이라는 청각적 시어가 하나의 구에서 對를 이루며 묘한 흥취를 자아내는 佳句이다. 율곡의 시에서 어구 단련성은 이렇듯 복합적 요소를 함축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佳句에서 발견된다. 아홉째 구부터는 산봉우리에서 느끼는 감동, 혼연일체된 자연 속에서 느끼는 탈속적 기쁨, 산 정상에 대한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산 정상에 올라 탁 트인 절경을 바라보며 느끼는 삼라만상에 대한 신비, 푸르게 펼쳐진 장관에서 속세의 때를 모두 벗겨버리는 기쁨, 손에 잡힐 듯 맞닥뜨린 자연에 대한 감탄을 일필휘지로 쏟아내고 있다. 기행문을 쓰듯 시간의 흐름을 따라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수식이나 과장 없이 기술하였다. 사실적이고 자세한 묘사와 번잡스럽지 않은 문체가 돋보이는 시이다.

다음 시는 풍악산에서 일출을 보고서 지은 시이다.

嵯峩雪峯幾千仞  
鳥道人行白雲外  
靑藜蔓上犂确中  
兩眼漸覺東丘隘  
夜投禪室徹曉坐  
時聽笙簫來上界  
金鷄一鳴登絕頂  
萬境熹微天尙昧  
須臾火光漲天地

우뚝한 설봉은 몇 천 길이나 되는가,  
흰 구름 위 고갯길엔 사람이 다니네.  
명아주 지팡이로 바위산 두드려 오르니,  
동방 땅 좁다는 걸 두 눈으로 확인하네.  
밤이라 절 방 들어 새벽까지 잠 못 자고,  
때때로 천상의 피리 통소 소리를 듣네.  
새벽 닭 처음 울 때 산 정상에 오르니,  
은 경계 희미하고 하늘은 아직 어둡네.  
잠깐 사이 햇빛이 온 천지에 넘치니,

不辨滄波與曉靄  
 朱輪轉上數竿高  
 一朵彩雲如傘蓋  
 靑紅漸分水與天  
 極目始知東海大  
 扶桑暘谷渺何處  
 欲看出處知無奈  
 秦皇夸父等小兒  
 千載令人起一喟<sup>95)</sup>

푸른 물결 새벽안개 분간할 수 없어라.  
 붉은 해 점점 솟아 몇 길이나 떠오르니,  
 한 다발 채색 구름 일산이 뒤덮은 듯.  
 푸른 물과 붉은 하늘 점점 나뉘어져,  
 멀리 바라보고야 동해가 큰 줄을 알겠네.  
 부상과 양곡은 아득한 그 어느 곳인가,  
 해 나오는 곳 보려 해도 어찌할 수 없네.  
 진황이나 과보는 모두 어린아이일 뿐이니,  
 천 년 뒤에도 사람을 한 숨 쉬게 한다네.

첫째 구에서 여덟째 구까지는 해돋이를 보기 위해 산에 오르는 과정에 대한 기술이다. 흰 구름도 벗어난 곳에 푸른 명아주 지팡이를 짚고 올라가는 시인의 모습이 흰색과 푸른색의 산뜻한 색채 대비를 이루며 신선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절 방에서 천상의 통소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드는 것은 새벽에 보게 될 해돋이의 장관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여 주었다. 아홉째 구에서 열여섯째 구까지는 해돋이 광경에 대한 묘사이다. 적절한 비유와 색채 대비로 해돋이 장관에 대한 독자의 상상력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렇듯 거역할 수 없는 자연의 위대함을 거슬렀던 진시황과 과보의 어리석음에 한 숨 쉬며 시인은 잠시 멈추었던 호흡을 다시 가다듬는다. 풍악산 정상에서 해돋이를 보며 자연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숙연히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금강산 생활을 정리하고 강릉으로 돌아가면서 쓴 시이다.

秋風別楓岳  
 斜日到祥雲  
 沙上千巖列  
 松間一路分

가을 바람 불 제 풍악산 떠나,  
 해질 무렵 상운정에 이르렀네.  
 모래 가엔 온갖 바위 늘어섰고,  
 솔 사이엔 길이 하나 나 있구나.

95) 李珣, 『全書』卷一, 「詩上」, <楓岳登九井看日出>.

殷雷波捲海  
踈篆雁成羣  
秣馬催程發  
前山晚霧昏<sup>96)</sup>

우레 소리에 파도는 바다를 말고,  
기러기 떼는 엉성한 篆字를 만드네.  
말 죽 먹여 길 재촉해 떠나는데,  
앞산엔 저녁 안개가 어둡구나.

首聯에서는 가을에 풍악산을 나와서 상운정에 도달하였음을 기술하였다. 頷聯에서는 상운정 주변의 경관이 묘사되어 있다. 모래 위에는 수많은 바위들이 늘어서 있고 소나무 사이로 길이 하나 나 있다. 頸聯은 바다 풍경이다. 바다엔 파도가 일고 기러기 떼 날고 있다. 바위와 소나무, 파도와 갈매기가 어우러진 광경이다. 尾聯에서는 말죽을 먹이고 서둘러 길을 떠나는데 앞산엔 벌써 저녁 안개가 내려앉아 길이 어둡다. 함련과 경련에서 묘사된 산수경치를 배경으로 어둑어둑 저녁 땅거미 내려앉은 산길에서 말을 재촉하는 풍경이 한 폭의 풍경화를 보는 듯 아름답다. 풍악에서 강릉까지 오는 길에 들르게 된 상운정의 정경 묘사와 생각을 향해 한 걸음이라도 서두르려는 시인의 마음이 잘 어우러져 있는 시이다.

이상에서 율곡의 山水遊覽詩를 살펴보았다. 山水遊覽詩는 산수를 사랑하는 율곡의 성품에서 나온 시로써 사실적인 山水 描寫와 절제된 感賞을 겸하여 情景交融을 이루고 있는 시임을 알 수 있었다.

#### 4. 交遊贈答詩

율곡은 스스로 친구가 별로 없었다고는 했지만 학문적·정치적·문학적으로 인연을 맺게 된 벗들과 끊임없이 교류하면서 수많은 시를 지었다. 앞서 율곡의 515수의 시 중에서 375수의 시가 交遊贈答詩라고 하였다. 交遊贈答詩는 그의 시에서 분량이 많다는 이유 뿐 아니라 인간적인 면모를 살펴볼 수

96) 李珥, 『全書』卷一, 「詩上」, <向臨瀛題祥雲亭>.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또한 그의 시에서 교유증답시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율곡이 作詩를 함에 있어서 인간관계라는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시를 지은 경우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율곡은 重外輕內·玩物喪志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글 짓는 것을 즐기지 않았다. 때문에 교유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글 짓는 것을 삼갔던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교유증답시를 통해서 그의 인간관계 뿐 아니라 作詩의 경향까지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교유증답시는 내용상 학문적·인간적으로 교분을 맺었던 친구들과 주고받았던 시, 불교적 관심에서 인연을 맺은 스님들과 주고받았던 시, 외국 사신들을 맞아 지은 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스님과의 교유는 율곡이 어머니의 삼년상을 치른 후 금강산에 入山했던 시기에 이루어진다. 스님과 주고받은 시는 대부분 이 시기에 지어진 시이다. 학문적 경계를 떠나서 스님들과 교유하고 불교에 대한 관심을 기울였던 면모를 살필 수 있다. 율곡은 49세라는 길지 않은 생애 중에 많은 시간을 관직에서 보낸다. 그 중 1568(戊辰) 33세에 천추사 서장관으로 차출되어 성균관 직강을 제수 받고 명나라에 간다. 그리고 1582년 10월에 원접사가 되어 翰林院編修 黃洪憲과 工科給事中 王敬民 두 사신을 맞이하게 된다. 중국 사신을 예우하면서도 자존심을 지킬 줄 아는 모습을 통해 그의 인간적인 성숙미를 살필 수 있으며, 앞서 문학론에서 다루었던 화국의 문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친구 및 스님 그리고 사신들과의 교유를 통해 쓰여진 시를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음 시는 귀봉으로 이지번을 방문하고 지은 시이다.

峽裏仙區別有天  
危峯如畫蘸晴川  
人間岐路波聲外  
林下衡門秀色邊

협곡 안 선경은 예가 바로 별천지라,  
우뚝한 봉우리 그림처럼 맑은 내에 잠겼네.  
인간 세상 갈림길은 물소리 바깥이고,  
숲 아래 허술한 문은 산 빛에 빼어나네.

枕水巖平當臥榻	물을 베고 누운 바위 침상까지 닿았고,
宿簷雲細雜茶烟	처마 끝에 머문 구름은 차 연기에 섞였네.
客來剩作清宵話	객이 찾아와 밤 이야기 맑은 가운데,
坐待寒蟾上翠巖 <sup>97)</sup>	산꼭대기에 달뜨기를 앉아서 기다리네.

李之蕃은 土亭 이지함의 형으로 鵝溪 李山海의 아버지 되는 인물인데, 율곡이 24세 때 귀봉 아래에 있는 사평을 방문하고서 지은 시이다. 首聯에서는 龜潭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사평이 은거하고 있는 귀담의 아름다운 산과 물을 풍경화 그려내듯 회화적으로 묘사하였다. 頷聯은 사평이 사는 집 근처에 대한 묘사이다. 수련이 귀봉의 전체적인 풍경 묘사라면 함련은 그 시야를 더욱 좁혀 사평 집근처라는 부분 묘사이다. 사평이 사는 곳은 물소리에 의해 인간 세상의 번다함이 끊어진 곳으로 아름다운 산 빛 끝에 허술하게 문이 달려 있는 곳이다. 頸聯은 집 앞에 있는 바위와 처마 자락 끝에 있는 구름에 대한 묘사이다. 함련보다 더욱 좁아진 시야를 확인할 수 있다. ‘宿簷雲細雜茶烟’은 처마 끝에 머무는 구름과 차 달이는 연기가 섞여 구분할 수 없는 형상을 묘사한 것이다. 자연과 더불어 하나 된 소박함을 느낄 수 있다. 尾聯에서는 달 기다리는 저녁에 친구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묘사하였다. 시인의 시야가 더욱 구체화되어 집안으로 들어온 것을 알 수 있다. 시상은 귀봉에서부터 집안까지 점점 구체화되어 客이라는 정점으로 집약된다. 귀봉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敍景美 속에 벗과의 만남이라는 감회를 담았다.

다음은 일생을 통해서 가장 절친했던 벗인 성혼에게 지어준 시이다.

歲云暮矣雪滿山	올해도 저물어 온 산엔 눈 내리는데,
野逕細分喬林間	키 큰나무 숲 사이론 들길이 나있네.
騎牛聳肩向何之	소를 타고 어깨 들썩이며 어디로 가나,

97) 李珥, 『全書』卷一, 「詩上」, <龜峯下訪李司評之>.

我懷美人牛溪灣  
 柴扉晚扣揖清臞  
 小室擁褐依蒲團  
 寥寥永夜坐無寐  
 半壁青熒燈影殘  
 因悲半生別離足  
 更念千山行路難  
 談餘輒轉曉鷄鳴  
 舉目滿窓霜月寒<sup>98)</sup>

우계 가에 그리운 벗을 찾아 간다네.  
 저물녘 도착해 청수한 벗과 인사하고,  
 작은방에 앉아 털옷입고 이불까지 덮었네.  
 긴 밤 고요한데 마주 앉아 잠 못 이루니,  
 홀벽엔 등불만 깜빡깜빡 가물거리네.  
 아! 슬퍼라 반평생에 이별도 많구나,  
 다시 생각나네 온 산에 험난했던 길.  
 담소하며 뒤척이는데 새벽 닭 울고,  
 고개 드니 창문 가득 서릿달만 시리네.

1578년 겨울 石潭으로 돌아가기 전에 소를 타고 성혼을 찾아갔다가 작별하면서 지은 시이다. 첫째 구에서 넷째 구까지는 성혼을 찾아가는 길을 묘사하였다. 계절적 배경은 겨울이라 산은 온통 눈으로 덮여있다. 율곡이 소를 타고 친구 집을 찾아 가는 길은 교목이 뺨뺨한 산길이다. 소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율곡의 어깨도 들썩인다. 여유와 한적함이 느껴진다. 美人이라는 표현에서 성혼에 대한 그리움과 우정을 느낄 수 있다. 다섯째 구에서 여덟째 구까지는 성혼과 작은 방에 마주 앉은 상황이다. 성혼은 욕심 없는 맑은 얼굴을 하고 있다. 야윈 벗에게 인사하고 작은 방에 마주 앉았다. 작은 방에 털옷을 끼입고 이불까지 덮었다는 것에서 성혼의 소박하고 욕심 없는 살림과 그 속에 담긴 인품을 엿볼 수 있다. 오랜만에 만난 벗과 말이 필요 없는 그리움으로 잠을 못 이룬다. 아홉째 구에서 마지막 구까지는 방에 마주 앉아 정담을 나누는 내용이다. 얼마 전 절친한 벗이었던 정철의 상을 당하였던 터라 이별에 대해서 생각한다. 인생과 학문에 대하여 이야기는 끝이 없고 어느덧 새벽닭이 운다. 고개 들어보니 창가엔 서리달만 차갑다. 고향으로 내려가기 전에 찾아간 벗은 그리운 마음이 있어도 또 언제나 만나게 될지 기약이

98) 李珣, 『全書』卷二, 「詩下」, <雪中騎牛訪浩原叙別>.

없다. 눈 오는 겨울밤을 배경으로 지어진 시이지만 둘의 우정으로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시이다.

다음은 이달과 가을 밤 淨友堂에서 노닐다가 이달이 지은 <秋夜淨友堂同李栗谷話因呼韻>에 次韻한 시이다.

冷冷斜雨浸庭莎	뜰 풀엔 차가운 빗줄기 내리는데,
小閣開樽別意多	작은 누각 술자린 이별의 정이라.
吟罷碧雲燒燭短	푸른 구름 읊고 나자 촛불은 짧아지고,
秋聲無賴集池荷 <sup>99)</sup>	연꽃 주위에선 뜻밖의 가을비 소리.

가을밤에 차가운 빗줄기가 내려 뜰에 잔디를 적신다. 뜰 앞 작은 누각에서 술자리가 펼쳐지고, 이 자리는 곧 헤어져야 할 이별의 술자리이다. 촛불 켜놓고 푸른 구름을 시로 읊자니 시간은 흘러 촛불은 점점 짧아진다. 그리고 불현듯 내리는 가을비 소리가 들려온다. 이 시는 감각 변화를 따라서 읽다보면 더욱 깊어지는 이별의 아쉬움을 느낄 수 있다. 먼저 ‘冷冷’이라는 촉각적 이미지는 ‘碧雲’이라는 시각적 이미지로 전환되어 이별의 아쉬움을 덧없는 구름에 의탁하였다. ‘碧雲’이라는 시각적 이미지는 다시 ‘秋聲’이라는 청각적 이미지로 전환되어 고요함과 적막함 속에 부각된 가을 빗소리에 이별의 情恨을 담아냈다. 촉각에서 시각으로, 시각에서 청각으로 감각이 고급화되어 감에 따라 이별의 정도 깊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달의 원 작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陰虫切切怨階莎	귀뚜라미 소리 섬돌 잔디에서 절절한데,
孤燭燒殘夜氣多	밤기운 깊어지자 쓸쓸한 촛불도 잦아드네.
各倚小闌同不寐	작은 난간에 기대어 둘 다 잠 못 이루니,

99) 李珣, 『全書』卷一, 「詩上」, <次李達韻>.

起句에서는 섬돌 잔디에서 들려오는 애절한 귀뚜라미 소리로 시상을 일으켰다. 깊어가는 가을밤에 촛불은 점점 잦아들고, 난간에 나란히 서있는 두 친구는 잠을 못 이룬다. 이별에 대한 아쉬움이다. 고요한 가을밤에 더욱 커지는 연잎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 가을밤의 쓸쓸함과 이별의 정이 가을 빗방울 소리에 집약되어 있다. 앞서 살펴본 율곡의 시와 비슷한 느낌을 발견할 수 있다. 형식적으로 운을 차운하였을 뿐 아니라 내용면에 있어서도 손곡의 시상을 잘 살려 화답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시는 박순에게 지어준 시이다.

十年來往誤天恩	십 년 出退하며 임금 은혜 어겼거늘,
春半那堪夢故園	어이 견딜까 한창 봄에 고향 그리움.
主聖正開言者路	임금님 성스러워 언로 열어주셨는데,
臣迷不識寵之門	신하가 불초하여 은총인 줄 모른다네,
三章解紱辭丹闕	세 번 소 올려 인끈 풀고 대궐문 나서,
匹馬嘶風度綠原	필마로 바람 가르며 푸른 언덕 왔다네.
黃閣故人情意重	재상인 친구는 정과 뜻이 깊어서,
碧雲吟罷暗銷魂 <sup>101)</sup>	푸른 구름 읊더니 어느새 넋을 잃네.

박순은 동서 분당이 심할 무렵 율곡과 성혼을 변호하다가 西人으로 지목되어 탄핵을 받고서 永平의 白雲山에 은거하였던 인물이다. 당시 율곡은 대사간으로 召命을 받았으나 세 번 상소 끝에 謝恩하고 물러나서 파주로 돌아가게 된다. 이 시는 대궐을 하직하고서 사암을 만나서 자신의 심정을 담아 지은 시이다. 首聯에서는 벼슬을 除授받고도 늘 謝恩하고 물러났던 자신의 행

100) 李達, 『孫谷詩集』卷六, <七言絕句>.

101) 李珣, 『全書』卷二, 「詩下」, <呈朴思菴相公淳>.

동에 대해 不忠이라고 여기면서도 귀향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없음을 표현하였다. 頷聯과 頸聯에서는 대사간으로 임명되었으나 세 번이나 상소를 올려 끝내 歸鄉하게 된 것을 읊었다.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반복하여 귀향하면서도 그것이 늘 신하된 도리를 잊고 임금의 은혜를 저 버린 것이라 자책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尾聯에서는 사암과의 우정이 두터움을 읊었다. 재상인 사암은 마음이 깊어서 푸른 구름을 읊더니 어느새 친구와의 이별을 생각하며 잠시 녀을 잃는다. 율곡의 또 다른 시<sup>102)</sup>에서도 ‘碧雲’은 이별의 이미지로 쓰였던 시어이다. 필마로 바람을 가르며 언덕을 달려온 벗과의 이별을 앞두고 茫然해 있는 사암의 모습에서 둘의 우정과 서로에 대한 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스님과 교류하면서 지은 시이다.

昔年流宕愛山水  
 遠遊不得毛生脛  
 竹杖芒鞋淡行裝  
 負笈相隨惟智正  
 同穿白雲入楓岳  
 萬二千峯雪相暎  
 搜奇探勝不暫休  
 泉石膏肓天與病  
 時時步憂碧海濤  
 笑指鯨波一銅鏡  
 踏盡關東一千里  
 天機一周回斗柄  
 我別湖山塵白深  
 師臥烟霞根境淨  
 爾來屈指過五年

옛날 떠돌아다닐 땐 산수를 좋아해,  
 정강이 털 달토록 멀리 돌아다녔네.  
 대지팡이에 털 갠 단출한 행장이라,  
 책 걸망 매고 따른 건 지정뿐이었지.  
 흰 구름 뚫고서 풍악산엘 들어서니,  
 일만 이천 봉마다 눈빛이 비추었네.  
 절경 찾아 잠시도 쉬지 않았던 건,  
 산수를 즐기는 불치의 천성이었지.  
 때로는 푸른 바닷가를 찾아 헤매다,  
 거울 같은 큰 물결 가리키며 웃었지.  
 관동 천릿길을 몽땅 답사하고 나니,  
 천기가 한 번 돌아 어느덧 봄이었어.  
 나는 호산 떠나 번뇌만 깊어졌는데,  
 대사는 산수에 누워 근경이 맑구려.  
 이 후로 세어보니 5년이 흘렀거늘,

102) 李珣, 『全書』卷一, 「詩上」, <次李達頷>.

道人訾咳無由聽  
南荒北極兩渺然  
繭足來尋情轉盛  
我時偷閒臥古寺  
只將黃嬾窮晨暝  
蹉然可喜況故人  
客裏相逢斯亦命  
瓶錫隨緣休便休  
禪窓連榻歡難罄  
朱樓步屨暝色來  
碧巖縱目春樵靚  
尋花傍水動相隨  
苔逕巖扉行不定  
時揮玉麈辨異同  
談邊矛盾紛縱橫  
憐師惑志未曾變  
不遵大路求捷徑  
法輪心印本無徵  
三界六道誰汝證  
吾家自有眞樂地  
不絕外物能養性  
求高立異總非中  
反身而誠可醒聖  
師聞此語始聽水  
漸似醉夢人呼醒  
低頭請讀子思書  
欲以墨名儒其行  
頭流雄鎮蟠地軸

도인의 기침 소리 들을 길 없었다네.  
남쪽 끝 북쪽 끝 소식이 아득했는데,  
튼 발로 찾아오니 정이 더욱 깊어라.  
나는 마침 여가 틈타 옛 절에 와서,  
다만 아침저녁으로 낮잠만 자던 터라.  
인기척도 기쁨진대 하물며 친구이라,  
객지에서 만난걸 보니 운명이구려.  
탁발하며 인연 닿는 대로 쉬었을 터,  
선창에 마주 앉으니 더없이 기쁘구나.  
붉은 누각 거닐다 해 저물기도 하고,  
푸른 산 둘러보며 봄단장도 감상하네.  
꽃 찾고 물 쫓아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끼 길 바위 문 정처 없이 쏘다녔네.  
때로 옥 총채 휘둘러 시비를 가리다가,  
모순된 말끝엔 분분히 논쟁도 벌이네.  
가없어라 대사의 의혹된 뜻 남아있어,  
큰 길 버려두고 지름길을 찾는구나.  
법륜도 심인도 본래 증거가 없으니,  
삼계와 육도는 누구라서 징험할까.  
우리 유가에는 본래 참된 낙지 있어,  
외물을 끊지 않고도 본성을 기른다네.  
고원하고 기이한 길 다 중도가 아니니,  
돌이켜 성실하면 성인에 이른다네.  
대사 내 말 듣고 처음엔 오싹해하더니,  
술에 취했던 사람이 점점 깨어나는 듯.  
고개 숙이고 중용 읽을 것을 청하니,  
묵가 이름으로 유가 행동하는 것일 뿐.  
두류산 웅장한 기세 지축 위에 서리어,

路指火維幽且窺  
 師今遮莫千萬峯  
 競秀爭流幾吟詠  
 臨流不堪懷抱惡  
 贈言何待殷勤請  
 但恨鉛槧廢已久  
 詩成苦乏詞鋒勁<sup>103)</sup>

남방을 가리키니 그윽하고 아득하네.  
 대사는 천만 봉우리 마음껏 다닐테니,  
 빼어난 절경을 얼마나 많이 읊으리오.  
 헤어지려니 회포를 차마 견딜 수 없어,  
 은근히 청할 때까지 어찌 기다릴까만.  
 한스럽구나! 오랫동안 글을 안 썼더니,  
 시는 지었는데 굳센 사기가 모자라네.

오래전 금강산을 함께 유람했던 지정대사와 이별을 맞아 써준 시이다. 내용상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단락은 첫째 구에서 열두째 구까지로 지정대사와 함께 했던 과거에 대한 회상이다. 대지팡이에 짚신을 짚어진 단출한 행장이지만 유일하게 함께 했던 지정대사에 대한 끈끈한 우정과 추억을 읊었다. 둘째 단락은 열셋째 구에서 스물둘째 구까지이다. 헤어진 지 5년 만에 다시 만난 기쁨을 읊었다. 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우정과 그리움을 느낄 수 있다. 삶의 길은 서로 다르지만 종교와 학문을 초월하여 우정을 나누는 벗임을 알 수 있다. 셋째 단락은 스물셋째 구부터 마흔 둘째 구까지이다. 기쁘게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낸 이야기이다. 이 단락은 내용상 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함께 자연을 즐긴 내용이고, 또 하나는 학문적 논쟁을 한 내용이다. 함께 자연을 즐기고 학문적 경향을 초월하여 허물없이 대화를 나누며 끈끈한 우정을 확인하는 모습이다. 마지막 단락은 함께하며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뒤로 하고 이별을 아쉬워하는 내용이다. 깊은 우정과 이별의 아쉬움이 묘사되어 있는 시이다.

다음 시 역시 스님에게 지어준 시이다.

103) 李珣, 『全書』卷一, 「詩上」, <贈山人智正>.

蟻動與牛鬪  
 寥寥同一聲  
 誰知淵默處  
 殷地海濤轟<sup>104)</sup>

개미가 움직이건 소가 싸움하건,  
 고요함 속에선 똑같은 소리일 뿐.  
 누가 알겠는가 깊은 침묵 속에선,  
 땅 뒤흔드는 파도 소리 요란할지.

귀가 어두운 노승의 시축에 쓴 시이다. 起句와 承句에서는 귀가 어두워 잘 들리지 않는 스님에게는 개미 움직임처럼 작은 소리도 소 싸움하는 큰 소리도 아무 차이가 없이 모두 똑 같음을 말하였다. 轉句와 結句에서는 노승 내면의 깊은 깨달음의 세계를 암시하였다. 지축을 흔들 정도로 요란한 법륜의 세계이기에 표면적으로는 침묵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절대적인 불법의 큰 울림은 세속적이고 상대적인 현실 세계의 울림과는 격을 달리한다. 때문에 큰 울림일수록 더욱 깊은 고요와 그 끝이 맞닿아있다. 노승의 귀가 어둡다는 현실적인 특징을 내면의 깊은 불법 세계와 대립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斜陽鼓角殷孤城  
 肅隊催班迺漢旌  
 絕域戴天承雨露  
 塞門韜甲會簪纓  
 翔風水鳥迎船舞  
 引路山雲旁馬輕  
 共仰前星垂遠耀  
 四方爭頌泰階平<sup>105)</sup>

저물녘에 고각 소리 고요한 성에 울리고,  
 정중히 군대 사열하여 사신 깃발 맞이하네.  
 먼 곳이지만 한 하늘이라 은택을 받았고,  
 변방엔 전쟁이 없어 고관들이 다 모였네.  
 바람 가르며 물새는 배를 맞이하여 춤추고,  
 길을 인도하는 산 구름은 말 옆에서 가볍네.  
 멀리서 온 사신들을 모두가 우러러 보며,  
 사방에서 앞 다투어 태평세대를 칭송하네.

위 시는 황홍현이 왕경민과 오는 길에 지은 시를 받아들고 율곡이 차운하여 지은 시이다. 율곡은 서문을 지어 '삼가 연도의 시들을 받아 보니, 구름비

104) 李珣, 『全書』 卷一, 「詩上」, <題老僧詩軸>.  
 105) 李珣, 『全書』 卷二, 「詩下」, <渡鴨綠江>.

단인 양 찬란합니다. 손을 씻고 받들어 읽으니 강바람이 입안에 불어오듯 바닷비가 불에 뿌리듯 상쾌하여 기쁜 마음을 가눌 길 없습니다. 대감의 말씀을 어길 수 없어 감히 거칠게 잡아 엮어 차운하여 올립니다<sup>106)</sup>라고 겸양한 뒤시를 짓는다. 首聯에서는 사신들을 맞이하는 모습을 묘사하였다. 頷聯에서는 우리나라가 비록 중국에서는 멀리 있는 나라이지만 같은 하늘을 이고 있어 중국 황제의 은덕을 받았다고 하여 겸양한 자세로 중국 사신들을 맞이하였다. 頸聯에서는 물새와 산 구름까지 사신들을 맞이하는 행렬로 감정이입을 시키고 있다. 尾聯에서는 중국 사신을 모두가 우러러 보며 앞 다투어 태평성대를 칭송한다는 극찬의 말로 상대를 존중하고 예우하면서 마무리 지었다. 沿途에서 짧은 시간에 차운하면서도 공경과 예우를 다하고 동시에 문학적인 능력까지 드러낸 詩才가 돋보인다. 시를 지어 중국의 사신을 대접하고 그로써 나라의 위상까지 빛내고 있는 華國의 시라 하겠다.

다음 시 역시 사신을 맞이하여 지은 것이다.

向晚發黃州	저녁때 쫘 황주를 출발하여서,
逶遲度阡陌	구불구불한 논둑길을 지나가네.
騰六爲淸路	눈발이 날려 길을 깨끗이 하니,
轉眄青山白	눈 깜짝할 사이 청산이 하얘지네.
瓊花點錦袍	옥빛 눈꽃이 금포에 떨어지니,
似媚天上客	천상에서 온 객에게 애교를 부리는 듯.
仙靈故催詩	선령이 짐짓 시재촉하는 것이니,
不愁霑漢節 <sup>107)</sup>	깃발 젖는다고 걱정하지 마시길.

首聯은 봉산을 지나는 길에 대한 묘사이다. 저물녘 황주를 출발하여 꼬불

106) 李珣, 『全書』卷二, 「詩下」. '伏承辱示 沿途諸作 雲錦爛然 盥手捧玩 爽若江風海雨 入于牙頰 無任忻幸之至 重違台教 敢構荒粹 次韻奉呈'

107) 李珣, 『全書』卷二, 「詩下」, <鳳山途中遇雪>.

꼬불한 논길을 지나왔다. 頷聯은 봉산에 눈이 내린 정경 묘사이다. 봉산 도중에 눈이 내려 눈발은 푸른 산을 순식간에 하얗게 물들여 길을 깨끗하게 닦아 주었다. 首聯과 頷聯이 봉산 도중에 대한 묘사와 눈이 내리는 사실에 대한 묘사라면 頸聯은 시상이 전환되어 눈발을 의인화하여 사신 행차와 관련을 맺었다. 굵은 눈발이 사신의 비단 옷자락에 내리니 이는 흰 눈이 사신들에게 아양을 부리는 것이라 하였다. 원접사로서 사신을 반기는 마음을 자연물인 눈발에 의탁한 것이다. 尾聯에서는 신선이 일부러 시를 짓게 하기 위해 뿌린 눈발이니 사신 행렬에 깃발이 젖을 것을 걱정하지 말라는 당부로 시상을 맺고 있다. 눈이 내린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詩想을 불러일으키고, 눈발에 사신을 반기는 마음까지 담아 그려낸 시이다.

이상에서 교유증답시를 살펴보았다. 외국 사신과의 차운시는 본래가 접대를 목적으로 하는 시이며, 스님과의 교유시 또한 대부분 스님의 요구에 의해 지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作詩를 즐기지 않았던 율곡이 성향이 잘 드러나 있으니, 글 짓는 것을 삼감으로써 重外輕內·玩物喪志를 경계하고 道를 敦篤히 하며 志氣를 和順하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던 것은 도학자로서의 면모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상 교유증답시를 통해 율곡의 주된 인간관계와 作詩에 대한 의지, 도학자로서의 면모까지도 살필 수 있었다.

## V. 栗谷의 風格과 美的 特質

고려시대 이후부터 韓國詩歌의 비평 척도는 風格論이었다. 風格은 원래 인물을 품평하던 말로 작품 품평에 移用되었으므로 작가의 풍격에 대한 연구가 풍격이론의 핵심이다. 풍격은 작가가 작품의 창작과정에서 형식과 내용을 융합하여 표현하는 총체적 특성, 곧 작가의 창작 개성 또는 작가의 성숙된 지표를 말한다. 또한 풍격은 한 작가나 작품에서 받는 총체적 인상을 총괄할 뿐 아니라, 한 유파 한 시대 한민족의 작품을 총괄하여 그 특색을 말하기도 한다.<sup>108)</sup>

율곡은 자신만의 미의식을 기준으로 『精言妙選』<sup>109)</sup>이라는 詩選集을 편찬하였다. 『精言妙選』은 율곡이 風格을 기준으로 選集한 詩選集으로써 이는 율곡의 풍격론일 뿐 아니라 나아가서 16세기 朝鮮詞壇의 풍격론의 결정판이기도 하다.<sup>110)</sup> 율곡의 『精言妙選』은 元亨利貞과 仁義禮知를 따서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현재 여덟 개의 풍격 중 知字集을 제외한 序가 남아있다.

이에 V장에서는 『精言妙選』의 風格과 栗谷 詩의 美的 特質로 나누어 『精言妙選』에 나타난 風格에 대해 그 特性을 고찰하고, 栗谷의 詩에서 발견되는 風格의 特質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韓國詩歌에서 중요한 비평 척도이면서도 본질적인 모호성으로 인해 쉽게 이해할 수 없었던 풍격론에 대한 규명에 일조한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108) 梁光錫, 『漢詩論의 理解』, 「序文」, (民族文化文庫, 2006).

109) 『靜言妙選』 木版本으로는 서울대학교 규장각 一蓑文庫本(存卷 1, 3, 5)·연세대학교 도서관본(存卷 1, 3, 5)이 있고, 筆寫本으로는 연세대학교 도서관본(存卷 1, 2, 3, 4, 5)이 있으며, 그리고 김남형 교수 소장본(存卷 1, 2, 3, 4, 5, 6, 7)·대구 개인 소장본(存卷 1, 3, 5) 등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연세대학교 도서관본의 귀중본 분류로 인한 열람불가와 개인 소장본의 열람불가로 인해 서울대학교 규장각 一蓑文庫本과 기대완이 譯註한 『靜言妙選』(보고사, 1999)을 참고로 하였음을 밝혀둔다.

110) 이민홍, 『泮橋語文研究 제4집』, 「退溪詩歌의 品格 研究」, 1992.

## 1. 『精言妙選』의 風格

『精言妙選』은 1573년(38세)에 율곡이 고향인 坡州 栗谷과 처가인 海州 등지에서 병을 치료하고 있었을 때 편찬한 中國詩選이다. 漢代에서 宋代에 걸친 중국 시인의 漢詩를 風格別로 選集하였다. 맨 앞에는 「序文」이 있고, 각 풍격을 元·亨·利·貞·仁·義·禮·知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각 풍격별 總叙를 쓰고 각 풍격에 해당하는 시들을 오언고시·칠언고시·오언율시·칠언율시·오언절구·칠언절구의 순서로 배열하였다. 『精言妙選』은 여느 詩選集과는 달리 風格을 분류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율곡의 문예미학에 대한 관점은 물론 16세기 사림파의 문예미학까지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하겠다.

율곡은 科擧에 몰두하고 조탁과 기교를 숭상하는 당시 문단 상황을 문학의 위기라고 진단하고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주자학적 문학이론을 확립함으로써 문학의 본질을 확립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다. 그리하여 조충전각의 공교함과 부화함을 배격함으로써 당시 문단의 풍토와 경향을 비판하였다.

다음 예문은 율곡이 당시 문단 상황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아! 程朱가 죽고 나자 道通이 마침내 끊어져 사람들은 도를 듣고자 하는 뜻이 없고 선비는 남에게 인정받기 위한 학문만을 추구하였다. 재주가 뛰어난 사람은 詞章만을 일삼고 재주가 부족한 사람은 科場으로만 분주하니, 육경은 祿을 구하는 도구가 되었고 仁義는 머나먼 길이 되어 문은 도를 쫓는 그릇이 되지 못하고 도는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 되지 못하였다. 문장의 폐단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世道の 성쇠를 따라서 알 수 있다. 폐단이 생긴 이유는 반드시 원인이 있으니, 지금 인재를 뽑는 방법은 다만 과거 보이는 한 가지 방법뿐이다. 비록 천하를 다스릴만한 재주와 나라의 정치를 행할만한 기량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구차하게 이 길을 거치지 않으면 마침내 벼슬에 참여할 수가

없다. 저 安分知足하며 도를 즐기는 사람들이 어찌 고개를 숙이고 뜻을 굽혀 그 得失과 憂樂을 따져 한명의 試官의 안목에 얽매이고자 하겠는가. 이것이 眞儒는 나오지 않고 俗儒만 날로 불어나는 이유이다. 이 뿐만이 아니라, 이른바 과거의 문이란 것은 표준과 정도가 있어 비록 변화무쌍한 문장이나 아름다운 글이라도 표준과 정도에 맞지 않으면 곧 내쳐버린다. 저 名利에만 급급한 선비들이 누가 자신이 지키고 있던 절개를 버리고 남의 이목만을 맞추려고 하지 않겠는가.<sup>111)</sup>

재주가 뛰어난 사람은 詞章만을 일삼고 재주가 부족한 사람은 科場으로만 분주하여 眞儒가 나올 수 없는 현실을 한탄하고 있다. 그리고 당시 문단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科文의 폐단에 대해 언급하였다. 율곡이 科文을 긍정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안분지족하며 도를 즐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기 위해 과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또 하나는 科擧之文은 일정한 표준과 정도가 있어서 그것에서 벗어나면 아무리 훌륭한 문장이라 하더라도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인제가 진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과거를 보는 길 밖에 없지만 과거의 폐단으로 인해 성현의 문장은 물론이거니와 華國의 문장조차도 구할 수 없다고 그 폐단을 강조하였다.

이렇듯 詞章만을 일삼고 科文에 주력하는 당시 문단 상황에 대한 비판과 문학의 본질을 확립해야한다는 시대소명이 『精言妙選』 창작의 이유로 보여진다. 즉, 당시 문단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여 사림과 문학의 일반적인 미의식을 논리적으로 정립함으로써 사림과 문학 이론을 체계화하고, 詩道를 새

111) 李珣, 『全書』, 「拾遺」卷六, <文策>. ‘嗚呼 程朱已歿 道統遂絕 人無聞道之志 士趨爲人之學 才高者 專事乎詞章 才短者 奔走乎科場 六經爲干祿之具 仁義爲迂遠之路 文不爲貫道之器 道不爲經世之用 文弊至此 則世道之汙隆 從可知矣 其所以爲弊者 必有所自矣 今之取人 只有科擧一路而已 縱有經綸之才 廟堂之器 苟不由是路 則終不與於清班 彼囂囂樂道之流 孰肯俛首屈志 繫其得失憂樂於一夫之目哉 此所以眞儒不出 俗儒日滋者也 不寧惟是 所謂科擧之文者 有規矩 有程度 縱有波瀾之文 瓊玉之詞 苟不合於規矩程度 則輒斥去焉 彼汲汲於名利者 孰不改其所守而循人之耳目哉’

롭게 정립함으로써 작시의 전범을 제시하고자 하였던 것에서 『정언묘선』의 창작 동기를 찾아볼 수 있겠다.

율곡이 『精言妙選』에서 제시한 여덟 개의 풍격은 그 성격상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앞에 제시한 冲澹蕭散·閒美清適·清新灑落이 시의 본질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면 뒤에 제시한 用意精深·情深意遠·格詞清健·精工妙麗는 작시에 있어서 단련의 기법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는 율곡이 추구하는 문학적 이상과 당시 문단에서 풍미하고 있었던 문예 이론을 융합하여 종합하고자 하였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문학적 이상과 문학적 본질의 융합, 그리고 작시의 전범과 작시의 현실을 조화시킨 결과물이 『精言妙選』이라 할 수 있겠다.

율곡은 여덟 개의 풍격을 제시하였으나, 현재 「知字集」은 유실되어 그 내용이 전하지 않는다. 그로 인해 「知字集」은 명확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관계로 본고에서는 남아있는 일곱 개의 풍격을 가지고 『精言妙選』에서 제시한 풍격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일곱 개의 풍격은 성격상 詩的 典範의 提示와 作詩의 現實 收容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 詩的 典範의 提示

율곡은 文以形道라 하여 문장이란 억지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 속에서 온축된 도가 샘물처럼 흘러나오는 것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조탁과 기교를 중시하던 훈구파에 대한 비판임과 동시에 율곡이 추구한 문학적 이상이자 문학에 대한 典範의 제시로 볼 수 있다. 朱子는 시의 원류인 漢魏古詩로의 복고를 통해 성정의 유로라는 시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율곡은 이러한 주자의 시론을 추승하고 있다. 그리하여 古詩에서 시의 본원을 찾고자 하는 실천의 일환으로 『精言妙選』을 창작하였고, 『精言妙選』에서 전범이 될 만한 풍격을 앞에 배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沖澹蕭散·閒美清適·清新灑落은 율곡이 제시한 시의 전범에 해당하는 풍격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음은 「元字集」 序이다.

元字集에서 뽑은 시는 沖澹蕭散을 위주로 하였다. 꾸미는 것을 일삼지 않아 자연스러운 가운데 묘한 흥취가 깊게 있는데 古調와 古意는 아는 이가 드물다. 唐宋 이래로 여러 작품들은 풍격이 혹 고시에 미치지 못하기도 하고 간혹 근체시도 있지만 모두 억지로 조탁한 기교가 없고 절로 성률에 맞기 때문에 함께 뽑았다. 원자집을 읽으면 담박함을 맛볼 수 있고 希音을 즐길 수 있으니 시 삼백 편에 남아있는 뜻이 진실로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sup>112)</sup>

沖澹蕭散의 기준은 不事繪飾과 妙趣이다. 司空圖는 <二十四詩品>에서 두 번째 風格으로 沖澹을 꼽았다. 沖澹은 감정이 고상하고 생각이 원대하며 몸을 잊고 마음에 집착이 없는 것이 시에 반영되어 자아내는 美感<sup>113)</sup>이다. 蕭散은 자연스럽고 구속됨이 없어 한가한 것이다. 朱熹는 『文選』의 選詩를 詩道가合一된 詩<sup>114)</sup>로 보았다. 율곡 역시 5언 고시는 꾸며서 된 것이 아니라 마음에 和氣가 가득해서 절로 넘쳐 나온 것이라고 보았으니, 「원자집」에 選詩한 113수의 시 중에서 5언 고시가 86수를 차지하는 것<sup>115)</sup>은 이를 뒷받침한다.

다음 예문은 朱子の 말이다.

---

112) 李珣, 『全書』, 「拾遺」卷四, 「雜著一」, <精言妙選總敘>. ‘元字集曰 此集所選 主於 沖澹蕭散 不事繪飾 自然之中 深有妙趣 古調古意 知者鮮矣 唐宋以下諸作 品格或不逮古 閒有近體 而皆無雕琢之巧 自中聲律 故並選焉 讀此集 則味其淡泊 樂其希音 而三百之遺意 端不外此矣’

113) 車柱環, 『中國詩論』, (서울대출판부, 1999). p.97.

114) 梁光錫, 『漢詩論의 理解』, 「序文」, (民族文化文庫, 2006) 참조.

115) 김병국, 『고전시가의 미학 탐구』, (月印, 2000). p.45.

시를 지을 때 모름지기 도연명과 유종원으로부터 나와야 좋다.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소산충담한 풍취가 없을 것이다. 세속에 몸을 움츠리는 것을 면하지 못하면 고인의 훌륭한 곳에 이를 수 없다.<sup>116)</sup>

‘세속에 몸을 움츠리는 것을 면하지 못하면 고인의 훌륭한 곳에 이를 수 없다.’라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충담이란 세속에 몸을 움츠리는 것을 면해야 얻을 수 있는 풍격이라는 의미이다. 이는 충담소산이 시인의 탈속적인 삶에서 우러나는 풍격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도연명의 탈속적인 삶에 대한 반증이다. 著者未詳의 <二十四詩品詳註>에서는 陶淵明이 이 풍격을 가장 잘 나타냈다고 하였고, 唐代 시인 중에서는 王維·儲光羲·韋應物·柳宗元の 시가 冲澹에 가장 가깝다고 했다.<sup>117)</sup> 종합해보면 陶潛·王維·儲光羲·柳宗元·韋應物 등이 충담의 풍격을 잘 살린 시인으로 집약된다. 실제로 「원자집」에서 뽑은 시 중에 도연명과 왕유, 그리고 위응물의 시가 다수를 차지<sup>118)</sup>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 근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공자는 繪事後素<sup>119)</sup>라 하여 그림 그리는 일은 흰 비단을 마련하는 것보다 뒤에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不事繪飾은 繪事後素라는 공자의 人性論이 문학적으로 변용된 詩論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그리는 일은 흰 비단을 마련하는 것보다 뒤에 하는 것이다’라는 인성론은 ‘언어적 수식은 시인의 性情이 갖추어진 것보다 뒤에 하는 것이다’라는 시론과 그 형태가 유사함을 발견할 수 있다. 즉, 不事繪飾은 단순히 繪飾을 배격한 것뿐만이 아니라 순수한 天理인 道心이 바탕이 되고, 언어적 수식은 그 뒤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朱東潤은 「司空圖詩論綜述」에서 24종의 風格을 내용상으

116) 朱熹, 『朱子讀書法』卷三, 『欽定四庫全書』. ‘作詩須從陶柳門庭中來乃佳耳 盖不如是不足以發蕭散冲澹之趣 不免於局促塵埃 無由到古人佳處也’

117) 車柱環, 『中國詩論』,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p.97.

118) 『精言妙選』에 실린 시의 시대별 작자의 작품 분포는 김병국, 『고전시가의 미학 탐구』에 나와 있는 도표를 참조하였다. 도연명 18수, 위응물 17수, 맹호연 4수 왕유 4수 임. 119) 『論語』, 「八佾」.

로 분류하면서 冲淡을 ‘詩人の 生活을 논한 것’에 분류하였다.<sup>120)</sup> 이는 충담이 단순히 시의 풍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인의 일상적 삶이 詩作 활동을 함께 있어서 자연스럽게 유로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종합하면 충담소산은 순수하고 오염되지 않은 시인의 삶이 바탕이 되고, 시인의 가슴에 가득한 기운이 자연스럽게 유로되어 아무런 꾸밈이 없는 풍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충담한 것으로써 으뜸을 삼아 원류의 유래한 바를 알게 했다’<sup>121)</sup>라고 序에서 밝혔듯이, 충담소산은 율곡이 추구하는 최고의 풍격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亨字集」 序이다.

亨字集에서 뽑은 시는 閒美淸適을 위주로 하였다. 조용히 절로 터득한 것이 문득 이는 흥에서 나온 것이니 사색으로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형자집을 읽으면 마음과 기운이 평화로워져서 작은 수레를 타고 꽃과 풀이 피어있는 길을 마음 가는 대로 다니는 것 같아 세상의 화려한 권세와 이익은 경시하게 된다.<sup>122)</sup>

閒美淸適한 풍격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自得과 寓興이다.

다음 예문은 『詩人玉屑』에서 「自得」을 설명해 놓은 것이다.

시는 函得한 것을 읊조리는 것이니 절로 터득한 것이 있는 곳에 이르는 것은 조물주가 만물을 내는데 온갖 꽃과 풀들이 한 물건 한 모습으로 이름 지어지지 않는 것과 같다. 만약 앞 사람을 베끼고 엮매여 自得함이 없으면 단지 세상에 아름다운 모든 꽃들을 하나의 모양으로 보아 하나만을 얻는 것과 같을

120) 팽철호, 『사공도 <이십사시품> 연구』, (서울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86), p.35 재인용.

121) 李珣, 『全書』 卷十三, 「序」, <精言妙選序>. ‘冲淡者爲首 使知原流之所自’

122) 李珣, 『全書』, 「拾遺」 卷四, 「雜著一」, <精言妙選總敘>. ‘亨字集曰 此集所選 主於閒美淸適 從容自得 出於寓興 非思索可到 讀此集 則心平氣和 如乘小車 隨意行于花蹊草徑 而勢利芬華 視之邈矣’

뿐이다.<sup>123)</sup>

시는 자득한 것을 읊조리는 것이며, 자득이란 자연의 조화로 만들어진 만물이 하나도 같은 모양이 없는 것과도 같은 것이라고 하였다. 모방과 자득을 구별하여 자득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명하였다. 宋의 程顥는 <秋日偶成>이라는 시에서 ‘萬物靜觀皆自得 四時佳興如人同’이라 하였다. 조용히 관조하면 만물의 이치를 절로 터득할 수 있고 사시가 변화하면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흥은 사람의 인간사와도 같다는 것이다. 조용히 관조하는 것은 송나라 도학자들의 전형적인 학문 방법이다. 이는 日月星辰을 보고 하늘의 이치를 터득하고 山水의 모양을 보고 땅의 이치를 터득하면 사람의 이치도 그 속에 있어 자연의 이치와 사람의 이치가 하나라는 견해이다. 즉, 천지자연을 조용히 관조하면 우주 조화에 참여하게 되어 인간도 하늘과 같을 수 있다는 天人合一의 경지를 의미한다. 율곡은 作詩에 있어서도 학문 방법과 동일하게 自得과 寓興을 중요시하고 있다. 흥이란 외물에 접하여 마음이 감응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청적에서의 흥은 외물과의 접촉이 아닌 조용히 자득한 가운데 절로 일어나는 흥이라 하였다. 외적인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내적인 깨달음이 일어난 흥인 것이다. 한미청적에서의 흥은 조용히 관조함으로써 자연과 하나가 되어 절로 일어나는 흥으로써, 관조를 통하여 절로 이는 흥이 流出되어 지어진 시이기 때문에 형이하학적인 세속성이 자리할 틈이 없다. 그로 인해 세속적인 권세와 이익을 경시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은 「利字集」 序이다.

利字集에서 뽑은 시는 清新灑落을 위주로 하였다. 매미가 바람과 이슬 속에

---

123) 魏慶之, 『詩人玉屑』 卷之十, 「自得」, (韓國漢詩研究院, 1992). p. 220. ‘詩吟函得 到自有得處 如化工生物 千花萬草 不名一物一態 若摸勒前人 無自得 只如世間剪裁諸花 見一件樣 只做得一件也’

서 허물을 벗은 듯하여 불에 익힌 음식을 먹는 인간의 입에서 나온 것 같지 않다. 이자집을 읽으면 창자와 밥통 속 비릿한 피를 한번에 씻어 낼 수 있고 정신은 밝고 뼈는 맑아져서 인간세상의 썩어 구린 것이 내 마음을 번거롭게 할 수가 없다.<sup>124)</sup>

清新灑落한 풍격의 특징으로 ‘蟬蛻風露’를 들고 있다. 蟬蛻는 자신의 몸을 깨끗이 하여서 더러운 무리에 합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몸을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매미가 바람과 이슬 속에서 허물을 벗은 듯하다는 것은 속세 인간의 俗氣가 없는 탈속적 경지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다음 예문은 蟬蛻에 대한 설명이다.

스스로 진흙을 씻어내고 멀리하는 가운데 더러운 진흙에서 매미가 허물을 벗고 속세 밖에서 노니네.<sup>125)</sup>

매미가 더러운 진흙에서 허물을 벗고 속세 밖에서 노닌다고 하여 蟬蛻가 탈속적인 경지를 의미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풍격론에서 ‘淸’은 운치나 기운이 맑고 속됨이 없으며 표현이 잡스럽지 않고 깔끔한 것을 나타내는 풍격이라고 할 수 있다.<sup>126)</sup> 종영의 『詩品』에서 사용된 ‘淸’과 관련된 評語는 淸捷·淸遠·淸拔·淸靡·淸便·淸怨·淸上·淸雅·淸潤<sup>127)</sup> 등으로 이때의 ‘淸’

124) 李珣, 『全書』, 「拾遺」卷四, 「雜著一」, <精言妙選總敘>. ‘利字集曰 此集所選 主於清新灑落 蟬蛻風露 似不出於煙火食之口 讀此集 則可以一洗腸胃葷血 而魂瑩骨爽 人間臭腐 不足以累吾靈臺矣’

125) 『史記』, 「屈原賈生列傳」. ‘自疏濯淖汙泥之中 蟬蛻於濁穢 以浮游塵埃之外’

126) 정요일의, 『고전비평용어연구』, 「漢詩批評에 있어서 詩品 研究」, (太學社, 1998).

127) 鍾嶸지음/林東錫 옮김, 『詩品』, (학고방, 2003). 「漢婕妤班姬詩」에서 ‘淸捷’, 「晉中散嵇康詩」의 ‘淸遠’, 「晉太尉劉琨晉中郎蘆諶詩」의 ‘淸拔’, 「宋徵士陶潛詩」의 ‘淸靡’, 「梁衛將軍范雲梁中書郎丘遲詩」의 ‘淸便’, 「梁左光祿沈約詩」의 ‘淸怨’, 「晉徵士戴逵詩」의 ‘淸上’, 「宋光祿謝莊詩」의 ‘淸雅’, 「齊僕射江祐詩」의 ‘淸潤’

은 맑고 깨끗하며 산뜻한 風格을 설명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청신쇄락에서도 속세의 찌든 때가 제거된 상태의 俗氣없음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맑고 깨끗하다는 것은 心身 양면의 淸淨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신적인 청정 뿐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청정을 포함함으로써 세속적인 일상을 제거한 삶 자체의 청정을 추구 하고 있는 풍격임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종합하면 淸新灑落이라는 풍격은 말 그대로 맑고 새로우며 속되지 않은 것이다. 때문에 그로 인한 효용은 몸과 정신이 모두 맑아져서 마음의 번뇌를 씻어주게 되는 것이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충담소산, 한미청적, 청신쇄락 세 풍격은 시인의 삶이 반영되어 있는 풍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沖澹蕭散은 시인의 일상적 삶이 詩作 활동을 함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유로되는 것임을 살펴보았다. 율곡은 「형자집」을 읽은 효용으로 세속적인 권세와 이익을 경시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는 逆으로 세속성이 제거된 상태여야 한미청적한 풍격의 시를 지을 수 있다는 의미와도 相通한다. 시를 읽은 독자에게 세속성을 제거시키는 효용이 있으려면 시를 짓는 시인은 이미 세속성이 제거된 상태여야 한다는 의미가 깔려있다. 때문에 세속적이지 않은 순수하고 고결한 시인의 삶은 閒美淸適한 시의 바탕이 된다고 하겠다. 「諸家記述雜錄」을 보면 ‘정암과 율곡은 타고난 자질이 모두 탁월하고 명석한 편에 속한다. 그러나 정암은 간중온률하고 율곡은 청통쇄락하다.’<sup>128)</sup>라고 하여 율곡의 인품을 淸通灑落이라고 평하였다. 청통과 쇠락이 인품을 논하는 비평용어임을 알 수 있으니, 청신쇄락 역시 시인의 인품에 근본을 두고 있는 風格임을 알 수 있다. 시인의 삶이 시의 풍격을 형성한다 여기는 율곡의 문학인식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시인의 삶과 인성을 바탕으로 하여 나오는 풍격인 까닭에 조탁이나 수식으로 이를 수 없는 것이며, 율곡이 시의 전범으로 여긴 이유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28) 李珣, 『全書』卷三十八, 「附錄六」, <諸家記述雜錄>. ‘靜菴栗谷 大資皆屬高明 然靜菴簡重溫栗 栗谷淸通灑落’

## 2) 作詩의 現實 收容

율곡이 『精言妙選』에서 뒤에 제시한 用意精深·情深意遠·格詞清健·精工妙麗는 作詩의 方法과 관련 있는 風格이다. 이는 일면 훈구파의 文學적 견해를 수용함으로써 기존 문단의 경향을 절충 융합한다는 의미와 作詩의 方法 연마를 통한 시의 학습이라는 현실을 감안한 風格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렇듯 기존 문단의 경향과 작시의 현실성에 대한 수용은 선초부터 이어져 내려온 강서시파에 대한 높은 관심과도 무관하지는 않은 듯하다. 15세기 후반부터 황정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16세기 전반에 황정견의 문집이 거듭 간행되고 성종 연간부터는 강서시파가 일시를 풍미하게 된다. 文學이란 천재적인 재능으로 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연마를 통해서도 좋은 시를 쓸 수 있다는 詩法은 초학자들에게 매력적인 시론이었으며, 이로 인해 강서시파를 통해 시를 배우고자 하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어났다.<sup>129)</sup> 鄭士龍·盧守愼·黃廷彥·崔立 등은 당시에 걸출했던 문인들으로써 이들은 黃庭堅과 陳師道를 학습하여 文名을 떨쳤던 인물들이다. 이렇듯 作詩의 方法과 관련된 風格을 후반부에 싣고 있는 것은 당시 문단에 일고 있는 강서시파의 열풍을 반영하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리고 기존의 문예이론을 수용 정리 종합한다는 의미에서도 구어단련 등 작시의 방법과 관련 있는 風格은 율곡이 수용해야 할 가치가 있었다고 보여 진다. 율곡은 文學에 있어서 造탁과 수식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미의식은 文學의 본질이며, 율곡도 이를 인정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여 진다. 詩의 본원을 회복하기 위해 편찬한 『精言妙選』에서 精工妙麗와 같이 미의식과 관련된 風格을 수용했던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作詩의 現實 收容은 기존 문단의 문예이론 수용과 文學적 본질의 이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겠다.

다음은 「貞字集」 序이다.

---

129) 이종목, 『한국 한시의 전통과 문예미』, (太學社, 2002).

貞字集에서 가려 뽑은 시는 用意精深을 위주로 하였다. 글귀가 다듬어지고 풍격과 도량이 엄격하게 정돈되어 간혹 묘한 의론에 이른 것도 있으니 일상의 마음으로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자집을 읽으면 은미한 세계를 찾아 볼 수 있어서 생각이 절로 친근해지지 않는다.<sup>130)</sup>

用意精深한 풍격의 가장 큰 특징은 造妙之論이다. 이는 句語鍛鍊과 格度嚴整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다. 구어단련이 外的 요건이라면 격도엄정은 內的 요건이다. 묘한 의론에 이르는 것은 세속적인 정서로는 미칠 수 없는, 일상성을 뛰어넘는 詩情이 있어야 가능하다. 유희는 ‘精約’은 字句를 엄격하게 살펴 세밀한 부분까지도 분석하는 것<sup>131)</sup>이라고 하였다. 용의정심의 시적 효용으로 은미한 세계를 찾아볼 수 있다고 한 것은 ‘精’자가 갖는 이러한 특성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생각이 친근해지지 않는 효용은 일상성을 뛰어넘는 詩情으로 지어진 시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다.

다음 예문은 『詩人玉屑』에서 「用意深遠」에 대해 싣고 있는 글이다.

소철이 만년에 사람들로 하여금 유우석의 시를 배우게 했으니, 용의심원하여 문장 내용이 깊고 변화가 많다고 여겨서이다. 후에 몽득의 역양시를 보니 (중략) 어의가 웅건하여 뒤에 거의 잇기가 어려웠다.<sup>132)</sup>

유우석의 시가 ‘용의심원하여 문장 내용이 깊고 변화가 많다’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用意精深의 특징으로 들었던 造妙之論의 의미를 추론할 수 있으니, 造妙之論하다는 것은 문장의 내용이 깊고 변화가 많다는 의미로 볼 수

130) 李珣, 『全書』, 「拾遺」卷四, 「雜著一」, <精言妙選總敘>. ‘貞字集曰 此集所選 主於用意精深 句語鍛鍊 格度嚴整 間有造妙之論 非常情所可企及者 讀此集 則可以探微見隱 而意思自不淺近矣’

131) 유희, 『문심조룡』, 「體性」. ‘精約者 覈字省句 剖析毫釐者也’

132) 魏慶之, 『詩人玉屑』卷之十五, 「用意深遠」. p.338. ‘蘇子由晚年多令人學劉禹錫詩 以爲用意深遠 有曲折處 後因見夢得歷陽詩云 (中略) 言意雄健 後殆難繼也’

있겠다.

다음 문장은 句語鍛鍊의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贈同遊」에 ‘일어나라 부르니 창은 완전히 밝았고, 돌아가라 재촉해도 해는 아직 지지 않았네. 무심한 꽃 속의 새야, 다시 나와 함께 정을 다해 울어다오.’라 하였다 산곡이 말하기를 내가 어려서 이 시를 읽을 때마다 그 뜻이 끝내 이해되지 않았었다. 峽川으로 귀양 갈 때 내 나이 58세였다. 때는 늦봄이라 이 시를 생각하고서 겨우 그 뜻을 깨닫게 되었다. 환기와 최귀는 두 새의 이름인데 그냥 쓴 말 같다.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다. 옛 사람이 짧은 시에서 용의정심한 것도 이와 같은데 하물며 긴 시에 있어서라. <중략> 이 시에서 환기와 최귀는 진실로 두 새의 이름이다. 그러나 함께 노니는 이에 게 준다라고 제목한 것은 진실로 은미한 뜻이 있다. 대개 창이 이미 완전히 밝았는데 새가 이제 막 불러일으키니 어찌 더디지 않은가. 해가 아직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새가 이미 재촉해서 돌아가라고 하니 어찌 빠르지 않은가. 어찌 두 새가 무심하여 함께 노는 사람의 뜻을 알지 못한 것이겠는가. 다시 나와 함께 정을 다하여 울어서 일찍 불러일으키고 더디 재촉하여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다.<sup>133)</sup>

『詩人玉屑』에서 용의정심한 시로 든 예이다. 한유의 <贈同遊>에서 ‘喚起’와 ‘催歸’라는 두 시어는 ‘일어나라 부르니, 돌아가라 재촉해도’라고 해석되어 늦봄을 보다 많이 즐기고자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동시에 <贈同遊>라는 제목을 통해 두 시어가 새의 이름임을 암시하였다. 이렇듯 하

133) 魏慶之, 『詩人玉屑』卷之六, 「命意-用意精深」. p.130. ‘贈同遊詩 <喚起窗全曙 催歸日未西 無心花裏鳥 更與眞情啼> 山谷曰 吾兒時每哦此詩 而了不解其意 自謫峽川 吾年五十八矣 時春晚 憶此詩 方悟之 喚起 催歸 二鳥名若虛設 故人不覺耳 古人於小詩 用意精深如此 況其大者乎 (中略) 此詩 喚起 催歸 固是二鳥名 然題曰贈同遊者 實有微意 蓋窗已全曙 鳥方喚起 何其遲也 日猶未西 鳥已催歸 何其蚤也 豈二鳥無心 不知同遊者之意乎 更與我盡情而啼 早喚起而遲催歸可也’

나의 시어에 이중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시의 의미를 더욱 깊고 은미하게 하였다. 황정견은 이렇듯 하나의 시어에 이중 의미를 담아 시인의 깊은 마음을 표현한 것을 용의정심한 시라고 평가한 것이다. 句語鍛鍊이란 이렇듯 다의적 시어를 통한 깊은 詩情을 묘사한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이상에서 용의정심은 정교하고 다의적인 시어로 문장의 내용이 깊고 변화가 많음으로써 섬세한 詩情을 담아내고 있는 풍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仁字集」 序이다.

仁字集에서 가려 뽑은 시는情深意遠을 위주로 하였다. 문득 맞닥뜨린 경치나 일에 대해 가슴속 감회를 묘사 표출하는데 있어 원망하되 도리에 어긋나지는 않고 슬퍼하되 마음은 상하지 않는다. 인자집을 읽으면 고요하게 오래 생각하고 구슬프게 탄식하지 않음이 없어서 옛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니 원망하고 음란 방종하는 잘못이 절로 없을 것이다.<sup>134)</sup>

情深意遠한 풍격은 외적 자극에 대한 내적 정서의 반응으로 표출되어진 풍격이다. 유희은 문장을 지을 때 경서를 모범으로 삼는다면 문장의 체제에 있어서 六義를 갖추게 된다고 하였다. 그 첫째가 바로 정이 깊어서 그릇되지 않는 것<sup>135)</sup>이다. 정심의원한 시가 내적인 감회를 표출하되 ‘怨而不悖 哀而不傷’한 것은 바로 정이 깊고 두터워서 그릇됨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仁字集」을 읽은 효용으로 지나친 감정의 낭비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잘못된 행동양식이 없을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 근거한다고 하겠다. 皎然은 『詩式·辨體有一十九字』에서 遠은 아득히 물을 바라보거나 멀리 산을 보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속이 멀고 고요

134) 李珣, 『全書』, 「拾遺」卷四, 「雜著一」, <精言妙選總敘>. ‘仁字集曰 此集所選 主於情深意遠 卽景卽事 寫出襟懷 怨而不悖 哀而不傷 讀此集 則未嘗不穆爾長思 悽然興歎 求獲古人之心 而自無怨懟淫放之失矣’

135) 유희, 『문심조룡』, 「宗經」. ‘文能宗經 體有六義 一則情深而不詭’

한 것을 말한다<sup>136)</sup>고 하였다. 멀다고 하는 것은 깊고 고요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요약하면 정심의원한 시는 외적인 자극에 반응한 내적 정서의 표출로 지어지되 ‘怨而不悖 哀而不傷’하여 깊고 고요한 마음에서 나오는 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다음은 「義字集」 序이다.

義字集에서 가려 뽑은 시는 格詞淸健을 위주로 하였다. 필력이 힘차면서도 급박한 뜻이 없어 엄정하면서 깊은 맛이 있다. 의자집을 읽으면 기운이 솟고 정신이 나서 게으른 사람도 뜻을 세울 수 있고, 속된 사람도 고상한 정취를 일으킬 수 있다.<sup>137)</sup>

格詞淸健한 풍격의 기준은 ‘凝遠之味’이다. 이는 ‘筆力遒勁而 無急迫之意’로 인한 결과이다. 朱熹는 筆力은 이십 세 이전에 정해져서 길러지는 것이다<sup>138)</sup>라 하였고, 『詩人玉屑』에서도 筆力은 고상하고 묘하여 거의 天性과도 같다<sup>139)</sup>라 하여 필력이 천성임을 언급하였다. 筆力은 유희이 말한 風骨과도 의 미상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예문은 『문심조룡』에서 「風骨」에 대해 언급한 글이다.

詩에는 六義가 있으니 風이 그 으뜸이다. 이것은 곧 感化를 시키는 근원이며 志氣의 상징이다. 때문에 슬픔으로 情을 서술할 때는 반드시 風에서 시작하며 깊이 읊조리고 글을 지을 때는 骨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러므로 문사가

136) 팽철호, 『중국고전문학풍격론』, (사람과 책, 2001).

137) 李珣, 『全書』, 「拾遺」卷四, 「雜著一」, <精言妙選總敘>. ‘義字集曰 此集所選 主於 格詞淸健 筆力遒勁 而無急迫之意 有凝遠之味 讀此集 則氣聳神揚 而懶夫可以有立志 鄙夫興雅趣矣’

138) 朱熹, 『朱子語類』卷一百三十九, 「論文(上)」, <文>. ‘筆力到二十歲許便定了 便後來長進也’

139) 魏慶之, 『詩人玉屑』卷之六, 「造語」. p.136. ‘其筆力高妙 殆若天性’

骨에 의지하는 것은 몸이 뼈를 세우는 것과 같고 情이 風을 품는 것은 몸이 氣를 품는 것과 같다. 말을 엮는 것이 바르면 文骨이 이루어지고 意氣가 뛰어나고 상쾌하면 文風이 맑아진다. 만약 꾸밈이 풍부해도 風骨이 떨치지 않으면 문체를 정돈하는데 신선함을 잃고 소리를 내더라도 힘이 없다. 때문에 생각을 엮어 문장을 지을 때 기운을 지키는 데 힘쓰는 것이다. 강건한 기운이 이미 짝 차면 빛이 나서 새로워진다. 그것이 문학의 효용이 되는 것이니 비유하면 매가 날개 짓을 하는 것과 같다.<sup>140)</sup>

유협은 깊게 읊조리며 문사를 지을 때에 骨보다 앞서는 것은 없고 문사가 骨에 의지함은 몸이 뼈를 세움과 같다고 하였다. 때문에 격사청건에서 필력이 굳세다는 것은 시인의 경건한 천성으로 인해 문장에서 氣骨이 확고하게 서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격사는 격조와 말을 뜻한다. 즉, 격사청건은 청건한 格調와 청건한 文詞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格詞淸健은 遵勁하고 급박함 없는 천성이 문장의 내면에 바탕을 이루고 청건한 격조와 청건한 文詞가 조화를 이루어 굳센 기상이 드러나는 풍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다.

다음은 「禮字集」 序이다.

禮字集에 가려 뽑은 시는 精工妙麗를 위주로 하였다. 비록 아로 새긴 꾸밈이 있으나 色情에 이르지 않는었다. 예자집을 읽으면 정이 도타워지고 뜻이 높고 솟아 여원 사람도 살이 오를 수 있고 마른 사람도 피어날 수 있다.<sup>141)</sup>

140) 유협, 『문심조룡』, 「風骨」. ‘詩總六義 風冠其首 斯乃化感之本源 志氣之符契也 是以悵悵述情 必始乎風 沈吟鋪辭 莫先於骨 故辭之待骨 如體之樹骸 情之含風 猶形之包氣 結言端直 則文骨成焉 意氣駿爽 則文風淸焉 若豐藻克瞻 風骨不飛 則振彩失鮮 負聲無力 是以綴慮裁篇 務盈守氣 剛健既實 輝光乃新 其爲文用 譬征鳥之使翼也’

141) 李珣, 『全書』, 「拾遺」卷四, 「雜著一」, <精言妙選總敘>. ‘禮字集曰 此集所選 主於精工妙麗 雖有雕繪之飾 而不至於淫豔 讀此集 則情濃意秀 瘦瘠者 可以增肌 枯槁者 可以發華矣’

精工妙麗한 풍격의 기준은 ‘不至淫艷’이다. 종영이 『詩品』에서 사용하고 있는 詩評 용어로서의 ‘麗’자는 「上品序」에서 暉麗, 「古詩」에서 麗, 「宋臨川太守謝靈運詩」에서 麗典, 「魏尚書何晏, 晉馮翊守孫楚, 晉著作郎王瓚, 晉司徒掾張翰, 晉中書令潘尼詩」에서 高麗, 「梁左光祿沈約詩」에서 工麗<sup>142)</sup> 등이 있다. 모두 文辭가 아름답고 화려하며 광채가 나는 경우에 쓰이고 있다. 정리하면 精工妙麗는 내용상 색정에 이르지 않고, 형식상 도에 지나치지 않되 절묘한 수식이 있는 풍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다. 율곡은 시 창작에 있어서 지나친 수식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작시의 현실을 인정하는 의미에서도 도에 지나치지 않음으로써 시의 진정한 모습을 잃지 않는 범주 내에서의 미적 수식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율곡 풍격론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인성론적 접근이라는 것이다. 그가 제시한 풍격이 시인의 인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는 점은 성리학적인 수양론과 심성론이 접목되어있는 그의 문학론을 볼 때 당연한 귀결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는 문학을 氣의 작용으로 본 그의 문학론에 근거한 것으로, 기의 작용은 心이 주재한다는 그의 철학적 인식은 문학에 있어서 인성론적 접근의 근거가 되었다. 기의 작용을 주재하는 心은 성리학자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으로 수양해야 할 대상이 된다. 이는 沖澹蕭散, 閒美清適, 清新灑落이 시인의 삶과 인성을 바탕으로 하는 풍격이라는 고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형식적인 면에서 볼 때 기존의 풍격용어에 대한 설명이 詩的인 형태<sup>143)</sup>를 취하여 상징적이며 주관적인 경향이 강한 반면 율곡의 『精言妙選』은 산문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각 풍격의 시를 읽은 효용까지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풍격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42) 鍾嶸지음/林東錫 옮김, 『詩品』, (학고방, 2003).

143) 사공도, 『이십사시품』.

## 2. 栗谷 詩의 美的 特質

栗谷이 詩의 典範으로 제시하였던 風格은 沖澹蕭散·閒美清適·清新灑落이라는 것은 앞에서 고찰하였다. 이는 율곡이 이상적으로 여겨 추구하였던 풍격이자 율곡의 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주된 풍격이다.

이에 沖澹蕭散·閒美清適·清新灑落의 세 풍격이 율곡의 시에 형상화된 양상을 고찰함으로써 율곡 시의 미적 특질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修飾이 排除된 淡泊美

앞서 「원자집」을 읽으면 담박함을 맛볼 수 있고 希音을 즐길 수 있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담박함이란 沖澹蕭散한 풍격의 시에서 찾을 수 있는 美學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율곡의 풍격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다루어진 풍격은 충담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충담소산이 담고 있는 미학이 淡泊美라고 하는 것은 이미 축적된 연구 결과<sup>144)</sup>이다.

沖은 자연 그대로인 것을 이르고 淡 역시 아무런 맛도 가감하지 않은 것을 이른다. 蕭散은 자연스럽고 한가한 것이다. 즉, 충담소산한 시는 아무런 꾸밈이 없고 자연스러운 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꾸밈이 없다는 것은 순수하고 꾸밈없는 시인의 마음과 꾸밈없는 寫實的인 언어표현을 모두 포함한다. 율곡은 <文策>에서 ‘辭約而理當 言近而指遠’이라고 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辭約’과 ‘言近’이다. 문사가 간략하다는 것은 단순하고 간결한 시어를 의미하는 말이요, 말이 비근하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어렵지 않게 쓰이는 쉬운 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단순하고 쉬운 시어가 율곡이 作詩에서

144) 최진원 교수는 『한국고전시가의 형상성』, 「高山九曲歌와 淡泊」, (성균관대출판부, 1988)에서 沖澹蕭散을 淡泊이라고 규정하였고, 임형택 교수는 『韓國文學史의 視角』(創作과 批評社, 1995)에서 충담소산의 미가 담박하면서 소슬한 느낌을 주는 경지에 있을 것이라고 하였으며, 김병국 교수는 『고전시가의 미학 탐구』(月印, 2000)에서 충담소산의 미의식을 淡泊美라고 하였다.

추구하는 시어이다. 종합하면 충담소산한 시는 거짓 없는 순수한 마음을 간결하고 쉬운 시어로 묘사함으로써 묘한 흥취를 살리고 있는 시라고 할 수 있겠다.

먼저 충담소산한 풍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언묘선』 「원자집」에 실려 있는 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음 시는 陸機의 <招隱>이다.

明發心不夷  
振衣聊躑躅  
躑躅欲安之  
幽人在浚谷  
朝採南澗藻  
夕息西山足  
輕條象雲構  
密葉成翠幄  
激楚佇蘭林  
回芳薄秀木  
山溜何泠泠  
飛泉漱鳴玉  
哀音附靈液  
頽響赴曾谷  
至樂非有假  
安事澆醇樸  
富貴苟難圖  
稅駕從所欲<sup>145)</sup>

새벽까지 마음이 편치 않아,  
옷차림을 가다듬고 머뭇거리네.  
머뭇거리며 어디로 가려 하는가,  
은자는 깊은 골짜기에 있다네.  
아침엔 남쪽 개울 물풀을 캐고,  
저녁이면 서산 기슭에서 쉰다네.  
가벼운 겹가지는 구름집 모양이요,  
빹빹한 잎은 푸른 장막을 만들었네.  
난 숲엔 맑은 소리가 머물고,  
아름다운 나무엔 향기가 감도네.  
산 여울은 어찌 그리 맑게 흐르고,  
폭포수는 패옥을 씻어주네.  
슬픈 가락은 이슬에 붙어있고,  
쇠하는 소리는 깊은 계곡으로 치닫네.  
지극한 즐거움은 빌릴 수 없는 것이요,  
편안함은 순박한 삶에 있는 것이네.  
부귀는 진실로 피하기 어려우니,  
수레를 버려두고 원하는 걸 하려네.

145) 李珣, 『精言妙選』, 「元字集」, <招隱>.

위 시는 내용상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단락은 첫째 구에서 넷째 구까지이다. 새벽까지 마음이 불안하여 옷차림을 단정히 정돈하고 은자를 찾아가려고 하는 뜻을 읊었다. 세속적인 삶에서의 불안함과 그것을 떨치기 위한 시인의 선택이 나타나있다. 둘째 단락은 다섯째 구에서 열네째 구까지이다. 은자의 생활과 은자가 생활하는 깊은 숲 속의 정경을 묘사하였다. 아침엔 물풀을 뜯고 저녁엔 산기슭에서 쉬는 것이 은자의 하루이다. 사는 곳은 깊은 계곡이라 나무가 무성하고 샘물이 맑게 흐르는 곳이다. 숲 속의 정경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정경 묘사 속에 자연과 더불어 살면서 느낄 수 있는 기쁨까지도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단락은 열다섯째 구에서 마지막 구까지이다. ‘至樂’과 ‘安事’는 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순박한 삶에서 절로 우러나는 것이다. 부귀를 추구하는 삶에서는 얻을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다. 마지막 구에서 시인은 부귀가 아닌 ‘至樂’과 ‘安事’를 추구하는 삶을 선택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다. <초은>이라는 제목에서 나타나 있듯이 세속적인 삶을 뒤로하고 은자의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있다.

다음 시는 王維의 <終南別業>이다.

中歲頗好道	중년엔 자못 도를 좋아하여서,
晚家南山陲	만년에 종남산 끝자락에 집을 지었네.
興來每獨往	흥이 일면 매번 혼자 산으로 가니,
勝事空自知	좋은 경치는 그저 혼자만 안다네.
行到水窮處	거닐다 물이 다한 곳에 이르기도 하고,
坐看雲起時	앉아서 구름 이는 걸 보기도 한다네.
偶然值林叟	우연히 숲 속에서 늙은이 만나면,
談笑無還期 <sup>146)</sup>	이야기 하느라 돌아갈 기약이 없다네.

146) 李珣, 『精言妙選』, 「元字集」, <終南別業>.

首聯에서는 종남산 끝자락에 집을 짓고 도를 즐기면서 산다는 걸 말하였다. 頷聯과 頸聯은 때때로 종남산에 올라 흥을 즐기는 내용이다. 흥이 일면 혼자서 산에 올라 거닐다가 때론 물가에 앉아 구름을 바라보는 한적하고 평화로운 삶의 모습이다. 탈속적인 삶을 알 수 있다. 尾聯은 숲 속에서 늙은이를 만나면 담소를 나누느라고 돌아갈 것도 잊어버린다고 하였다. 늙은이라고 하였지만 시인과 삶의 모습이 동일한 탈속적 인물임을 알 수 있다. 평화롭고 한적한 삶이 아무런 수식 없이 있는 자연스럽게 묘사되어 있는 시이다.

다음 시는 卓文君의 <白頭吟>이다.

皚如山上雪	산 위의 눈처럼 하얗고,
皎若雲間月	구름 사이 달처럼 밝다네.
聞君有兩意	들으니 그대 두마음 있다고 하여,
故來相決絕	그로인해 영원히 이별하려 한다네.
今日斗酒會	오늘은 만나서 술을 마시지만,
明日溝水頭	내일 아침이면 도랑가에 있으리.
躑躅御溝上	대궐의 도랑 주변을 걸으니,
溝水東西流	도랑물은 동서로 흘러가네.
淒淒復淒淒	처량하고 또 처량하구나,
嫁娶不須啼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울 것 없다네.
願得一心人	한결같은 마음 가진 사람 얻어서,
白頭不相離	백발이 되도록 헤어지지 않길 원했네.
竹竿何嫋嫋	대나무 장대는 어찌 그리 휘청이고,
魚尾何篋篋	물고기 꼬리는 어찌 그리 흔들리는가.
男兒重意氣	남아는 의기를 중히 여겨야 할 것이니,
何用箋刀爲 <sup>147)</sup>	어찌 돈을 써서 하려 하는가.

147) 李珣, 『精言妙選』, 「元字集」, <白頭吟>.

사마상여가 첩을 들이려고 하자 탁문군이 의절하고자 지은 시이다. 내용상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단락은 첫째 구에서 여섯째 구까지이다. 사마상여가 첩을 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영원히 이별하기 위해 왔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둘째 단락은 일곱째 구에서 열두째 구까지이다. 대궐의 도량물이 동서로 흐르는 것으로 서로 다른 마음이 있는 것을 비유하여 자신의 신세가 처량함을 한탄하였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편단심인 사람을 얻어 백년해로하는 것이 중요함을 읊었다. 백년해로 하고자 했으나 그럴 수 없게 된 자신의 신세에 대한 서글픔을 담고 있다. 셋째 단락은 열세째 구에서 마지막 구까지이다. 흔들리는 사마상여의 마음을 흔들리는 대나무와 물고기 꼬리에 비유하였다. 남아에게 있어 의기가 중요함을 깨우쳐 주고 있다. 부부의 의를 저버린 사마상여에게 따끔한 일침을 가함으로써 진정으로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가 일깨워주고 있는 시이다.

이제 율곡의 시에서 충담소산한 풍격을 살리고 있는 시를 살펴보겠다.

다음은 <偶吟>이라는 시이다.

嗟余生苦晚	아 내 너무 늦게 태어났으니,
少小趨埃塵	젊어선 속세 일에 분주하였네.
眼闕古缺書	눈으론 옛 성현의 글을 보았고,
志慕羲皇人	뜻은 희황 때 인물을 사모했지만.
事累紛萬緒	세상사 온갖 일에 어지럽게 뒤엉겨,
無處怡精神	정신을 기쁘게 할 곳이 없었네.
飄然出國門	홀홀 털고서 성문을 빠져 나와.
足迹窮海濱	발길이 먼 바닷가에 이르렀네.
風月養我情	바람과 달로 뜻을 기르고,
煙霞盈我身	안개와 노을로 몸을 채웠네.
子長吾所慕	사마천은 내가 사모하는 분이며,
悅卿吾所親	김시습은 나의 친한 벗이라네.

非探山水興  
 聊以全吾眞  
 物我合一體  
 誰主誰爲賓  
 湛湛若澄潭  
 肅肅如秋旻  
 無憂亦無喜  
 此境人難臻  
 妙理不可測  
 百歲無緇磷  
 擾擾路中子  
 指我爲愚民  
 四顧孰知音  
 明月爲雷陳  
 浩歌一長嘯  
 悠悠天地春<sup>148)</sup>

산수의 흥취만을 찾은 것이 아니니,  
 애오라지 나의 천진 보전하러 함이네.  
 물과 내가 합하여 한 몸과도 같으니,  
 누가 주인이고 누가 손이런가.  
 담담한 것은 맑은 연못과 같고,  
 깨끗한 것은 가을 하늘 같다네.  
 근심도 기쁨도 따로 없으니,  
 이 경지는 사람이 도달하기 어렵네  
 묘한 이치는 헤아릴 수 없으니,  
 일생 검어지거나 닳아지지 않으리.  
 소란스러운 세상 사람들은,  
 날보고 어리석다고 하네.  
 사방을 둘러봐도 알아줄 이 누구인가,  
 밝은 달이 유일한 벗이라네.  
 큰 소리로 긴 노래 부르고 나니,  
 끝없는 온 천지가 봄이라네.

이 시는 율곡이 금강산으로 입산하면서 지은 시인 듯 하다. 내용상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단락은 첫째 구에서 여섯째 구까지이다. 세속적인 삶에 대한 회의가 드러나 있다. 세상사의 인연에 얽매여 정신을 수양할 수 없었던 지난날에 대한 회의이다. 둘째 단락은 일곱째 구에서 열네째 구까지이다. 천진을 보존하기 위해 서울을 떠나 자연을 찾아 나선 사실을 읊었다. 사마천을 사모하고 김시습을 다정한 벗이라고 하여 자신도 이들처럼 자유롭게 勝地를 돌아다니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 셋째 단락은 열다섯째 구에서 스물둘째 구까지이다. 자연과 物我一體되어 세속적인 삶에 물들지 않을 의지

148) 李珣, 『全書』, 「拾遺」卷一, 「詩」, <偶吟>.

를 담아내었다. 넷째 단락은 밝은 달을 知音으로 삼고 소리 높여 노래를 부르며 천지에 가득한 봄과 하나 된 경지를 읊었다. 세속을 떠나 자연과 渾然一體된 경지를 읊고 있다. 사실적인 문장과 수식 없는 심리 묘사가 돋보이는 시이다.

다음은 김규에게 지어준 시이다.

故人卜新居  
 瀟灑適野性  
 寒巖細泉鳴  
 方沼荷花淨  
 黃雲遠郊平  
 碧靄遙岑暝  
 江湖浩滿眼  
 欸乃臥可聽  
 胡爲未歸來  
 坐憂千室病  
 俸錢具甘旨  
 婉受慈闈命  
 儻許以善養  
 山阿有誰競  
 我家枕臨津  
 可沿亦可詠  
 兩地不宿春  
 追隨豈待請  
 佇君辭五馬  
 同遊松菊徑<sup>149)</sup>

오랜 친구 새 터 잡아 집을 지으니,  
 산뜻하고 깨끗해 질박한 성품에 맞네.  
 차가운 바위엔 시냇물 졸졸 흐르고,  
 모난 연못엔 연꽃 피어 깨끗하다.  
 넓은 들판엔 벼 패어 황금물결 일고,  
 먼 봉우리엔 푸른 구름만 어둑어둑.  
 강과 호수 드넓어 눈앞에 가득하고,  
 노 젓는 소리는 누워서도 들린다네.  
 무슨 일로 돌아오지 못하는가,  
 작은 고을 백성들 걱정하기 때문이라.  
 녹 받아선 맛좋은 음식을 봉양하고,  
 어머니 명령은 유순하게 받드네.  
 혹시 부모 봉양 잘하라 허락만 하시면,  
 깊은 산 속이라 그 누구와 다투겠나.  
 내 집도 임진강 가에 면해 있어서,  
 물 따라 걷다가 시 읊을 만하다네.  
 그대 집과 우리 집이 멀지 않으니,  
 오가는 것 어찌 청할 때를 기다릴까.  
 그대가 벼슬 그만둘 날 기다렸다가,  
 소나무 국화 길에서 함께 놀아야지.

149) 李珣, 『全書』卷二, 「詩下」, <贈金景嚴>.

경암 김규가 交河 深巖山 동쪽에 터를 잡고 집을 지어 閒居할 곳을 구하자 놀러 가서 구경하고 지은 시이다. 이 시는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단락은 첫째 구에서 여덟째 구까지이다. 경암이 한거할 집 주변 경관에 대한 묘사이다. 눈에 보이는 대로 별다른 수식 없이 묘사하였다. 회화성과 사실적 묘사가 돋보이는 단락이다. 두 번째 단락은 아홉째 구에서 열넷째 구까지이다. 율곡은 벼슬길에 나아가는 이유를 두 가지로 보았다. 하나는 아버지를 위해서이고, 또 하나는 백성을 위해서이다. 경암이 현재 심악산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경암이 벼슬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면서도 덕분에 함께 노닐기에는 후일을 기약해야하는 아쉬움이 묻어난다. 마지막 단락은 열다섯째 구에서 마지막 구까지이다. 율곡의 거처도 경암과 멀지 않은 곳에 있으므로 경암이 벼슬에서 물러나 돌아오면 함께 松菊의 오솔길에서 노닐 것이라는 기대로 마무리하였다. 물 좋고 산 좋은 곳에 자리를 잡은 맑은 인품의 경암과 맑은 교제를 하고 싶은 담박한 詩情이 담겨있는 시이다.

다음은 <大和道中>이라는 시이다.

千里行色困	천리길이라 행색이 곤궁한데,
山路何多石	산길엔 왜 이리 돌도 많은지.
羸馬策不進	여윈 말은 채찍해도 가질 않고,
斜陽掛喬木	저녁 해는 높은 나무에 걸려있네.
前山漸欲暝	앞산은 점점 어두워지려 하는데,
所經多虎迹	가는 길엔 범 발자국이 많구나.
穿林抵孤邨	숲을 지나 외진 마을에 이르니,
一縷炊煙碧	한 줄기 밥 짓는 연기 푸르네.
老翁喘且語	노인은 가쁜 숨을 쉬며 말하길,
隔離問何客	울타리 너머 손님은 누구신지.

老婦抱兒出  
 遮門不許宿  
 下馬倚積蒿  
 倦極交雙目  
 松明與楸櫨  
 缺襟生寒栗  
 緩頰借溫房  
 主翁眉間蹙  
 呼前酌屠酒  
 立飲無欣色  
 彈舌指瓮牖  
 此室吾豈惜  
 兒輩依土牀  
 不忍露赤脚  
 請入謀諸婦  
 良久乃肯諾  
 強顏缺窮入  
 舉頭頭打屋  
 夜半假寐罷  
 衆兒喧後壁  
 呼寒爭一衣  
 怨客恣罵辱  
 喟然却興歎  
 此豈民風惡  
 何時不贏糧  
 到處人心朴<sup>150)</sup>

할머니는 아이 안고 나오더니,  
 문을 막고 묵는 걸 허락하지 않네.  
 말에서 내려 쌓아놓은 쪽에 기대,  
 피곤하기 심하여 눈을 붙였네.  
 솔불도 있고 등걸불도 있지만,  
 옷깃엔 한기가 일어 으슬으슬하네.  
 온돌방 빌려 달라 완곡하게 말하니,  
 주인 늙은이는 이맛살을 찌푸리네.  
 마주 불러 잔술을 권했는데도,  
 선채로 마시며 기뻐하는 기색이 없네.  
 혀를 차며 웅창을 가리키더니,  
 이 방을 내 어찌 아끼려 하겠소.  
 아이들이 흙 평상에 자게 되니,  
 맨 다리 드러내는 걸 차마 못해서라오.  
 들어가 아내와 의논한다 하더니,  
 한 참이 지나서 겨우 허락을 하네.  
 낮빛 두껍지만 궁색하게 들어가는데,  
 고개 들다 천정에 머리를 부딪쳤네.  
 한밤중에 선 잠에서 깨서 보니,  
 아이들이 뒷벽에서 시끄럽네.  
 춥다고 소리치며 옷 하나를 다투어  
 객을 원망하며 맘대로 욕을 하네.  
 한숨을 내쉬면서 탄식하노니,  
 이 어찌 백성들 풍속이 나쁘기 때문일까.  
 언제쯤이나 양식 걱정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인심이 순박해질고.

150) 李珣, 『全書』, 「拾遺」卷一, 「詩」, <大和道中>.

율곡은 1565년 가을 황장목 채취에 관한 경차관으로 평안도에 갔다가 겨울에 돌아오게 된다. 이 시는 시기적으로 그 당시에 쓴 시인 듯하다. 내용상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단락은 첫째 구에서 여덟째 구까지이다. 밤은 늦고 산길은 험하여 하룻밤 묵어 갈 집을 찾기 직전까지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묘사하였다. 둘째 단락은 아홉째 구에서 서른둘째 구까지이다. 늦은 밤 찾아든 객을 홀대하는 험한 인심과 인심이 험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백성들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였다. 험벗은 백성들의 모습과 그로 인해 삭막해진 인심, 그리고 동심을 잃은 아이들의 처참함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셋째 단락은 서른셋째 구에서 마지막 구까지이다. 고단한 백성들의 삶과 이러한 삶을 안타까워하는 율곡의 아픈 마음이 형상화되어 있는 佳作이다.

다음은 <途中>이라는 시이다.

炊烟一抹午鷄鳴  
 幽人策杖臨溪水  
 山家四月春不盡  
 夾籬菜花紛青紫  
 微行時有採桑女  
 南畝頻看饁舉趾  
 斜陽疎雨入孤村  
 牧笛樵歌相應起  
 柴門剝啄喚主人  
 老翁見我如相喜  
 松床竹席極瀟灑  
 不知人間羅綺侈  
 翁言閱世不記年  
 勞逸悲歡皆染指  
 人情蟬翼苦無常

닭 우는 한낮에 밥 짓는 연기 이는데,  
 은자는 지팡이 짚고 시냇가에 왔다네.  
 산집에는 사월에도 봄기운이 남아있어,  
 울타리엔 배추꽃이 울긋불긋 무성하네.  
 좁은 길엔 간간이 뽕잎 따는 여인 있고,  
 남쪽들엔 수시로 들밥 내가는 걸 보네.  
 저물녘 부슬비 오는데 외진 마을 찾아드니,  
 목동의 피리와 나무꾼 노래가 화음 맞추네.  
 사립문 두드려서 주인을 부르니,  
 주인 영감 나를 보고 반가운 이 만난 듯.  
 소나무 평상 대자리는 무척이나 깨끗해서,  
 비단 휘두른 세속 사치는 아예 모른다네.  
 노인이 말하길 삶의 경험 했수 다 못 된다고,  
 힘듦과 편함 슬픔과 기쁨을 다 맛보았고.  
 인정은 매미 날개 같고 괴로움도 무상할 뿐,

刀劍藏於言笑裏  
 我今持拙保餘年  
 本來無譽誰爲毀  
 逢君欲問蝸角事  
 時運幾泰還幾否  
 莫將名字播紅塵  
 我是當年被衣子  
 旋將鷄黍飽我飢  
 伴宿虛齋談性理  
 奇言險語或不經  
 下視莊列如螻蟻  
 明朝睡覺寂無人  
 只見空庭遺脫屣<sup>151)</sup>

말하고 웃는 속에 칼날이 감춰졌더라고.  
 나는 이제 졸한 성품 지켜 남은 인생 보존하리,  
 본래 자랑할 것 없었는데 누가 헐뜯겠는가.  
 그대 보니 부질없는 세상일을 묻고 싶구려,  
 시대 운수가 몇 번이나 통했다 막혔는가.  
 번거로운 세상에 이름자 퍼뜨리지 마시오,  
 나는 지금 세상에서 숨어사는 이라고.  
 바로 닭 잡고 기장 밥 지어 배불리 먹이고,  
 빈 집에 함께 누워 성리를 이야기 하였네.  
 기이하고 어려운 말 혹 도리에 안 맞아도,  
 장자나 열자쯤은 개미처럼 무시했네.  
 다음날 깨어 보니 적막하게 사람은 없고,  
 단지 텅 빈 뜰엔 벗어둔 신발만 남아있네.

이 시는 길을 가다가 들른 집에서 은자를 만나 담소를 나누었던 일을 적은 것이다. 내용상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단락은 첫째 구에서 여덟째 구까지이다. 길을 가다 들르게 된 산마을 정경이다. 산마을의 풍경 묘사와 낮부터 저녁까지의 시간 경과가 잘 묘사되어있다. 한 폭의 수채화를 그려놓은 듯 회화적이다. 자연과 풍경에 대한 描寫가 사실적이고 세밀하다. 둘째 단락은 아홉째 구에서 스물여섯째 구까지이다. 산집에 찾아 들자 혼자 사는 노인이 반갑게 맞이하였다. 이후 노인의 이야기를 순서대로 꾸밈없이 서술하였다. 인생에서의 회노애락, 삶의 무상함, 깨달음을 통한 은거 등 노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율곡은 노인과 함께 性理와 諸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셋째 단락은 마지막 두 구절이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보니 빈 집에 노인은 없고 신발만 남아있다. 이 세상에 존재하되 그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어제 밤 함께 대화를 나누었으되 다음날 찾을 수 없는 노인은 존재와 부재의

151) 李珣, 『全書』卷一, 「詩上」, <途中>.

경계선상에 존재하는 인물이다. 그로 인해 노인과의 대화는 묘한 정취를 일으킨다. 寫實的인 묘사와 담박한 詩情, 그리고 묘한 시적 흥취가 돋보이는 시이다.

다음은 <次洪忍齋暹淳熙院韻>이라는 시이다.

松陰峯影滿軒涼	술 그늘 산 그림자 집안 가득 서늘하고,
泉語玲瓏下曲塘	맑은 샘물 영롱하게 굽은 연못 흘러드네.
木脫猩紅山逕瘦	낙엽이 다 떨어진 산길은 스산하기만 한데,
羹和錦帶客盤香 <sup>152)</sup>	순채 국과 나물 찬으로 손님상은 향긋하네.

홍섬의 순희원운에 차운한 시이다. 起句와 承句는 산 속에 자리한 집의 정경묘사이다. ‘松陰’·‘峯影’·‘涼’·‘玲瓏’ 등의 시어가 시원하고 청량한 느낌을 준다. 시넷물 흐르는 산 속에 자리한 시골집의 시원한 정경이 묘사되어 있다. 轉句는 산집에서 산 밖으로 이어지는 길에 대한 묘사이다. 산 속이라 숲에는 낙엽이 져서 산길은 스산하다. 結句에서는 집에서 먹는 밥과 반찬을 묘사하였다. 순채로 나물을 무치고 국을 끓여 손님상에 내놓았다. 향긋한 풀 향기가 밥상 가득 그윽하다. 나물국과 나물 반찬이라는 무공해 반찬에서 순수하고 담박한 시적 흥취를 느낄 수 있다. 꾸밈없는 산 집의 정경과 식사 모습의 묘사가 돋보인다.

이상에서 율곡 시의 담박미는 꾸밈없는 詩情과 간결하며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서 구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충담소산은 율곡의 시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풍격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담박미는 율곡 시의 가장 대표적인 미적 특질이라고 할 수 있다.

152) 李珣, 『全書』 卷一, 「詩上」, <次洪忍齋暹淳熙院韻>.

## 2) 情景이 融和된 閑適美

한미청적 한 시는 자득한 것이 우흥에서 나와 사색으로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閑의 뜻에는 閒·閒活·暇·淸閑·悠閑 등이 내포되어 있고, 淸자는 單純·閑暇·淸靜 등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

다음 예문은 閒·淸·閒適에 대한 의미를 설명한 글이다.

皎然은 '閒'을 설명하여 '情과 性이 소탈한 것을 閒이라 한다.'라 하였고, 明의 胡應麟이 淸의 개념을 '淸이란 超凡하고 絶俗한 것이다.' 라고 하였으며, 龔巖 李賢輔는 '閒適을 세속적인 공명심을 떨어내어 표표히 속세 밖에 노니는 듯한 마음을 갖게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농암이나 허균의 견해를 빌자면 '閒適'은 정신적 물리적인 초탈로부터 얻는 것이라 하겠다. 이는 대상과 접할 때 마음이 대상에 대하여 지적 활동을 하지 않게 하여 그 지적 활동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되는 시비판단의 제약에서 해방되어 정신적 자유를 마음껏 누림을 의미한다. 이로써 본다면 '閒', '淸', '閒適'은 서로 유사한 의미를 지닌 풍격으로 작자의 정신적인 자유로움에서 표출되어 俗氣가 전혀 느껴지지 않고 맑고 깨끗한 의경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sup>153)</sup>

閑과 淸은 한가롭고 단순하며 맑고 깨끗한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한가롭고 단순하고 맑고 깨끗한 시인의 삶과 그 속에서 우러나는 마음을 반영하는 것이며, 시인의 정신적인 자유로움에서 표출되는 것이다.

앞 章에서 自得한다는 것은 천지자연을 조용히 관조하면 우주 조화에 참여하게 되어 인간도 하늘과 같을 수 있다는 天人合一의 경지를 의미하는 것이라 하였다. 寓興은 자연과 사물을 접했을 때 무심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흥이다. 흥이 작품으로 형상화될 때 필수적인 요인은 景이며, 정경교응은 흥의 본질이다. 또한 사색으로 이를 수 없다는 것은 사색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sup>154)</sup>

153) 鄭堯一외, 『고전비평용어연구』, 『漢詩批評에 있어서 詩品 研究』, (태학사, 1998) p.282 .

154) 정재철, 「정언묘선의 사유체계 및 심미의식」, 『한국한문학연구 34집』, (한국한문학회, 2004). p.51 참조.

는 것으로, 이는 自然流露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하면 한미칭적한 시는 자연에 대한 조용한 관조를 통해 天人合一의 경지에 이름으로써 자연과 인간이 혼용된 몰아일체의 흥이 형상화되어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다.

『詩人玉屑』에서는 閑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나는 초계에 집을 짓고 날마다 낚시를 하며 자적하면서 초계어은이라고 스스로 일컬었다. (중략) 경치를 보고 회포를 펴서 때로 시구를 지어 모두 왼쪽에 적어 놓았다. 이미 오래되고 점점 많아져서 다 기록할 수 없으나 한 두 수를 들자면 ‘시냇가에는 길고 짧은 버들가지, 물가에는 오락가락하는 배. 갈매기는 사람 옆에서도 겁내지 않고, 한 쌍이 거울 속 하늘에 내려앉네.’ ‘가을 구름 아득하고 연기는 푸르는데, 연꽃은 하얗고 연잎은 누렇네. 낚싯배 하루 종일 오가는 곳, 남쪽 마을 북쪽 마을 메벼는 향기롭네.’ 라 하였다.<sup>155)</sup>

宋의 胡仔가 苕溪에 집을 짓고 한적한 생활을 하며 지은 시를 閑適이라고 평한 것이다. 두 수 모두 시적 자아의 관조를 통한 정경묘사만으로 몰아일체된 시인의 평화로운 마음을 담아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관조를 통한 정경교응의 미의식을 閑適美라고 할 수 있겠다.

다음은 『精言妙選』 「亨字集」에 실려 있는 시이다.

空山不見人	텅 빈산에 사람은 보이질 않고,
但聞人語響	다만 사람 말소리만 들려오네.
返景入深林	저녁별이 깊은 숲에 비취더니,
復照青苔上 <sup>156)</sup>	다시 푸른 이끼 위를 비취주네.

155) 魏慶之, 『詩人玉屑』卷之十, 「閑適」. p.208. ‘余卜居苕溪 日以漁釣的 因自稱苕溪漁隱 覽景攄懷 時有鄙句 皆題之左方 既久益多 不能盡錄 料舉其一二云 <溪邊短短長長柳 波上來來去去舡 鷗鳥近人渾不外 一雙飛下鏡中天> <秋雲漠漠煙蒼蒼 蓮花初白蓮葉黃 釣舡盡日來往處 南村北村杭稻香>’

156) 李珣, 『精言妙選』, 「亨字集」, <鹿柴>.

王維의 <鹿柴>이다. 起句와 承句에서는 산 속에 사람은 보이지 않고 말소리만 들려오는 모습을 묘사하였다. 사람이 있지만 모습은 보이지 않고 말소리만으로 사람이 있음을 짐작하는 상황이다. 轉句와 結句에서는 저녁에 지는 석양빛이 숲과 이끼를 비추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였다. 조용한 숲의 모습을 객관적인 관조자의 입장에서 묘사하고 있다. 사람은 그 존재를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텅 빈 산 속에 자연과 물아일체되어 있는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저녁에 지는 햇살이 고요하게 내리 비추는 산의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한적하고 고요한 시상을 살리고 있는 시이다.

다음 시는 賈島의 <尋隱者不遇>이다.

松下聞童子	소나무 밑에서 동자에게 물으니,
言師採藥去	스승은 약 캐러 가셨다 하네.
只在此山中	이 산 속 어딘가에 계시겠지만,
雲深不知處 <sup>157)</sup>	구름 깊어 계신 곳은 모르겠어요.

한 폭의 그림이 연상되는 詩中畫畫中詩의 경지를 보여주는 시이다. 시인과 동자의 짧은 문답으로 이루어졌지만 깊은 산 속 구름 속에 물아일체되어 있는 시인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은자를 찾아 깊은 산까지 갔지만 은자는 동자만 남겨놓고 자리에 없다. 동자도 스승이 계신 곳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무심하게 대답한다. 묻는 시인이나 대답하는 동자나 굳이 만날 의지도 찾아줄 의지도 담겨있지 않다. 깊은 구름만큼이나 무심한 문답이 오가고 그 무심함 속에 자연과 동화된 은자의 진면목이 긴 여운으로 남는다. ‘採藥’과 ‘雲深’ 두 시어가 인간과 자연을 혼용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화체 형식이지만 소리가 존재하지 않는 고요함과 한적함이 잘 드러나 있다.

다음 시는 張籍의 <夜到漁家>이다.

157) 李珣, 『精言妙選』, 「亨字集」, <訪羊尊師>.

漁家在江口  
潮水入柴扉  
行客欲投宿  
主人猶未歸  
竹深村落遠  
月出釣船稀  
遙見尋沙岸  
春風動草衣<sup>158)</sup>

어부의 집 강 어구에 있어,  
조수가 사립문까지 들어오네.  
나그네는 묵어가하고자 하는데,  
주인은 오히려 돌아오질 않네.  
대숲은 깊고 마을은 멀리 있어,  
달이 뜨자 고깃배도 드물구나.  
저 멀리 모래 언덕을 찾는데,  
봄바람이 풀 옷에 불어오네.

首聯에서는 강 어구에 있는 어부의 집을 묘사하였다. 강가에 집이 있어 조수가 사립문 앞까지 밀려오는 집이다. 頷聯에서는 하룻밤 묵어가려고 했는데 어부의 집이 비어 있음을 말하였다. 頸聯은 마을이 멀고 인적이 없는 강가 정경이다. 尾聯에서는 모래 언덕을 찾아보는데 봄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묘사하였다. 여기에서 ‘草衣’는 隱者라는 뜻으로 시인 자신을 가리킨다.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어부의 집에서 하룻밤 묵어가하고자 하였으나 어부가 집에 없어 모래 언덕을 찾고 있다. 그러나 조급함이 아니라 봄바람을 즐기는 여유로움이 묻어난다. 시적 자아가 나그네로 존재하기는 하지만 物外閒人의 모습이다. 어부의 집과 인적이 드문 강가의 주변 경관에 대한 묘사에서 한적하고 고요한 시상이 느껴지는 시이다.

다음 시는 이백의 <下終南山過斛斯山人宿置酒>이다.

暮從碧山下  
山月隨人歸  
却顧所來徑

저물녘 푸른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달이 나를 따라 내려오네.  
문득 지나온 길 뒤돌아보니,

158) 李珣, 『精言妙選』, 「亨字集」, <夜到漁家>.

蒼蒼橫翠微  
 相攜及田家  
 童穉開荊扉  
 綠竹入幽徑  
 青蘿拂行衣  
 歡言得所憩  
 美酒聊共揮  
 長歌吟松風  
 曲盡河星稀  
 我醉君復樂  
 陶然共忘機<sup>159)</sup>

푸른 산기운 온 산을 뒤덮었네.  
 서로를 이끌며 전가에 이르니,  
 아이가 사립문을 열어주네.  
 푸른 대숲 깊은 산길로 나있고,  
 푸른 덩굴은 행인 옷깃 스치네.  
 즐겁게 얘기하니 설만하고,  
 맛 좋은 술 그런대로 함께 마시네.  
 긴 노래로 술마람 읊조리니,  
 노래 다 부르자 은하수도 흐릿해지네.  
 내가 취해 그대 함께 즐거우니,  
 거나하여 모든 것을 잊을 만하네.

종남산에서 내려와 곡사산인의 집에 들러 술을 마시며 지은 시이다. 첫째 구에서 넷째 구까지는 달빛을 받으며 종남산에서 내려오는 정경이다. ‘山月’의 의인화가 시적 묘미를 준다. 다섯째 구에서 여덟째 구까지는 田家에 도착해서 술자리를 벌이기 전까지의 상황이다. 시인을 따라 내려오는 달빛과 앞서거나 뒤서거나 서로를 이끌며 山人의 집에 도착한다. 아이의 마중을 받으며 푸른 대와 덩굴이 진 오솔길 따라 술자리를 찾는다. ‘綠竹·青蘿’ 등의 시어에서 속세와는 다소 거리를 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幽徑’은 술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찾아들어가는 현실에서의 오솔길이자 시적 화자가 세속성을 단절시키고 자연에 몰입하는 교양의 과정이다. 아홉째 구에서 마지막 구까지는 시인이 술과 노래로 바람과 별과 일체가 되고 있다. 그리고 취해서 모든 것을 잊고 자연의 일부로 化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자연과 더불어 술 마시고 노래하며 혼용된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시이다.

다음은 <山中>이라는 율곡의 시이다.

159) 李珣, 『精言妙選』, 「亨字集」, <下終南山過斛斯山人宿置酒>.

白雲抱幽巖	흰 구름 깊은 바위에 감돌고,
靑鼠窺蓬戶	다람쥐는 쭈대 문을 엿보네.
山人不出山	산사람 산 밖 나가지 않으니,
石逕蒼苔老 <sup>160)</sup>	돌길엔 이끼만 가득 끼었네.

起句와 承句에서는 깊은 산 속의 모습을 묘사하였다. 깊은 산 속에 오랫동안 인적이 끊긴 적막함이 형상화되었다. 轉句와 結句에서는 산 속 쭈대 문의 주인인 山사람이 산 밖을 나서지 않아 돌길에는 이끼가 오래도록 자라나고 있다고 하였다. 숲 속의 고요는 산인의 杜門不出이 원인이다. 이렇듯 아무런 감정 이입 없이 오로지 객관적이기만 한 묘사 속에 시적 자아는 物外에서 閒逸하는 존재로 物我一體되어 있다. 수식이나 과장 없이 객관적인 묘사만으로 산 속의 평화로움을 읊고 있다. 이 시는 네 구로 완성된 절구지만 내용상 한 순간의 장면을 포착하고 있다. 구름이 감돌고 쭈대문 옆에 다람쥐가 있고 돌길에 이끼가 낀 것은 시간의 흐름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장면이다. 이 시에서 찾아볼 수 있는 미학은 바로 관조를 통한 보여줌이다. 이는 情景交融에 의해서 흥을 일으키되 卽景의 묘사만으로 외물과 자아가 완벽한 균형과 조화를 이룸으로써 가능한 미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이 시가 사색이 아닌 寓興에서 나온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다.

다음 시 역시 <山中>이라는 동일한 제목의 시이다.

採藥忽迷路	약초 캐다 문득 길 잃었는데,
千峰秋葉裡	봉우리마다 가을 단풍 물들었네.
山僧汲水歸	산승은 물을 길어 돌아가더니,
林末茶煙起 <sup>161)</sup>	숲 끝에선 차 연기 피어오르네.

160) 李珣, 『全書』, 「拾遺」卷一, 「詩」, <山中>.

161) 李珣, 『全書』, 「拾遺」卷一, 「詩」, <山中>.

시인은 산 속에서 약을 캐다가 길을 잃는다. 두리번거리며 길을 찾다가 약초를 캐느라 미처 발견하지 못한 못 봉우리의 가을 단풍을 발견하게 된다. 가을 단풍 속에서 길을 잃은 시인이 이미 가을 산과 物我一體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에서 길을 잃었다는 것은 굳이 길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의 표현이 아니라 약 캐는 일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단풍을 발견하기 위한 여유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는 起句와 承句에서 이미 시각적인 효과를 충분히 거두고 있다. 그러나 畫龍點睛은 結句에서 물을 길어 간 산승이 끓이고 있는 차 연기이다. 울긋불긋한 단풍 사이로 하얗게 피어오르는 한줄기 차 연기는 단풍진 가을 산과의 색채 대비를 이룰 뿐 아니라, 산 속 고요함을 보여주는 이미지이다. 轉句와 結句는 단지 景만을 묘사하고 있으나 그 속엔 시인의 情이 담겨있다. 情景交融은 興의 본질이다. 때문에 轉句와 結句에서 나타난 정경교응은 寓興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사색이 부재하는 우흥에서 한미청적인 풍격을 발견할 수 있는 시이다.

다음 시는 <雨後次宋士强大立見寄韻>이라는 시이다.

雨斂空山亂午暉	비 개인 텅 빈 산엔 햇살만 짹짹한데,
小童鋤草啓柴扉	어린 아인 풀 매고 와 사립문을 여네.
清香一炷無餘伴	맑은 향을 피워 놓고 다른 벗 없으니,
坐看閒雲出岫飛 <sup>162)</sup>	앉은 채로 산굴에서 구름 나는 걸 보네.

43세(1578)에 대사간에 임명되었으나 상소하여 사직하고 울곡에 있던 때에 지은 시이다. 起句에서는 비가 개이고 텅 빈 산에 햇살이 내려 비취는 모습을 묘사하였다. ‘亂’이라는 서술어는 풍부한 햇살과 우거진 숲 속을 연상시켜 주는 詩語이다. 承句에서는 어린 아이가 김을 매고 와서 사립문을 열고 들어온다. 김매는 일을 마치고 편안한 마음으로 사립문을 여는 어린 아이의 얼굴

162) 李珣, 『全書』 卷二, 「詩下」, <雨後次宋士强大立見寄韻>.

은 비로 씻어내고 햇살로 말려놓아 텅 빈 산과도 닮았다. 天真 그 자체이다. 轉句와 結句에서는 향을 피워놓고 산 구렁에서 피어나는 산 구름을 바라보는 편안하고 한가로운 모습을 묘사하였다. 맑은 향에서 연상되는 흰 연기와 산 굴에서 피어나는 흰 구름은 그 모습이 닮았다. 인공과 자연의 조화이다. 이렇듯 시적 자아는 있는 듯 없는 듯 산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고요하고 한적한 시상이 느껴지는 시이다.

다음은 <偶興>이라는 시이다.

渚沙雪無垠	모래섬엔 하얀 눈 뒤덮였고,
汀柳煙初裊	물가 버들엔 물안개 하늘하늘.
漁翁醉不醒	어옹은 술에 깊게 취했는데,
江月慙慙照 <sup>163)</sup>	강달만 은은하게 비춰오네.

18세(1553)에 지은 시이다. 起句는 끝없이 펼쳐진 모래섬에 온통 하얀 눈이 쌓여있는 풍경이다. 承句는 물가 버들에 물안개가 가늘게 피어올라 하늘거리고 있는 모습이다. 아무도 없을 듯한 고요한 물가의 정경이다. 그런데 轉句에서는 어옹이 홀로 술에 취해 깊게 잠들어 있다. 누군가 있지만 그 역시 있는 듯 없는 듯 술에 깊게 취해있다. 그리고 結句에서는 강달만 은은하게 모래톱을 비추고 있다. 강달 역시 같은 공간 안에 존재하고는 있지만 빛으로만 존재할 뿐 아무런 동작을 갖고 있지 않다. 시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물가 버들에 어려 있는 안개뿐이다. 그러나 안개의 움직임도 아주 여리고 조용하다. 때문에 안개의 움직임은 운동성으로써의 동작이기 보다는 고요를 반증하는 듯한 움직임이다. 시는 전체적으로 무채색의 고요함을 연출하고 있다. 無色無聲의 흥이 발견되는 시이다.

다음은 <題鳥原驛>이라는 시이다.

163) 李珣, 『全書』, 「拾遺」卷一, 「詩」, <偶興二首> 中 二首.

薄暮獨支頤	망거미 질 무렵 홀로 턱을 고이니,
樵歌起何處	초동의 노래 소리 어디서 들려오나.
輕風動竹林	경쾌한 바람이 대나무 숲 흔드니,
似與幽人語 <sup>164)</sup>	은자와 함께 이야기 하는 듯하네.

29세(1564) 되던 해 8월 율곡은 明經及第에 올라 戶曹佐郎에 임명된다. 이 시는 호조좌랑에 임명되어 길을 떠나는 중 오원역에서 지은 시인 듯 하다. 起句와 承句에서는 저물녘 바람 소리에 실려 오는 초동의 노래 소리와 초동의 노래를 듣고 있는 시인의 한가로운 모습을 형용하였다. 轉句와 結句에서는 대나무 숲에 불어오는 경쾌한 바람에 대숲이 울리고 있음을 묘사하였다. 그리고 바람소리가 마치 홀로 있는 유인에게 말을 걸어오는 듯하다고 하였다. 댓잎이 부딪쳐 사각사각 내는 맑은 소리와 그 소리를 대화를 건네는 소리로 받아들이는 시인의 시상이 참신하다. 초동의 노래 소리는 어디서 들려오는지 확실하지 않을 정도로 아득한 곳에서 들려오고, 시인은 바람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이 시는 전체적으로 청각적인 시이다. 그러나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시인이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 정도로 고요한 소리이다. 이 시는 청각적이면서도 고요하며 그 고요를 반증하는 것 또한 소리이다. 이것이 이 시가 편안하고 한적한 느낌을 주면서도 재미있는 이유이다.

다음 시는 <白川邊酌月>이라는 시이다.

衣濕三更露	옷자락은 깊은 밤이슬에 젖고,
雲收一笛風	구름은 바람 소리를 거두네.
開樽涼月下	서늘한 달빛에 술독을 열자,
人在水晶宮 <sup>165)</sup>	사람이 수정궁 속에 있네.

164) 李珣, 『全書』 卷一, 「詩上」, <題鳥原驛三首> 中 二首.

165) 李珣, 『全書』 卷一, 「詩上」, <白川邊酌月>.

21세(1556)되던 해에 백천가 달 아래서 술잔을 기울이며 지은 시이다. 起句에서는 삼경이라 밤이슬 내리고 시인은 이슬을 맞아 옷이 젖는다. 시간적 배경은 깊은 밤이다. 承句에서는 한줄기 피리 소리인 듯 바람 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일자 구름이 걷힌다. 起句와 承句에서는 깊은 밤 풍경을 묘사하였다. 轉句에서 시인은 달빛을 받으며 술독을 연다. 結句에서는 향긋한 술독에 달이 빠져있고, 달 속에는 사람이 빠져있다. 술독을 바라보는 시인의 모습이 술독에 빠진 달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캄캄한 밤이 배경이 된 술독에 하얀 달빛, 그리고 하얀 달빛을 배경으로 더욱 선명한 사람, 흑백의 대비를 통해서 묘미를 살리고 있는 시이다. 이 시는 이태백의 <月下獨酌>을 연상케 한다. 술독 속에 빠진 달과 그 달 속에 빠진 시인이 하나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늘한 달빛과 향긋한 술 향기가 깊은 밤 속에 잘 숙성되어 있는 시이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閑適美는 觀照를 통해 자연과合一된 天然의 詩情과 객관적 자연 묘사 속에 담아낸 한적하고 고요한 정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미학임을 알 수 있었다.

### 3) 俗氣가 除去된 脫俗美

앞서 清新灑落한 풍격의 특징은 ‘蟬蛻風露’라 하였다. 매미가 바람과 이슬 속에서 허물을 벗은 듯하다는 것은 세속성을 뛰어넘은 경지이다. 즉, 清新灑落한 시의 가장 큰 특징은 脫俗性이다. 세속적인 욕망의 제거는 세속이라는 공간성이 아닌 시인의 정신적 영역의 문제이다. 이는 시인 자신의 탈속성을 바탕으로 독자로 하여금 세속적이지 않은 흥취를 주는 시이다. 일찍이 朱子는 作詩에 있어서 창자와 위 사이에 끼어 있는 葷血脂膏를 말끔히 씻어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혼혈지고는 인간의 육체적 욕망의 근원을 가리킨다고 보겠다.<sup>166)</sup> 즉, 인간의 육체적인 욕망을 제거시킨 정신적인 청정이 청신쇄락

166) 林熒澤, 『韓國文學史의 視角』, (창작과 비평사, 1995). p.47.

의 전제가 된다. 때문에 율곡의 시에서 청신쇄락한 풍격은 세속적인 욕망을 제거시킨 깨끗한 자연과 마음을 읊은 시에서 찾아볼 수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脫俗美는 청신쇄락에서 찾을 수 있는 주된 미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음은 『精言妙選』 「利字集」에 실려 있는 시이다.

夕陽度西嶺	저물녘에 서쪽 고개 넘어가자,
群壑旣已暝	뭇 골짜기 홀연히 컴컴해지네.
松月生夜涼	솔 사이 달빛에 밤기운 서늘하고,
風泉滿淸聲	바람 부는 샘엔 맑은 소리 가득해라.
樵人歸欲盡	나무꾼들 모두 돌아오고,
煙鳥棲初定	구름 속 새들은 등지에 깃드네.
之子期宿來	그대 와서 묵자는 약속에,
孤琴候蘿徑 <sup>167)</sup>	홀로 거문고 들고 담쟁이 길에서 기다리네.

孟浩然的 <宿業師山房待丁公不至>이다. 首聯은 산 속이라 해가 빨리 저서 뭇 골짜기가 어두워진 풍경이다. 頷聯과 頸聯은 해가 진 산 속 풍경이다. 소나무 사이로 달빛이 비추고 밤기운은 서늘하다 해가 지자 나무꾼들도 하나씩 집으로 돌아오고 구름 속에서 날던 새 들도 등지를 찾아 깃든다. 시원하고 맑은 정경묘사에서 淸新한 詩想이 느껴진다. 尾聯은 담쟁이 넝쿨 드리워진 산길에서 친구인 丁大鳳을 기다렸으나 오지 않음을 읊고 있다. 여기에서 羅徑은 세속에서 떨어진 탈속적인 특수 공간을 의미한다. 시인은 홀로 서서 거문고를 들고 담쟁이 길에서 기다린다고는 하였으나, 굳이 친구가 올 것을 기다리려는 의지가 담겨있지는 않다. 저물녘 서늘한 산 속에서 거문고를 타며 자연을 즐기는 시인의 모습에서 세속적인 때가 말끔하게 씻긴 상쾌함을 발견할 수 있다.

167) 李珣, 『精言妙選』, 「利字集」, <宿業師山房待丁公不至>.

다음은 李白의 <謝公宅>이란 시이다.

靑山日將暝	청산엔 막 해가 지려하는데,
寂寞謝公宅	사조의 별장은 적막하구나.
竹裏無人聲	대나무 숲엔 사람 소리 없는데,
池中虛月白	연못은 텅 빈 채 달빛만 밝네.
荒庭衰草徧	묵은 뜰엔 시든 풀만 수북하고,
廢井蒼苔積	샘 막힌 우물엔 푸른 이끼 끼었네.
唯有淸風閑	오직 맑은 바람만 한적하여,
時時起泉石 <sup>168)</sup>	때때로 냇가 바위에 불어오네.

首聯은 해 지는 청산을 배경으로 적막한 사조의 별장을 읊었다. 頷聯과 頸聯은 별장의 주변 경관이다. 대숲엔 인적이 없고 연못엔 달빛이 밝다. 손을 보지 않는 마당엔 풀들이 시들어 있고 우물엔 이끼가 피어있다. 쓸쓸하고 적막한 풍경이다. 尾聯은 맑은 바람이 냇가에 불어오음을 읊었다. 사람이 살지 않는지 쓸쓸한 사조의 별장에서 저물녘 한적하게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지은 것이다. 별장의 주변 경관은 쓸쓸하고 적막하지만 속세로부터 떨어진 공간 설정으로 인해 별장 냇가 바위에 홀로 앉아 맑은 바람을 맞는 시인의 마음은 깨끗하고 한가로움이 느껴진다. 사람이 없는 산 속 별장에서 俗氣없는 맑은 바람으로 가슴 속까지 맑게 정화시키고 있는 시이다.

다음 시는 劉延芝의 <崇巖聞笙> 이다.

月出崇山東	숭산 동쪽으로 달이 떠오르자,
月明山益空	달빛이 밝아 산은 더욱 텅 비었네.
山人愛淸景	산사람은 맑은 경치를 사랑하여,

168) 李珣, 『精言妙選』, 「利字集」, <謝公宅>.

散髮臥秋風  
 風止夜何清  
 獨夜草蟲鳴  
 仙人不可見  
 乘月近吹笙  
 絳脣吸靈氣  
 玉指調眞聲  
 眞聲是何曲  
 三山鸞鶴情  
 昔去落塵俗  
 願言聞此曲  
 今來臥崇岑  
 何幸承幽音  
 神仙樂吾事  
 笙歌銘夙心<sup>169)</sup>

머리 풀고 가을바람 속에 누웠네.  
 바람이 그치자 밤은 어찌나 맑은지,  
 외로운 밤에 풀벌레만 울어대네.  
 신선은 볼 수가 없지만은,  
 달빛 타고 생황 부는 가까이 있네.  
 붉은 입술로는 영기를 호흡하고,  
 고운 손가락으로 참 소리를 고르네.  
 참 소리는 무슨 곡조인가,  
 삼산에 사는 난새와 학의 마음이라.  
 아득한 옛날 속세에 떨어졌으니,  
 원컨대 이 곡조를 듣고 싶었네.  
 지금 송산 봉우리에 와서 누워,  
 그윽한 음조 받드니 얼마나 다행인가.  
 신선이 내 일을 즐겁게 해주니,  
 생황의 노래 내 마음에 새긴다네.

仙風이 느껴지는 시이다. 첫째 구에서 여섯째 구까지는 달이 뜬 송산에서 가을바람 부는데 편안하게 누워있는 산인의 모습이다. 가을밤이라는 시간배경과 달이 뜬 송산이라는 공간배경이 맑고 시원한 느낌을 준다. 송산이라는 공간 설정은 신선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으니 그 매개체는 바람결에 들리는 생황의 소리이다. 일곱째 구에서 열두째 구까지는 생황을 타는 신선의 모습이다. 맑은 산에 누워 山人은 신선의 생황 소리를 듣는다. 신선은 영기를 호흡하며 난새와 학의 정을 담은 참된 소리를 조율한다. 속세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신선의 세계이다. 맑은 바람이 부는 산 속에 누워 산인은 신선의 경지에 들어간다. 열셋째 구에서 마지막 구까지는 속세에 떨어진 신선인 산인이 신선의 곡조를 듣고 싶었는데 이제 송산에서 그 곡조를 듣

169) 李珣, 『精言妙選』, 「利字集」, <崇嶽聞笙>.

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산 속에서 신선의 경지에 들으로써 자신이 원래는 신선이었다고 여기고 있다. 맑은 자연 속에서 신선의 경지까지 유유히 들어감으로써 속세를 완전히 벗어난 산인의 모습이다. 맑은 바람과 밝은 달빛에 동화되어 신선의 경지에 들으로써 청신한 탈속미를 살리고 있다.

다음은 율곡의 시이다.

若木平明車載脂  
 幾度登山復渡水  
 孤山迫在大野頭  
 洛江烟波遶汀沚  
 披榛覓路扣竹扉  
 小童應門迎我喜  
 玲瓏朱閣絕點塵  
 儉而不陋奢不侈  
 空階梅萼未返魂  
 九臯清音時入耳  
 童言主人在田野  
 邨逕逶迤隔十里  
 須臾報道主人歸  
 入窓執鬪同徙倚  
 曾聞傾蓋便若舊  
 此言從知非妄矣  
 星山邂逅適我願  
 一見便許以知己  
 況復相逢物外境  
 世間交道安足比  
 斜陽半山破煙鬢

약목에 동틀 무렵 수레에 기름을 싣고,  
 몇 번이나 산에 오르고 또 물을 건넜나.  
 우뚝한 산은 넓은 들판에 맞닿아 있고,  
 낙동강엔 물안개 물가 가득 피어오르네.  
 잡목을 헤치고 길 찾아 대사립 두드리니,  
 어린아이 문에 나와 반갑게 날 맞이하네.  
 영롱한 붉은 대문엔 티끌 먼지 없고,  
 검소하되 좁지 않고 좋으면서 넘치지 않네.  
 빈 섬돌엔 매화 송이 피어나지 않았는데,  
 깊은 못엔 맑은 소리 때때로 귓가에 들리네.  
 아이가 말하길 주인은 밭에 나가 있는데,  
 시골길이 구불구불해 십리는 떨어졌다네.  
 잠간 있다 주인이 돌아왔다고 하더니만,  
 들어와선 문을 잡고 주인따라 왔다 갔다 하네.  
 우연히 잠시 만나도 옛 친구 같다고 들었는데,  
 그 말이 헛된 말 아니란 걸 이제 알겠네.  
 성산에서 뜻밖에 만나 내 기대에 딱 맞더니,  
 한번 보고서 바로 지기라고 서로 허여하였지.  
 하물며 세상 밖에서 다시 만날 줄이야,  
 속세의 사귄과 어찌 비교라도 되겠는가.  
 저녁 빛은 산 중턱 푸른 산 빛 물들이고,

粼粼遠水金波起  
 江分沙島燕尾開  
 樹列汀洲翠支蓋  
 逍遙縱目逸興飛  
 千里江山通一視  
 蒼然暝色滿虛亭  
 收拾風光猶未已  
 遙看漁火數點明  
 江村盡入熹微裏  
 閉戶挑燈羣動息  
 永夜清談時隱几  
 先生不是俗中人  
 生憎逐利求名士  
 自言卜築尋形勝  
 況是先人有基址  
 十年之計樹百卉  
 春來繞舍皆桃李  
 腐餘糞土夢已斷  
 明時貧賤吾不隱  
 時將醉興作草戲  
 蛇怒虯驚風滿紙  
 簞瓢纔足可長謂  
 肯效區區慕羶蟻  
 嗟余誤落輓紅中  
 役役未免牽僞累  
 舉世徒知雞肋味  
 秋風誰憶鱸魚美  
 先生一言眞起余

맑고 먼 강물엔 금빛 물결이 일렁이네.  
 강물은 모래섬에서 갈라져 연미처럼 흐르고,  
 나무는 물가에 늘어서 푸른 가지 뒤덮었네.  
 유유자적하며 둘러보니 세속 벗어난 흥이 일고,  
 천리 강산이 통째로 한눈에 다 들어오네.  
 해질녘 석양빛이 빈 정자에 가득한데,  
 풍광을 보느라고 아직도 둘러보네.  
 저 멀리 고기잡이 불만 몇 점 반짝일 뿐,  
 강 마을은 희미한 어둠 속에 다 잠겼네.  
 문 닫고 등불 밝히니 모든 것이 다 조용해,  
 밤 내내 맑은 대화하며 때로 안석에 기대네.  
 선생은 속세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익과 명예구하는 선비를 평생 미워하였지.  
 경치 좋은 곳 찾아 집을 지었다고 말하니,  
 하물며 이곳은 선인께서 남겨준 터라네.  
 10년 동안 나무와 온갖 꽃 심을 계획을 해서,  
 봄이 오면 복사꽃 오얏꽃 집을 온통 둘러싼다네.  
 썩어빠진 속세에선 꿈 이미 포기하였지만,  
 맑은 시대에 빈천해도 나는 숨지 않으리.  
 때때로 술에 취한 흥으로 붓을 들어 희작하면,  
 뱀 성내고 규룡 놀라 바람이 종이에 가득하네.  
 도시락 밥 표주박 물 겨우 족한 것도 넉넉한데,  
 비린내 좋아하는 개미 어찌 쩌쩌하게 본받을까.  
 아! 나는 변화한 속세에 잘못 떨어졌으니,  
 거짓과 번뇌에 끌려다니는 걸 끝내 면치 못했네.  
 온 세상이 다만 닭갈비의 맛을 알 뿐인데,  
 가을바람에 노어 회 맛 기억할 사람 누구인가.  
 선생이 한 말씀으로 진정 나를 깨우쳤으니,

放浪江湖吾所跂	강호를 방랑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바라네.
矢將身世老漁樵	정녕 고기 잡고 나무하며 이 한몸 늙을지언정,
不欲醉生還夢死	취해서 살거나 꿈속에서 죽고 싶지는 않네.
今宵卮酒不須辭	오늘 밤 술잔을 모름지기 사양하지 않는 것은,
破除萬事從此始 <sup>170)</sup>	인간 만사 지금부터 모두 다 털어버리려 함이네.

매학정을 방문하고서 지은 시이다. 이 시는 내용상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단락은 첫째 구에서 열네 째 구까지이다. 벼를 찾아 매학정에 가는 길과 산 속 집에서 아이가 반갑게 맞이하는 내용이다. 산집을 찾아가는 길의 정경 묘사와 산집의 모습, 그리고 깊고 외진 산에 대해 묘사되어 있다. ‘孤山’·‘烟波’·‘竹扉’·‘空階’·‘九臯’·‘清音’·‘邨逕’ 등의 시어가 세속과는 동떨어진 청량한 느낌을 준다. 쉽게 접하기 어려운 공간적 배경이 속세와는 거리감을 조성하여 맑고 깨끗한 느낌을 준다. 세속적이지 않은 공간 배경에서 청신쇄락한 풍격을 찾을 수 있다. 둘째 단락은 열다섯째 구에서 서른째 구까지이다. 두 벼이 만나 자연을 즐기는 내용이다. 시인과 주인은 예전에 한번 보고 서로를 지기로 허여하였을 만큼 잘 통하는 사이로 깊은 산 속에서 재회를 하게 된다. 세속적인 잣대로 쟁 수 없는 청량한 만남이다. 인간 세상의 더러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탈속적인 공간과 인품, 그리고 자연이 한데 어우러져 맑고 깨끗한 흥취를 자아낸다. 셋째 단락은 서른 한 번째 구에서 마흔 네 번째 구까지이다. 자연 유람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닫고 등불을 켜놓고 밤을 새워 담소를 나눈다. 清新한 주인의 인품과 그 인품을 한 눈에 알아보고 벼를 맺은 시인의 인품이 모두 탈속적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 단락은 마흔다섯째 구에서 마지막 구까지이다. 주인의 삶을 보자 시인은 변화한 속세에 잘못 떨어진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자신도 세속을 벗어나려는 의지를 다짐해본다. 밤을 새워 대화를 나누고 술을 마시며 인간사 복

170) 李珣, 『全書』, 「拾遺」卷一, 「詩」, <訪梅鶴亭>.

잡한 일 들을 모두 털어버린다. 탈속적인 공간과 인물, 그리고 세속적인 먼지를 모두 털어 버리는 의식 등에서 탈속미를 찾을 수 있다.

다음 시는 <安心寺積雪樓次佔畢齋韻>이다.

世路饒羈思	세상사 넉넉한 나그네로 살다가,
禪林遇贊公	선가의 절에서 찬공을 만났네.
棲雲無限趣	정취는 끝없는데 구름만 서리고,
擊目不言中	말이 없는 가운데 눈만 마주치네.
燈落中天影	탑등은 하늘에서 떨어진 그림자요,
鍾傳下界風	종소리는 세상 울리는 바람이라.
神遊竹園裏	정신이 대숲 정원에서 노닐자니,
足洗六塵空 <sup>171)</sup>	욕진 모두 텅 빈 곳에서 발을 씻네.

안심사 적설루에서 점필재의 운에 차운하여 지은 시이다. 首聯에서는 나그네로 돌아다니다 禪宗 사찰인 안심사 적설루에 와서 점필재 김종직의 시를 보게 된 것을 말하고 있다. 頷聯에서는 구름이 서려있는 누각에 정취는 끝이 없고 눈길만 마주쳐도 서로 말이 없는 선가의 경지를 묘사하였다. 頸聯에서는 적설루의 경관을 묘사하였다. 그윽하고 은은한 적설루의 정경이 탑등과 종소리에 의탁하여 잘 묘사되었다. 尾聯에서는 마치 신선이 된 듯 청아한 마음과 몸으로 노닐다 보니 지혜를 해치고 공덕을 더는 여섯 가지 害物인 色·聲·香·味·觸·法이 모두 깨끗하게 씻겨서 맑게 비어버린 정신과 몸이 되었다고 마무리하고 있다. 세속적인 속기 없이 禪宗의 절에서 느끼는 청아함이 묻어난다.

다음 시는 <與汝器登覽浩然亭明日泛舟江中奏樂日沒而罷>이다.

171) 李珣, 『全書』, 「拾遺」卷一, 「詩」, <安心寺積雪樓次佔畢齋韻>.

玉友忽來翔  
握手滄溟濱  
山樹罷登臨  
蘭舟泛綠水  
煩暑此焉滌  
微風疊穀起  
山川四圍闌  
興入烟霞裏  
採蓮曲初歇  
殘暉遠岫紫  
酒醒人已遙  
相思渺千里<sup>172)</sup>

귀한 친구 갑자기 찾아와서,  
넓고 푸른 바닷가에서 손을 잡네.  
산 나무숲 다 오르고 나서는,  
목란배를 푸른 물에 띄웠다네.  
답답한 더위도 이곳에선 다 씻기고,  
산들바람에 겹 물결이 일렁이네.  
산천 사방 어둑해지니,  
홍취는 연기 놀 속으로 잤드네.  
연밥 따는 노래 다 부르고 나자,  
저녁 햇빛에 먼 산골은 붉어지네.  
술 깨어보니 벗은 이미 가고 없어,  
아득히 천리 밖에서나 그리워하리.

汝器와 함께 호연정에 올라 돌아보고서 다음날 강 위에 배를 띄워 풍악을 울리며 놀고서 지은 시이다. 첫째 구에서 넷째 구까지는 벗이 찾아와 호연정에 오르고 강에 배를 띄워 놀았던 일정을 묘사하였다. 귀한 벗과의 만남, 그리고 산과 강을 돌아다니며 자연과 더불어 노니는 모습이 상쾌하다. 다섯째 구에서 열째 구까지는 좀 더 구체적인 상황 묘사이다. 俗氣가 없는 청정하고 무구한 자연과 그 속에서 느끼는 흥취가 절로 묻어난다. 깨끗한 자연만큼이나 반갑고 좋은 벗 때문에 시인의 마음은 깨끗하게 비어있다. 마지막으로 두구는 술이 깬 뒤의 정황이다. 깨어보니 벗은 이미 저 멀리 떠나가고 없다. 함께 어우러져 놀았지만 흥이 다 하자 굳이 헤어짐의 인사에 구애되지 않는다. 세속적 범절이 아닌 자유로운 정신세계가 두 벗 사이에 소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정한 자연 속에서 자유롭고 깨끗한 정신세계를 소유한 두 벗의 흥이 잘 그려진 시이다.

다음 시는 <斗尾十詠>이다.

172) 李珣, 『全書』 卷二, 「詩下」, <與汝器登覽浩然亭明日泛舟江中奏樂日沒而罷>.

燒痕得雨潤  
 草深山逕微  
 曳杖乘晚興  
 入林歌采薇  
 谷口鎖暮煙  
 盈筐應始歸<sup>173)</sup>

불에 탄 흔적 비를 맞아 촉촉한데,  
 산 풀이 무성해서 산길이 가려졌네.  
 지팡이 짚고 나가선 저녁 흥을 타고,  
 숲 속에서 노래 부르며 고사리를 캐네.  
 골짜기 입구 저녁연기로 가득할 때면,  
 광주리에 가득 채워 돌아오리라.

1569년 10월에 율곡이 임금의 특별 휴가를 얻어 강릉 외조모에게로 가서  
 외숙인 韓正脩가 사는 곳에 머물며 지은 시이다. 부제를 <早谷採薇>라 하여  
 새벽 계곡에서 고사리를 캐며 지은 시라고 하였다. 첫째 구와 둘째 구는 비  
 온 뒤 산 속 풍경이다. 불에 탄 흔적이 있는 나무들은 비를 맞아서 촉촉하게  
 윤이 나는데, 비를 맞고 무성하게 자라난 풀들은 산길을 가리었다. 셋째 구와  
 넷째 구는 숲 속을 찾은 시인의 모습이다. 산 속에서 늦도록 흥을 즐기는 한  
 가로운 모습이다. 세속적이지 않은 閑情이 느껴진다. 다섯째 구와 여섯째 구  
 에서는 저녁연기가 골짜기 입구를 온통 희뿌옇게 가리는 시간이 되면 광주리에  
 고사리를 가득 채워 돌아오겠다고 하였다. 풍요로운 시인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 숲에 들어가 채미가를 부르거나 고사리를 따 광주리 가득 담아 내려온  
 다거나 하는 것에서 세속적 욕심이 제거된 清新한 詩情을 느낄 수 있다.

다음은 <送李可謙增遊頭流山>이라는 시이다.

頭流楓岳可尋眞  
 誰脫區寰沒馬塵  
 我昔白雲臺上客  
 君今青鶴洞中人  
 吟鞭驛路春千里

두류산 풍악산은 진실로 가볼만한 곳이니,  
 인간 세상 깊은 번뇌 누군들 벗어날까.  
 나는 그 옛날 백운대 위 나그네였는데,  
 그대는 오늘날 청학동 속 사람이구려.  
 시 읊으며 말타고 가는 길 봄은 천리 펼쳐지겠고,

173) 李珣, 『全書』 卷一, 「詩上」, <斗尾十詠> 中 <早谷採薇>.

蠟屐山蹊月一輪	나막신 신고 걷는 계곡엔 달 등글쨌지.
收拾烟霞知幾許	산수 경치 두루 보면 얼마나 시를 쓸까,
錦囊從此貯清新 <sup>174)</sup>	이제부터 금랑엔 청신한 시 가득하겠네.

두류산에 놀러가는 北匡 李增을 전송하면서 지은 시이다. 首聯에서는 두류산 풍악산이 참을 찾을 만한 산이라 하여 이증이 산에 가서 참을 깨닫고 올 것이라는 암시를 하였다. 頷聯에서는 전에 금강산에 들어갔던 추억을 더듬으며 이증이 두류산에 가는 것과 비교하였다. 頸聯에서는 두류산에 들어갔을 때 좋은 계절에 좋은 경치가 기다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천릿길로 펼쳐진 봄 역로와 둥근 달이 떠오른 계곡에서 느낄 이증의 자유인으로서의 모습을 상상한다. 율곡은 이증이 두류산을 유람하면서 지을 시를 淸新이라고 표현하여 청신쇄락한 풍격의 시를 지을 것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청렴하고 검소하였던 이증의 성품에 걸 맞는 당부와 기대가 아닐 수 없다. 두류산과 풍악산이라고 하는 공간과 청신한 시에 대한 기대에서 세속적 욕심을 제거시킨 탈속미가 느껴지는 시이다.

이상 율곡 시에서의 脫俗美는 세속적인 욕심이 제거된 깨끗한 마음으로 지어짐으로써 그로 인해 독자로 하여금 몸과 마음에 찌든 때를 씻어낼 수 있는 시에서 발견할 수 있는 미학임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율곡의 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주된 풍격은 그가 『精言妙選』에서 시의 전범으로 제시한 沖澹蕭散·閒美淸適·淸新灑落임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세 풍격으로 인해 형상화된 미적 특질이 淡泊美·閒適美·脫俗美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율곡 시의 미적 특질이 사립과 문학의 미적 특질이 실제 시에 형상화된 양상의 규명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174) 李珥, 『全書』 卷一, 「詩上」, <送李可謙增遊頭流山>.

## VI. 文學史的 意義

16세기는 사림 세력이 성장하던 시기로 이들은 분당과 사화 등 오랜 세월의 투쟁을 통해 宣祖代에 이르러서는 정국을 주도하는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다. 당시 사림은 향촌 사회에 그 기반을 두고 학문적 역량을 축적하여 탁월한 학자들을 배출하였다. 율곡은 명종 후반기에 등과하여 진출한 신진사류로서 철학적 인식구조를 바탕으로 문학을 이론화함으로써 체계적인 미의식을 확립하였던 인물이다.

율곡의 문학에 대한 諸家の 평을 보면 다음과 같다.

퇴계가 士敬 趙穆에게 보낸 편지에 이르기를 (중략) 가던 날 아침에 눈이 내려 시험 삼아 시를 짓게 하였더니 말에 기대어 기다리는 짧은 시간 동안에 나서면서 몇 편 시를 지었는데 그 사람만 못하나 역시 불만하였다.<sup>175)</sup>

이 글은 율곡이 23세(1558)에 禮安 陶山에 가서 퇴계 선생을 찾아뵙고 난 뒤 퇴계가 趙穆에게 보낸 편지 글에 있는 말이다. 퇴계는 율곡의 시가 그 사람만 못하다고는 하였으나 이는 문장이 사람만 못하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재능보다 앞서서 율곡의 사람됨에 대한 칭송이라 볼 수 있다.

다음은 동고의 평이다.

동고는 안하무인이었으나 매번 율곡을 칭찬하기를 말만 하면 문장을 완성하니 가슴 속에서 유출되어 남들이 따라 갈 수 없었다라 하였다.<sup>176)</sup>

175) 李珥, 『全書』 卷三十三, 「附錄一」, <年譜上>. '退溪與趙士敬穆書曰 (中略) 去日朝雪作 試使吟詠 倚馬出數首詩 則不如其人 然亦可觀'

176) 李珥, 『全書』 卷三十八, 「附錄六」, <諸家記述雜錄>. '東臯眼下無文 每稱栗谷吐辭成章 胸中流出 人不可及'

동고는 율곡의 시가 가슴 속에서 유출된 시라고 평하였다. 이는 詩道合一을 주장하였던 율곡이 실제 시작에서도 유출의 시를 추구하였다는 반증이 된다. 이렇듯 타고난 자질을 바탕으로 활발한 문학 활동을 통하여 16세기 詞壇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율곡 시문학이 문학사에 끼친 의의를 살펴보겠다.

율곡은 16세기 중후반에 걸쳐 문학 활동을 함으로써 15세기와 17세기의 문예미학을 꿰뚫는 교량적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여 진다. 한문학사에서 율곡의 시문학이 가지는 의의는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다.

첫째, 강서시파의 이론을 토대로 한 훈구파의 문학 이론을 일부 수용함으로써 15세기와 16세기 초에 걸친 문학 이론을 종합 정리하여 16세기 중후반의 문학 이론과 접맥시키고 있다는 점에 의의를 부여할 수 있겠다. 앞서 살펴본 듯이 『정언묘선』에서 후반부에 제시한 用意精深·情深意遠·格詞清健·精工妙麗는 作詩의 方法과 관련 있는 風格이다. 문학이 내적 수양을 통한 유출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율곡이 시선집을 편찬하는데 있어서 구어 단련이나 미적 수식과 관련된 풍격을 후반부에 배치 시켜 놓은 것은 15세 후반부터 16세기 전반기에 걸쳐 풍미하고 있었던 강서시파의 문학적 견해에 대한 부분적인 수용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율곡은 詩作에 있어서 기교나 수식을 긍정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미의식이 문학의 본질이라는 점은 인정하였던 것이다. 도에 넘치지 않는 단련과 수식을 통한 미의 구현은 문학의 본질에 대한 인정이자, 훈구파의 문학적 견해에 대한 수용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작시의 방법론에 대한 수용은 기존 문단의 경향을 절충 융합하였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겠다.

둘째, 율곡은 사림파의 핵심인물로써 주자의 문예 이론을 추송하여 사림파의 미의식을 체계화시키고 종합함으로써 사림파 문학의 이론을 정립시켰다는 의의를 부여할 수 있겠다. 율곡은 한유와 고문가의 이론인 文以貫道, 송대 이학자 주돈이의 주장인 文以載道, 그리고 朱熹의 道本文末을 종합하여 文以形道라는 독창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儒家的 效用論을 수용함으로써 사

림파의 문학적 효용에 대한 견해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불문지문과 천연의 문장을 중시하는 견해를 피력함으로써 사림파의 미의식이 외적인 수식과 기교가 아닌 내적 수양을 통한 유출에서 그 본원을 찾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풍격론에 있어서도 冲澹蕭散이나 閒美清適, 清新灑落은 율곡이 이상적으로 여겨 추구하였던 풍격으로써 사림파의 미의식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풍격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율곡의 문학론은 율곡이 당시 사림파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으며 그의 문학 견해를 담고 있는 시선집이 당시 詞壇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주자의 문학론에 입각한 사림파의 문학적 이론의 체계화와 정립이라는 의의를 부여할 수 있겠다.

셋째, 16세기 중반이후 詞壇에 일게 되는 學唐의 단초를 제공함으로써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이후 문학론에 先聲의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의의를 부여할 수 있겠다. 고려 말 이래로 이어져 내려온 江西詩派에 대한 열기가 식고 江西詩風에 대한 회의가 일면서 16세기 중반부터 白光勳·崔慶昌·李達 등 三唐詩人이 唐詩風을 이끌며 시단의 중심을 唐風으로 전환시켜 놓는다. 때문에 16세기 중반 당시풍의 전환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인물로는 주로 삼당시인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조금 앞서 율곡은 시풍 전환에 단초를 제공했다고 보여 진다. 율곡이 『精言妙選』에서 가장 주된 풍격으로 놓았던 충담소산의 대표시인으로는 왕유 맹호연 저광희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시학습에 있어서 성당에 대한 중요성을 부여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삼당시인의 대표인물인 이달의 시풍을 허균이 清新雅麗로 규정했던 것도 이를 뒷받침해준다고 하겠다. 清新은 唐風을 추구한 시에서 발견되는 풍격이다. 그리고 율곡이 세 번째로 두었던 청신쇄락은 이러한 당풍을 반영하는 풍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시론에서뿐 아니라 실제 시작에 있어서도 그러한 경향은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형식적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민교수는 『목릉문단과 석주권필』에서 16, 17세기 학당풍의 성격과 그 풍정을 논하면서 학당풍의 중요한 성격으로 칠언절구의 각광과 고시 장편의 선호에 주목하였다. 율

곡의 시를 형식으로 분류해 볼 때 515수의 시 중에서 칠언절구는 152수를 차지한다. 율곡의 시 중에서 단일 시형으로서는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율곡이 현실적 이유에 의해 주로 시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칠언율시보다 칠언절구의 수가 더 많다는 것은 현실적 이유를 벗어난 詩作에서는 절구를 선호하였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실제로 율곡의 시에 있어서 칠언율시는 대부분 사신이나 사람들과의 수창을 위한 현실적 이유에서 지어진 경우가 많다. 즉, 칠언절구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학당에 대한 율곡의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또한 율곡의 시 중에서 고시는 대부분 장편인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600구에 이르는 시를 비롯하여 율곡의 시 중에는 각종 輓詞나 산수시 등 장편 고시가 여러 수 있다. 율곡의 시에 나타나는 장편고시 역시 율곡이 작시에 있어서 당시풍을 선호하였던 측면을 반증해 준다. 그리고 선배 임억령에 대한 극찬과 존경을 통해서도 당시풍에 대한 율곡의 견해를 확인할 수 있다. 임억령은 지봉유설에서 ‘이백을 배운 자로 일컬어졌지만 『白樂天集』을 읽었다’<sup>177)</sup>라 하여 學唐을 하였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율곡은 도학은 퇴계요, 정치는 정암이라<sup>178)</sup> 하여 도학과 정치에 있어서 두 인물에 대해 존경을 나타낸 적이 있다. 그리고 學問과 詩才에 있어서 존경과 찬사를 보낸 인물로는 임억령에 비유할 만한 인물이 없었다.

다음 시는 선배 임억령에 대한 칭송과 존경의 마음을 담고 있는 시이다.

石川古遺士	석천 임억령은 옛 재야 학자로,
風雨生揮筆	붓 끝에서 비바람이 일어난다네.
俊逸與清新	재능 뛰어나고 성품까지 맑은 것,
公今合爲一	석천이 지금 두루 다 갖추었네.
興來百紙盡	흥나면 시를 써 종이가 백여 장,

177) 李睟光, 『芝峯類說』. ‘林石川 號爲學李白者 而常讀樂天集云’.

178) 李珥, 『全書』 卷三十四, 「附錄二」, <年譜下>.

倏忽成卷帙	잠간 사이 책 한권 쓰곤 한다네.
小子才可愧	나의 재능은 부끄러울 뿐이니,
不能窺堂室	공의 詩才 엿볼 수준이 아니네.
一席得親灸	한 자리에서 직접 가르침 받으니,
何辛同時出	동시대 난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平生不屈膝	평생 동안 무릎 꿇은 적 없지만
今日爲公屈 <sup>179)</sup>	오늘은 공에게 무릎을 꿇는다네.

두보가 이백의 시를 극찬하여 지은 詩句<sup>180)</sup>를 인용하여 임억령의 詩才를 극찬하고 있다. 선배 임억령의 시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다. 그리고 일곱 째 구에서 마지막 구까지는 임억령과 비교한 자신의 재주가 얼마나 미약한 것인가, 그리고 임억령 같은 뛰어난 선배와 같은 시대에 출생하여 가르침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가에 대해 언급하였다. 공자가 자로의 학문 수준을 堂과 室<sup>181)</sup>에 비유하여 표현한 것을 인용하여 자신을 겸양하면서 임억령을 높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공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라 하여 진심에서 우러난 존경과 경외의 마음을 담아내었다. 임억령의 시에 대한 극찬에서 율곡이 唐風의 시를 선호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듯 시론은 물론이거니와 작시 경향에 있어서도 당풍에 대한 율곡의 의지를 엿볼 수 있고, 이는 이후 학당에 대한 단초의 제공이라는 의미를 부여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율곡의 『精言妙選』은 17세기 이후 주자의 시론을 계승하고자 하는 각종 시선집의 선편이 되었다는 것에 의의를 부여할 수 있겠다. 앞서 문학론에서 율곡은 주자의 문학론을 계승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주자는 漢魏古詩를 높이 평가하여 學詩의 방법으로 擬古를 긍정하였다. 그리고 『詩經』의 뒤를 이을 시선집을 편찬하고자 하였으나 결국엔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율

179) 李珣, 『全書』卷一, 「詩上」, <次林石川韻>.

180) 杜甫, <李白詩> . '筆落驚風雨 詩成泣鬼神', <李白詩> . '清新庾開府 俊逸鮑參軍'

181) 『論語』, 「先進」. '門人 不敬子路 子曰 由也 升堂矣 未入於室也'

곡의 『精言妙選』에는 주자의 이러한 뜻을 이어받았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精言妙選』이 古詩를 높이 평가하고 고시를 시의 전범으로 여겨 주된 풍격을 담고 있는 시로써 고시를 제시하고 있으며, 율곡이 주자의 문학론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율곡의 『精言妙選』 창작의 동기에 주자의 시선집 편찬의도를 실현하고자 하였던 의지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는 李敏敍의 『古詩選』, 金萬基의 『詩選』, 南有用·吳瑗·李天輔의 『詩選』 등 주자의 遺意를 잇겠다는 의식<sup>182)</sup>을 가지고 편찬된 17세기 각종 시선집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이 되었으리라 추론할 수 있겠다. 16세기 후반 문단에 만당풍이 풍미함으로써 그로 인한 한계가 지적되면서 17세기 초에는 성당풍 추구의 일환으로 고시에 주목하게 된다. 때문에 율곡의 『精言妙選』은 고시의 학습을 통하여 詩道를 확립하고자 하였던 주자의 시선집 편찬 의도의 실현이라는 의미 부여할 수 있으며, 이는 주자의 의도를 계승하고자 편찬된 17세기 이후 각종 시선집의 선편이 되었다는 의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의의를 종합하면 율곡은 16세기 중후반기에 걸쳐 문학 활동을 함으로써 15세기의 문학 이론을 종합 정리하고, 16세기 사림과 문학 이론을 체계화 하였으며, 그를 토대로 17세기 문학 이론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율곡의 시문학은 15세기에서 17세기에 이르는 문예 미학을 꿰뚫는 교량적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

182) 장유승, 「17세기 고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02)

## VI. 結 論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고 이후의 연구 과제를 제안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본고는 율곡의 문학론과 시세계, 그리고 『精言妙選』을 통한 미적 특질을 고찰함으로써, 성리학적 체계에 기반하고 있는 율곡의 문학관을 밝히고, 『精言妙選』을 통한 율곡의 심미의식과 그의 시에서 발견되는 미적 특질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사림과 문학의 실체를 규명하는 작업이라 의의를 부여할 수 있겠다.

栗谷의 文學論은 文以形道와 善鳴·不文之文과 天然·儒家的 效用論으로 나누었다. 文以形道와 善鳴은 율곡 문학의 본질론으로써 율곡의 문학본질은 그의 철학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으니, 氣包理와 氣發理乘의 논리가 그의 문학론에까지 확장 적용되어 文以形道와 善鳴이라는 독특한 문학 인식을 탄생시켰고, 文以形道와 善鳴이라는 논리 속에서 문에 담아야 할 최고의 가치는 六經에 실려 있는 내용이다. 不文之文은 詩文의 창작에 있어서 지나친 조탁이나 수식을 배척하였던 것으로 이는 創作論에 해당한다. 율곡은 인위적인 조작이 없으면서도 자연스러운 최고의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는 天地之文과 聖賢之文을 至文으로 보고 不文之文을 강조하였다. 율곡은 天然에서 나온 시를 높게 평가하였는데, 이는 율곡의 시 비평론에 해당한다. 율곡은 도학자로서 전형적인 儒家的 效用論을 가지고 있었다. 문학은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性情의 醇化, 사회적인 측면으로는 民風 教化, 국가적 측면에서는 나라의 흥망성쇠를 살피는 수단인 동시에 華國之文이라는 효용이 있다는 견해이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율곡 문학론의 특징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도덕적 수양을 전제로 한 학문과 문학과 삶의 통일성이다. 둘째, 자연성과 순수성에 대한 지향이다. 셋째, 일상의 삶과 유리될 수 없는 현실성이다. 이상과 같은 율곡의 문학론은 사림과의 문학 이론을 체계화시켰다는 의

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율곡의 詩世界를 詠懷詠史詩·說理理趣詩·山水遊覽詩·交遊贈答詩로 구분하였다. 詠懷詠史詩는 그리움이나 쓸쓸함 등의 감정을 읊은 시와 역사적 인물이나 고사와 관련된 내용을 시의 주제로 삼아 역사적인 의의를 되새기고 후세에 대한 경계를 담고 있는 시이다. 이는 서정적인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인으로서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으며, 율곡의 역사적인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說理理趣詩는 理氣論·心性論·修養論에 이르는 철학적 본질을 담고 있는 시로써 학문적 蘊蓄을 詩라는 형식으로 형상화시킨 것이다. 이는 學問的 바탕 위에 詩的 美學을 겸비하여 道文一體 문학관을 詩作에 실천한 시이며, 도학자인 율곡의 학문적 경향이 나타난 시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山水遊覽詩는 사실적인 山水描寫와 절제된 感賞을 겸하여 情景交融을 이루고 있는 시이다. 내용면에서 보면 산수 경물을 묘사한 것, 情景交融의 의경을 창조한 것 등이 있고, 형식상 寫實性을 중요한 특징으로 하며, 자연 경관에 대한 天然의 詩情이 잘 묘사되어 있다. 산수를 좋아하는 율곡의 성품과 입산 시절에 금강산을 유람하였던 경험에서 나온 시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交遊贈答詩는 그의 시에서 분량이 많다는 이유에서, 그리고 인간적인 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세계이다. 교유증답시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율곡이 作詩를 함에 있어서 인간관계라는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시를 지은 경우가 많다는 의미로써 율곡의 작시 경향을 이해할 수 있는 시이기도 하다. 친구 및 스님 그리고 사신들과의 교유를 통해 쓰여진 시가 많은 것을 통해서 율곡의 교우관계와 생애까지도 살펴볼 수 있었다. 이상 율곡의 시세계에는 그의 삶과 작시 경향, 그리고 도학자이자 문인으로써의 면모까지도 모두 녹아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율곡은 『精言妙選』에서 풍격에 대해 제시하였다. 『精言妙選』은 여느 詩選集과는 달리 風格을 분류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율곡의 문예미학에 대한 관점은 물론 16세기 사림과의 문예미학까지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

가 된다고 하겠다. 율곡은 科擧에 몰두하고 조탁과 기교를 숭상하는 당시 문단 상황을 문학의 위기라고 진단하고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주자학적 문이론을 확립함으로써 문학의 본질을 확립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 『精言妙選』을 편찬하였다고 보여 진다. 문학적 이상과 문학적 본질의 융합, 그리고 작시의 전범과 작시의 현실을 조화시킨 결과물로써의 『精言妙選』은 詩的 典範의 提示와 作詩의 現實 收容이라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詩的 典範의 提示에 해당하는 풍격은 沖澹蕭散·閒美清適·清新灑落이다. 作詩의 現實 收容에 해당하는 풍격은 用意精深·情深意遠·格詞清健·精工妙麗이다. 沖澹蕭散에서 沖澹은 감정이 고상하고 생각이 원대하며 몸을 잊고 마음에 집착이 없는 것이 시에 반영되어 자아내는 美感이고, 蕭散은 자연스럽고 구속됨이 없어 한가한 것이다. 閒美清適은 천지자연의 관조를 통해 天人合一의 경지에 이르러 자연과 하나가 되어 절로 일어나는 흥에서 나오는 풍격이다. 清新灑落은 맑고 새로우며 속되지 않은 것이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몸을 깨끗하게 보존함으로써 속세 인간의 俗氣가 없는 탈속적 경지를 의미한다. 用意精深한 풍격은 句語鍛鍊이 되어 시어가 정교하고 다의적이며, 格度嚴整하여 섬세한 詩情을 담아낸 풍격이다. 情深意遠은 외적인 자극에 반응한 내적 정서의 표출로 지어지되 ‘怨而不悖 哀而不傷’한 詩情을 담아 깊고 고요한 마음에서 나오는 풍격을 의미한다. 格詞清健은 勁健하고 급박함 없는 천성이 문장의 내면에 바탕을 이룸으로써 표출되는 풍격이다. 精工妙麗는 시인의 정신에서 천연스럽게 우러나 正氣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적인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는 풍격을 의미한다. 그 중 沖澹蕭散·閒美清適·清新灑落은 율곡의 시에서 발견되는 풍격미학으로써 세 풍격에서 발견되는 미학은 淡泊美·閒適美·脫俗美로 요약된다. 淡泊美에 해당하는 풍격은 沖澹蕭散으로 沖澹蕭散한 시는 내용면에서는 거짓 없는 순수한 마음이 담겨있으며, 표현적인 면에서는 기교 없는 사실적 묘사가 전제되어 묘한 흥취를 살린 시이다. 閒適美에 해당하는 풍격은 閒美清適이며 閒美清適한 시는 자연에 대한 조용한 관조를 통해

天人合一의 경지에 이룸으로써 자연과 인간이 혼용된 몰아일체의 흥이 형상화된 작품이라고 하겠다. 脫俗美에 해당하는 풍격은 清新灑落이다. 清新灑落한 시의 가장 큰 특징은 脫俗性이다. 때문에 청신쇄락한 풍격은 세속적인 욕망을 제거시킨 깨끗한 자연과 마음을 읊은 시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율곡 문학의 문학사적 의의는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15세기와 16세기 초에 걸친 문학 이론을 종합 정리하여 16세기 중후반의 문학 이론과 접맥시키고 있다. 둘째, 사림파의 미의식을 체계화시키고 종합함으로써 사림파 문학의 이론을 정립시켰다. 셋째, 16세기 중반이후 詞壇에 일게 되는 學唐의 단초를 제공함으로써 17세기 이후 문학론에 先聲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넷째, 율곡의 『精言妙選』은 17세기 이후 주자의 시론을 계승하고자 하는 각종 시선집의 선편이 되었다. 그로 인해 15세기와 17세기의 문예 미학을 꿰뚫는 교량적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의의를 부여할 수 있겠다.

이상 율곡의 文學論과 詩世界, 그리고 그의 風格과 詩的 美學에 대한 고찰은 율곡의 시문학에 대한 고찰인 동시에 사림파 문학의 전반에 대한 고찰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이는 우리나라 漢詩史에 있어서 율곡이 차지하는 위상의 정립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앞서 문학사적 의의에서 율곡의 시문학이 16세기 중반 당시풍으로의 전환에서 선성의 위치를 점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문학사적 의의에 대한 구체화 작업으로써 율곡의 시에서 나타나는 당풍에 대한 고찰은 의미 있는 연구가 되리라 여겨지며, 이는 후일의 과제로 남겨두는 바이다.

## ◆ 참고문헌

### <基本資料>

- 李珥, 『栗谷全書』, 韓國文集叢刊 卷 44·45, 民族文化推進會, 1989.  
\_\_\_\_\_, 『栗谷全書』, 대동문화연구원, 1992.  
\_\_\_\_\_, 『國譯 栗谷全書』, 韓國精神文化研究院, 朝銀文化社, 1996.  
\_\_\_\_\_, 『國譯 栗谷集』, 民族文化推進會, 1977.  
\_\_\_\_\_, 『靜言妙選』, 서울대학교 규장각 일사본.

### <參考資料>

- 鄭澈, 『松江集』, 韓國文集叢刊 卷 46, 民族文化推進會, 1989.  
李達, 『孫谷詩集』, 韓國文集叢刊 卷 61, 民族文化推進會, 1989.  
成渾, 『牛溪集』, 韓國文集叢刊 卷 43, 民族文化推進會, 1989.  
徐居正, 『東文選』  
『大東詩選』, 學民文化社, 1992.  
『論語』, 學民文化社, 1990.  
『禮記』, 明文堂, 2003.  
『大東野乘』, 民族文化推進會, 1971.  
『古文眞寶』, 保景文化社, 1987.  
『欽定四庫全書』  
『周易』  
『史記』  
『朱子語類』, 山東友誼書社, 1993.  
李晔光 著, 南晚星 譯 『芝峯類說』, 乙酉文化社, 1994.  
劉鏞 著, 周振甫 注, 『文心雕龍』, 里仁書局印行.

魏慶之, 『詩人玉屑』, 韓國漢詩研究院, 1992.  
鍾嶸 著, 林東錫 譯, 『詩品』, 학고방, 2003.  
趙則誠 외, 『中國古代文學理論辭典』, 吉林文史出版社, 1985.

<單行本>

강석중 외, 『조선시대의 한시』, 문헌과해석사, 1999.  
곽소우 교석, 김해명·이우정 옮김, 『창랑시화』, 소명출판, 2001.  
金相洪 외, 『韓國文學思想史』, 啓明文化社, 1993.  
金永, 『朝鮮後期 漢文學의 社會的 意味』, 집문당, 1993.  
金貞仁, 『朝鮮中期 士林의 記文研究』, 국학자료원, 2003.  
金太俊 외, 『朝鮮漢文學史』, 太學社, 1996.  
김병국, 『고전시가의 미학탐구』, 月印, 2000.  
김풍기, 『朝鮮前期文學論研究』, 太學社, 1996.  
류성준 외, 『중국시의 전통과 모색』, 신아사, 2003.  
文璇奎, 『韓國漢文學』, 二友出版社, 1989.  
박영주, 『정철 평전』, 중앙 M&B, 1997.  
성훈 著, 성백효 옮김, 『우계집』 1, 민족문화추진회, 2000.  
孫五圭, 『산수미학탐구』,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6.  
송익필 著, 조남권·이상미 譯, 『송구봉시전집』, 박이정, 2003.  
신연우, 『사대부 시조와 유학적 일상성』, 이회, 2000.  
申用浩, 『漢詩形式論』, 전통문화연구회, 2002.  
沈佑燮, 『韓國傳統思想의 理解』, 螢雪出版社, 1994.  
안대회, 『18세기 한국한시사 연구』, 소명출판, 1999.  
吳戰壘 著, 유병례 譯, 『中國詩學의 理解』, 太學社, 2003.  
王甦·李章佑, 『退溪詩學』, 退溪學研究院刊, 1985.  
劉勰 著, 최동호 譯, 『文心雕龍』, 민음사, 1997.

- 윤사순, 『조선시대 성리학의 연구』, 고대 민족문화연구원, 1998.
- 尹浩鎭, 『漢詩의 意味構造』, 법인문화사, 1996.
- 李東英, 『儒家文學觀과 詩世界』, 부산대학교출판부, 1997.
- \_\_\_\_\_, 『儒家文學觀과 詩世界』, 부산대학교출판부, 1999.
- 李敏弘, 『사림과문학의 연구』, 月印, 2000.
- \_\_\_\_\_, 『朝鮮朝 詩歌의 理念과 美意識』, 成均館大學校 出版部, 2000.
- 李丙疇 외, 『韓國漢文學史』, 半島出版社, 1995.
- 李炳漢 외, 『中國古典文學理論批評史』, 韓國放送通信大學, 1989.
- \_\_\_\_\_, 『중국 고전 시학의 이해』, 文學과 知性社, 1993.
- \_\_\_\_\_, 『漢詩批評의 體例研究』, 통문관, 1985.
- 李秀雄, 『朱熹與李退溪詩比較研究』, 北京大學出版社, 1991.
- 李珥編 著, 기대완 譯註, 『靜言妙選』, 보고사, 1999.
- 李珥編 著, 허경진 옮김, 『栗谷 李珥 詩選』, 평민사, 2000.
- 이종민, 『근대 중국의 문학적 사유 읽기』, 소명출판, 2004.
- 李鍾燦 외, 『조선시대한시작가론』, 이회, 1996.
- 이종호, 『화담 서경덕』, 일지사, 1998.
- 李鍾默, 『한국 한시의 전통과 문예미』, 太學社, 2002.
- 이향배, 『한국한시비평론』, 이회, 2001.
- 林熒澤, 『韓國文學史의 視角』, 創作과 批評社, 1995.
- 장도규, 『조선오현의 삶과 시문학』, 정림사, 1999.
- \_\_\_\_\_, 『晦齋李彦迪文學研究』, 國學資料院, 1999.
- 장세호, 『沙溪 金長生의 禮學思想』, 경인문화사, 2006.
- 정대림, 『한국고전비평사』, 太學社, 2005.
- 정민, 『목릉문단과 석주권필』, 太學社, 1999.
- \_\_\_\_\_, 『한시미학산책』, 솔, 1997.
- 丁範鎭 외, 『中國文學史』, 學研社, 1987.

- 정요일, 『漢文學批評論』, 집문당, 1994.
- 정요일 외, 『고전비평용어연구』, 태학사, 1998.
- 鄭亢教, 『율곡 선생의 금강산 답사기』, 이화문화출판사, 1998.
- \_\_\_\_\_, 『栗谷先生の 詩文學』, 이화문화출판사, 1993.
- 조남권 외, 『한국고전비평론 자료집』, 태학사, 1998.
- 조동일, 『한국문학사상사시론』, 지식산업사, 2003.
- 車柱環, 『중국시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 崔在赫, 『중국고전문학이론』, 도서출판 역락, 2005.
- 崔珍源, 『國文學과 自然』, 성균관대학교출판사, 1986.
- 崔台鎬, 『松江文學論考』, 亦樂, 2000.
- 최해중, 『한국한문학사』.
- 팽철호, 『중국고전문학 풍격론』, 사람과 책, 2001.
- 풍우란 著, 박성규 옮김, 『중국철학사』, 까치, 2001.
- 하정승, 『고려조 한시의 풍격연구』, 다운샘, 2002.
- 洪萬宗 著, 許捲洙·尹浩鎭 譯, 『譯註 詩話叢林』, 까치, 1993.
- 황의동, 『한국의 사상가 10인 -율곡 이이-』, 상지사, 2002.
- 黃俊淵, 『이율곡, 그 삶의 모습』,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 黃湏江, 『韓國文學研究入門』, 지식산업사, 1996.
- 劉若愚 著, 李章佑 譯, 『中國詩學』, 同和出版公社, 1984.
- \_\_\_\_\_, 『中國의 文學理論』, 同和出版公社, 1984.
- 蕭滌非 외 撰寫, 『唐詩鑑賞辭典』, 上海辭書出版社, 2002.
- 吳小如 외 撰寫, 『漢魏六朝詩鑑賞辭典』, 上海辭書出版社, 2002.
- 湯一介, 『中國傳統文化中的儒道釋』, 中國和平出版社, 1988.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28권, 탐구당문화사, 1966.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29권, 탐구당문화사, 196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30권, 탐구당문화사, 196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31권, 탐구당문화사, 1966.  
 韓國漢詩學會, 『韓國漢詩研究』 3권, 太學社, 1995.  
 韓國漢詩學會, 『韓國漢詩研究』 8권, 太學社, 2000.  
 韓國漢詩學會, 『韓國漢詩研究』 13권, 太學社, 2005.  
 韓國漢文學會, 『한국한문학과 미학』, 太學社, 2003.  
 國語國文學會, 『고전비평연구2』, 太學社, 1998.  
 韓國哲學會, 『韓國哲學史』 中卷, 東明社, 1997.

<論文>

姜求律, 「구봉 송익필의 시세계와 시품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1.  
 郭宗石, 「栗谷의 漢詩文學 研究」,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2.  
 金京兒, 「栗谷 李珣의 ‘善鳴’ 文學論 研究」,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金炳國, 「高山九曲歌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金豊起, 「栗谷 李珣의 文學論 研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8.  
 金惠淑, 「栗谷의 自然吟詠에 返照된 學問的 修練」, 『韓國漢詩研究 8』, 韓國漢詩學會, 2000.  
 김상일, 「율곡 이이의 선체험과 그 시세계」, 『韓國文學研究 24집』, 韓國文學研究所, 2001.  
 김용재, 「栗谷 李珣의 文學思想研究」,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김태환, 「율곡의 미적 인식에 대한 고찰」, 『배달말 28』, 배달말학회, 2001.  
 朴炳玟, 「松江 鄭澈의 漢詩 研究」,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朴泳夏, 「栗谷詩에 關한 研究」,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 朴春娥, 「栗谷의 ‘沖澹蕭散’과 그의 詩世界」,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朴彭鍊, 「花潭 徐敬德 漢詩의 研究」,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2000.
- 裴眞漢, 「栗谷 山水詩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 成忠模, 「蓀谷 李達의 詩 研究」,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成河春, 「栗谷文學의 研究」, 충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7.
- 梁光錫, 「沙溪思想研究」, 沙溪·愼獨齋兩先生紀念事業會, 1991.
- \_\_\_\_\_, 「愼獨齋思想研究」, 沙溪·愼獨齋兩先生紀念事業會, 1993.
- 龍煥鎭, 「栗谷 李珣의 文學觀 研究」,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尹絲淳, 「栗谷(李珣)의 自然觀」, 『民族文化研究』, 民族文化研究所, 1992.
- 윤채근, 「栗谷 文學論과 散文 精神에 對한 考察」, 『어문논집43』, 민족어문학회, 2001.
- 李起用, 「栗谷의 自然理解와 天人交與」, 『栗谷思想과 21世紀』, 栗谷學會, 2000.
- 이민홍, 「退溪詩歌의 品格 研究」, 『泮矯語文研究』, 1992.
- 李俸珪, 「송시열의 성리학설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6.
- 李然世, 「한시비평에 있어서의 시품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이원희, 「우계와 율곡의 인성론 연구」, 대구 효성 카톨릭대 석사학위논문, 1996.
- 이종묵, 「成倪 擬古詩 研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 李準姬, 「陶隱 李崇仁의 詩文學 研究」,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李哲理, 「鍾嶸 <詩品> 研究」,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 張都圭, 「晦齋 李彥迪 文學研究」, 경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3.

- 張裕昇, 「17세기 古詩 研究」, 韓國精神文化研究院 석사학위논문, 2002.
- 정병련, 「明道の '理有善惡' 再論」, 『東洋哲學 제7집』, 한국동양철학회, 1996.
- 정요일, 「退溪의 <陶山十二曲跋>과 栗谷의 <精言妙選序>에 나타난 詩歌觀」, 西江人文論叢, 2000.
- 정원재, 「이이 『율곡전서』」, 『철학사상』,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6.
- 정재철, 「정언묘선의 사유체계 및 심미의식」, 『韓國漢文學研究 34집』, 韓國漢文學會, 2004.
- 鄭亢教, 「栗谷 李珣의 詩文學 研究」, 暎園大學校 박사학위 논문, 2002.
- 崔文馨, 「栗谷의 主氣論的 文學觀과 詩世界」,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4.
- 崔承洵, 「栗谷의 文學觀」, 『율곡사상연구 제1집』, 율곡학회, 1994.
- 崔珠姬, 「栗谷의 文學理論 研究」,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1988.
- 팽철호, 「사공도 <이십사시품>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6.
- 洪宇義, 「栗谷의 文學論과 道學詩 研究」,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8.
- \_\_\_\_\_, 「栗谷의 文學論과 道學詩 研究」,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洪學姬, 「栗谷 李珣의 詩文學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1.

# **ABSTRACT**

## **A Study on Yulgok Yi Yi's Poetry**

Park, Kyung Shin  
Dept. of Chinese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xamine Yi, Yi's view on literature that based on the system of Sung Confucianism, and make his aesthetic consciousness and the lyric specialty of his poems clear through 『Fine Selection of Essential Words』 .

Yul-gok Yi, Yi was borne in December 26, 1536, in the 31st year of King Jung-jong, in Gang-neung. His head house is from 'Deok-soo', 'Ja(a name that is given when men grow to an adult)' is 'Sook-heon', 'Ho(easily called name besides real name or Ja)'. He was a dutiful son and grandson who has clemency personality and talent, in his family. After he start his official career, he fulfilled his duty as a righteous liege and affectionate public official who lead his lord to the road of sage king and take care of his people's pain. Moreover, he had an excellent reputation with his deep academic/literary world at home and abroad. He passed away January 16, 1584, in the 17th year of King Seon-jo when he was in office as a minister because of an unexpected illness.

We can get a idea on his friendship with his letters. As he is one of

Sung Confucian who represents our country, so his familiar fellows were also contemporary masters of Sung Confucian like, Yi Hwang, Seong Hon, Song Ik-pil, Jeong Cheol.

He thought ethics is the root and verses are branches and leaves as a moralist. That is, he thought sentences should show ethics. The sound that comes from a person is an operation of energy, and among all of that sound the best thing is the 'good singing'. He had typical moralist's view of utility theory that literature is helpful to mental culture, education of popular morals, and internal and external politics and diplomacy. He regarded important thing is natural and beautiful verses without flourishes, and he chose verses on nature and saints' are the best. In the aspect of criticism, he also put an emphasis on realistic description and natural sentences. Like this, his literary view has the meaning of systematizing the Confucians' literary theories at that times.

I examined his view on poetry as four parts of poems of reflection, ethics, excursions and letter poems and answers. Poems of reflection contain poems that show feelings like solitude, attachment and poems about historical facts and those related people. Poems of ethics show his academical tendency as a moralist. Poems of excursions sing pathetic scenes of nature. Letter poems and answers were exchanged with his friends, diplomatic representatives, buddhist priests, and seniors and juniors.

He compiled 『Fine Selection of Essential Words』, a selection of poems, with the summon of the times that overcoming problems at that times and establishing true nature of literature. Through this, he suggested an opinion about distinctive styles. This could be understood as two sides of

suggesting a poetic standard and accepting the situation of composing poems. Suggesting a poetic standard has its meaning as this was his ideal literature that he had been pursued. It took into account the reality of learning poetry through practicing the way to write poems and compromised and united existing tendencies of the literary world by accepting literary views of the national school party at that times. Touching sceneries that fall under the suggesting a poetic standard are Pure and Clean Farewell, Beautiful free welcoming, and New Freshness and Clearness. The standard of Pure and Clean Farewell is not regarding embellish their style importantly and poetic inspiration that can not be talked. We can say Pure and Clean Farewell has the touching scenery that are not embellished at all. Beautiful free welcoming is the scene that comes from spontaneous pleasure that reached to a state of the nature and a man became one while he look around the sky, the earth and the nature quietly. New Freshness and Clearness shows a style that means the state of unworldliness that has no mood of this world by preserving one's body clearly, without tainting with secular affairs. The characters that accept the reality of writing poems were expressed as four traits of his writing like, refined attitude ; polished and delicate writing, deeply cultured mind and distant will ; expressions of inner emotion as reactions of external stimuli that come from deep and still, sad but not hurted mind, right words and devotion ; inner flow of his strong and composed personality on his sentences, and moderate rhetorical beauty ; rhetoric in not an excessive range.

Pure and clean farewell, beautiful free welcoming, new freshness and clearness, refined attitude are the ideal style that he pursued, and those

specialties are aesthetic consciousness that can be found in his poems. Aesthetic specialties of his poems are pure and simple beauty, calm and free beauty, clean and not secularized beauty. It has the meaning as examination of aspects of aesthetic tendency formation of the Confusions literature and his in the real poems at the same time.

As his place in the history of literature, first, we can say he integrated and arranged theories of literature of 15th and early 16th centuries by partial acceptance of the national school party's opinion on the basis of the theory of the west river poetry school. Second, he established Confucian scholars' literature theories through synthesis and systematization of the Confucians' aesthetical senses. Third, he asserted literary tendencies of post 17th century first as suggesting the beginning to study the Tang ages poems that arose after mid 16th century. Fourth, his 『Fine Selection of Essential Words』 became the start of various selection of poems that succeeded Juhui (a Chinese Confucian of the Song ages) 's theories on poetry after 17th century.

Key words : Yi Yi, Yul-gok, Pure and Clean Farewell, Beautiful Free Welcoming, New Freshness and Clearness, Refined Attitude, Deep Mind and Distant Will, Right Words and Devotion, Moderate Rhetorical Beauty